

광천

〈제 146 호〉

1975년 2월 25일 인쇄

1975년 2월 28일 발행

1975





미 공군참모총장 공본 예방

미 공군참모총장 David C·Jones 대장은 1월 8일 방한 인사차 주 영북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자유중국 특명 전권대사 공본 예방

주한 자유중국 특명 전권대사 羅 英德씨는 1월 30일 공군 본부를 예방하였다.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육군 특전사령관 공본 예방

육군 특전사령관 정 병주 소장이 1월 28일 신임 인사차 주 영북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이임 UNC 참모장 공본 예방

UNC참모장 William E. McLeod 소장은 2월 3일 이임 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하였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공본 예방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Louis L. Wilson, Jr. 대장은 2월 11일 방한 인사차 주 영북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국방부 인력차관보 예방

1월 9일 국방부 인력차관보 박 회동 중장이 신임인사차 주 영북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공 군」

제 146 호

표지화·컷……이 후영 차례화·삽화……신 용 호

권 두 언	정훈감 민 병 규 (2)
청년장교의 나아갈 길 ①	한 갑 수 (4)
민족사의 재발견	유 달 영 (12)
조선 무사 정신의 역사적 고찰 ①	안 자 산 (22)

특 집

필승공군의 나아갈 길

신뢰받는 군인이 되자	이 중 승 (30)
군인과 책임완수	마 욱 (34)
상경하애와 「총화단결」	윤 영 춘 (43)
즉각응징하는 길	천 영 성 (48)
능력과 창조	김 원 기 (57)

논·단	지휘관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고찰	허 왕 (65)
	군인과 애국심	홍 중 도 (70)
	군의 새마을 정신	편 집 실 (75)
승공강좌	남침해온 땅굴	편 집 실 (87)

항공·군사·과학

NORTHROP P-530 COBRA	유 순 근 (96)
항공의료업무	김 광 수 (106)
2차대전 전의 항공발전 ①	심 사 수 (124)
연 제 = 자주국방을 위한 관리기법 ②	서 봉 철 (137)

= 만 화 =	공 군 만 상	박 진 래 (94)
---------	---------	--------------

〈역사를 빛낸 종교인들〉

군종코너	좌옹 윤 치 호	김 종 호 (155)
	어둠을 물리친 사람들	성 민 호 (161)
	이 차돈의 순교	이 인 수 (167)

= 단 편 소 설 =

그 림 밤	최 서 해 (173)
-------	---------------

공군

제 146 호

1975년 제 1 호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역사의 의미

정훈감 공군대령 민 병 규

유유히 흐르는 역사의 의미를 생각한다.

때로는 잔잔히, 때로는 거세게 넘실거리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엿어간다.

역사는 단절을 모른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역사의 장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하나의 끝에는 이미 또 다른 시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희랍의 신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프스」산에서 우리 인류에게 불을 훔쳐 준 이래 인간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얻었다.

그러나 삶의 능력을 얻었다고 다 살아 남을 수만은 없는데 생존경쟁임을 우리는 옛을 더듬어 깨닫고 있다. 과거 5,000년의 동양 역사를 통하여 근 30의 민족국가가 있어 왔으나 지금껏 문화, 언어, 풍습, 혈통을 지켜 오는 나라가 다섯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그 중 가장 까다로운 자리를 견뎌 지켜온 민족이 우리 한민족 뿐임을 자랑할 만도 하다. 그러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만은, 하는 자신과 자부가 우리 속에는 뚝뚝 묻혀 있는게 아닐까.

지금 놀랄만큼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의 발달, 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혁신 이것이 현실이다.

「문화사회 다음 단계의 사회」



「산업사회 다음 차례의 사회」

「제 2의 산업 혁명의 시대」

어떤 학자들은 오늘을 이렇게들 말한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현대의 경제 산업은 인류를 빈곤—정신적인, 물질적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도 같다.

그러나 20세기의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인구의 급증」, 「식량의 부족」, 「자원의 고갈」, 「공해」, 「전쟁의 위협」 등이 지금도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봄을 위하여 나무들은 남은 잎을 떨구어 뿌리에 깔고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묵묵히 견디어 이겨 나간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고 E·H·CARR은 말한다.

우리는 지난 우리의 노력을 이땅에 깔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숭고한 이땅의 부름을 잘 알고 있다.

거기엔 시련이 있을게다. 그러나 시련이 있기에 한 번 부딪쳐 볼만하지 않은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뜻에 맞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전은 그 가치가 주어지는 것일게다.

한 사람의 군인으로 우린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소리 없이 일하는 해」,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신년사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공군」이 되는 길이 75년에는 반드시 크고 탄탄하게 닦아져야 한다.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참뜻이 손끝 발끝까지 저리도록 느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선인의 말씀대로

「너는 네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서슴없이 「나는 우리 조국을 잘 살게 했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한 번 우리 힘을 모아보자.





청년장교의

나아갈 길

교양강좌

연재 ①

한갑수

<한국학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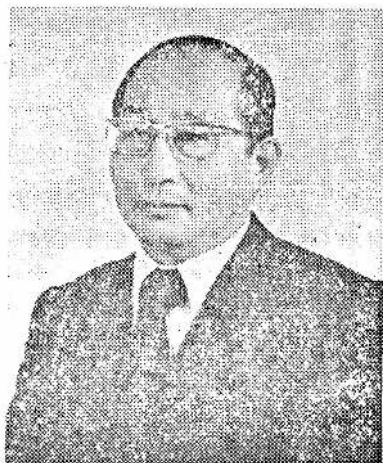
1. 로마 문화의 놀라움

내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갔을 때 「이탈리아」 문화성의 고관 「자코모」(Giacomo)씨와 인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로 보나, 그의 직책으로 보나 몹시 바쁜 사람일 터인데 저에게 베푸는 환대나 관심이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나는 사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지로 「로마」의 고적들을 돌아보고 나서 놀란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첫째의 놀라움은 「압피아도로」(Appia道路)였습니다. 「로마」는 기원 전 6세기에 벌써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세계 제일의 대도시였다고 합니

다. 백만이 넘는 인구라면 그 술한 사람이 먹는 「먹을거리」(糧食)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압피아도로」는 「로마」에 가장 가까운 농업집산지 「카푸아」(Capua)에서 「로마」로 「먹을거리」를 수송해 오기 위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포장도로(鋪裝道路)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카푸아」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전주」에 이르는 거리와 비슷한 거리였습니다. 그것을 2,500년 전에 현대식에 못지 않은 솜씨로 포장을 해서 아무리 오랜 장마에도 날마다 수백 대의 마차(馬車)가 짐을 싣고 달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토목 기술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2,5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원형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그 어느 부분은 그 오랜 동안 한번도 손간 때가 없이 처음 축조된 그대로라는 말을 듣고 숙연(肅然)해집은 느꼈읍니다.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현대 장비와 현대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고속도로가 두 달도 못 가서 여기저기 손질을 해야 되는 실정을 돌이켜 생각하고 화근해지는 느낌도 들었읍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 우리 역사의 황금기를 이룩한 「신라」 왕조가 창건된 것도 B.C. 57년이었으니 「압피아도로」는 「신라」 창건보다도 450년 정도 앞서 건설된 것이고 보면 그들의 선진도(先進度)가 우리와는 아득하게 위라는 것도 사실이고, 「신라」는 21대 「소지왕」(炤知王) 때까지는 아직 「부족사회」(部族社會)의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있다가 487년에 「우편제도」(郵便制度)를 처음으로 두게 되고, 490년 「시장」(市場)을 설치하면서부터 「소도성」(蕭道成)의 「제나라」(濟一) 또는 「태무제」(太武帝)의 「북위」(北魏)로부터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마다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스러운 발전을 이룩한 것은 아마도 581년 「양견」(楊堅)이 천하를 통일하고 「수나라」(隨一)를 세움으



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극(極)에 도달된 것이 618년 「이연」(李淵)의 「당나라」(唐一)가 세워진 이후의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의 문화는 우리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왔읍니다. 둘째의 놀라운 「콜로세움」(Collosseum)이것읍니다. 그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콜로세움」(원형경기장=圓形競技場)의 건조는 「예수」 탄생 시기와 거의 같은 데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읍니다.

장경(長徑)이 188m, 단경(短徑)이 156m의 다원형(橢圓形) 야외극장(野外劇場)으로서 5만의 「로마」 시민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놀라운 시설이라는 것

입니다. 「스타디움」의 웅대함, 솜씨의 절묘함, 그 당시로서는 「진전진미」라고 해서 과찬이 아닌 설계, 시공의 견고함, 지금은 전화(戰禍)로 군데군데 파괴된 부분이 있고, 여기저기 잡초가 우거져 있지만 그 옛날의 화려했던 모습이 역력히 엿보였습니다. 둘러싼 성곽(城廓)의 높이가 59m라고 하니 「서울운동장」 셋(3)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보다 오히려 높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의 놀라움은 「성 피에트로 사원」(聖 Pietro 寺院)의 예술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설계하고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150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걸려 수많은 예술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꾸며졌다는 예술의 전당이었습니다. 여기 발을 들여 놓으며 그저 무심히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복석일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누구나 탄성(嘆聲)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양쪽 벽에, 바닥에 온통 귀신의 솜씨로 만들어진 조각, 그림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설계, 그림, 조각의 솜씨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주위에 30년을 두고 만들었다는 조작품(造作品)이 있었을까? 하기에 「경주 석굴암」이 751년에 착공됐고, 774년 「김 대성」(金大城)이 죽은 뒤에 나라에서 이를 완성하였다고

하니 아마 30년쯤은 걸린 모양 같으나 그 밖에 이를 능가할 조작품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년을 두고 설계자의 용지를 계승하여 공사가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고개가 수그러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우리 문화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로마」에 가서 이런 것을 둘러 본 뒤에 그 용기가 무디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밤 늦게 「자코모」씨와 「로마」시청이 있는 언덕 위액을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주고 받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이야기로 우리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 「자코모」씨는 진지한 태도로 「이탈리아」 민족의 발자취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사교적인 연사를 써서 비위를 맞추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때에 느낀 그대로를 대답했던 것입니다.

『「로마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조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로마」제국을 무대로 꽃피고 열매맺은 「라틴문화」는 인류 문화의 가장 높은 상층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제국」의 정통파 후손이요, 「라틴문화」의

상속자인 오늘의 「이탈리아」 국민은 또 한 내가 존경하는 국민입니다. 오늘 비록 옛날과 같이 「아시아」 서단으로부터 「유럽 대륙」을 모조리 손아귀에 넣고, 「아프리카」 북단까지 휩쓸었던 위력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나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으로 인류의 정상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일이 반드시 재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코모」씨는 겸손하게 듣고 있더니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민족이 그런 칭찬을 듣기에는 너무도 모자라고 또 너무도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뒤졌다거나 변변치 못하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앞에는 언제나 길잡이가 있었고 또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북해 놓은 업적의 뒤에는 「그리스」의 솜씨와 「그리스」의 두뇌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관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뛰어난게 잘하던 일이 있는 했습니다. 「싸움」입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 수백년 동안은 전쟁의 상대자는 없었습니다. 쳐 들어가고, 죽이고, 뺏고, 납치하고, 부려 먹고, 하는 데는 뛰어난 소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은 「그리스」의 예술가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땅에서 개돼지같이 부림을 받고, 그들의 솜씨를 발휘하다가 죽어 갔읍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솜씨로 자랑하고 있는 수많은 역사 유물 가운데에는 「그리스」 예술가의 두뇌와 솜씨가 깃들여 있음을 솔직하게 토로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찬탄하고 계신 「압피아도로」의 축조 기술도 또 중간중간 걸려 있는 철교(鐵橋)도, 저 유명한 「콜로세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물론 「그리스」 같은 선진국 예술가들의 솜씨를 본받고 따라가는 동안, 우리 조상 가운데에도 훌륭한 예술가가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도 부도덕하고 너무도 잔인하게 선진국의 예술가를 혹사한 사실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감정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상은 위대했습니다. 「한국」의 조상은 남보다 먼저 깨고 남을 가르쳐 주기는 했을지언정 남의 피를 빨아 먹거나 남의 솜씨를 가로채거나 하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나는 「자코모」씨의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국」에 와 본 일도 없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문헌을 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뿐,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설명했거나 번역한 책이 1972년 여름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코모」씨가 「한국」에 들 와 봤거나

그가 사귀고 있는 「한국인」가운데 그런 설명을 해 줄 친구도 없었던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 「한국」은 고대 동양 문화의 발상지(發祥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 문화 등의 지식은 재검토되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국」의 「진나라」(晉) 때에 씌어진 「포박자」(抱朴子)란 책에 보면 「중국」 최초의 임금이라고 불리는 「황제 헌원」(黃帝軒轅)이 「청구」(靑丘=한국의 옛 이름)에 가서 「자부선생」(紫府先生)에게 「삼황내문」(三皇內文)을 받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오늘의 「중국」 글자인 「한문」이었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박자」에 있는 이 기록은 「한자」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다루되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신화시대」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1,700여년 전에 「한국」을 문자의 발상지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럴사한 여건(與件)이 구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전

제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고 : 黃帝軒轅東到靑丘受三皇內文於紫府先生(抱朴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기원전(B.C.) 20여 세기에 벌써 「절대종교」(絕對宗教 = Absolute Religion)적인 의식(儀式)으로 우주(宇宙)의 대주제자(大主宰者)를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문헌에 이 의식을 「蘇塗」라고 썼으나 이것은 「한국말」 「숫터」를 표기한 말이라고 주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숫터」는 터를 닦을 때, 흙을 모아 올려서 높이 솟게 하고 그 위에서 하늘께 경배하는 예식(禮式)을 올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시종교」는 미지(未知)의 것을 모두 「초인간적」(超人間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경배 대상으로 하면 「자연종교」(自然宗教 = Religion of Nature)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정신종교」

(Religion of spirituality)로 발달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오늘의「기독교」또는「불교」와 같이「절대종교」로 발전하는 것인데 4,000여년 전에「절대종교」의 형태로「우주의 대주제자」를 경배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경이(驚異)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10여 세기 뒤늦게 높은 산 위에 흙을 모아 제단(祭壇)을 만들고 그 위에서 하늘께 제사지내는 제도를 바아 들었는데 이것을「봉」(封)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 : 〔大戴禮, 保傳〕封泰山而禪梁甫

〔後漢書, 祭祀志論〕封者謂封土

爲壇, 柴祭告天代興成功也

〔周禮, 地官, 封人〕聚土曰封

〔禮, 檀弓上〕古也墓而不墳, 云

云, 於是封之崇

四尺. 〔注〕聚土曰封

더구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한국」남쪽 여러 군데에 지금도「숫터」라는 것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BC 2117년에(지금으로부터 4092년전)「중국」에서「한국」의 음악과 춤을 받아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임금」(禹王)이 세운「하나라」(夏一)「소강왕」(少康王)때 우리 예술 사절단(使節團)이 국민 대

우를 받으며 우리의 음악과 무용을 전달했다는 기록이「후한서」(後漢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그 뒤에는 음으로 양으로「그리스」가 도사리고 있듯이「동양」문화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중국」에 연유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계 지성들의 음적일 수 없는 실조가 되다싶이 된 오늘에 엉뚱하게「한국」이란 이름이 중요로운 대목에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자코모」씨는 정확하고 자신있는 어조로 이렇게 엮어 나아갔습니다. 나는 놀라움에 차서 입을 열어 말을 걸어 볼 용기가 나지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의 말을 끊고 나섰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록을 어느 문헌에서 읽으셨습니까?』

『「미국」에서「중국」문헌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 각국으로 보냅니다. 「하아버드 대학」에 있는「연경학회」(燕京學會=Yenching Institute)를 비롯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 : 〔後漢書〕九夷遂賓于王門獻其樂舞

〔後漢書〕扶餘以臘月祭天大會

連日飲酒歌舞名曰迎鼓

(더욱 자세한 것은 威和鎮著「朝鮮音樂通論」2-4)

그리고 「자코모」씨는 음성을 낮추며 조용조용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영국』속담에 Every tide has an abb'이라는 것이 있듯이 흥망 성쇠(興亡盛衰)는 어디에나 있더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000여년 전에 수출했던 음악을 800여년 전에 「중국」 「송나라」(宋一)에서 역수입을 했으니 까요.

참고: 1114년 『고려』 『예종』(睿宗)

9년 6월 『안稷崇』(安稷崇)이 『송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송나라』의 『徽宗』(徽宗)이 신악기를 주며 내렸다는 소서(詔書)는 다음과 같다.

樂與天地。同流百年而後興 功成而後作 自先王之澤渥 禮樂榮廢 由周迄今 莫之能述 朕嗣承累聖 基緒永唯 盛德休烈…中略…是用有錫今因信使安稷崇 回俯賜鄉新樂(高麗史志第二十四)

그러나 나는 「한국」의 조상들이 남고 다 먼저 했다는데 의의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먼저 했던 「한국」이 어찌하여 유사 이래(「예수」 이래) 「중국」의 문화를 역수입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문

화가 빛나던 시절, 「한국」의 조상들이 높은 생활철학으로 다른 어떤 민족도 도달하지 못한 「값있는 삶」을 누렸다는 점에 내가 「한국」의 조상을 존경하는 본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역사 가운데 어떤 위대한 군왕이나 성현이나 장군이나 유지가 훌륭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인은 어느 역사에도 있는 법입니다. 또 낱알의 자연인을 들추어 어느 나라의 누구누구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의 황금기에 있어서 어느 지도자 몇몇 사람이 위대하였다고 보다는 그 당시 국민 전체가 높은 생활 철학을 체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년 점에서 「한국」의 조상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실들과 내가 「한국」의 조상을 존경한다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나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숙연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자코모」선생,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나는 「자코모」선생이 어느 사실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황금기에 우리

국민 수준 전체가 그렇게 높았다고 하시는지 또 그렇게 빛나는 생활철학을 가졌었다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묻자, 「자코모」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평범한 사실을 통해서이죠. 내가 「한국」의 조상의 기록을 보고 그 때에는 국민 모두가 높은 생활 철학을 가졌었구나 하고 느끼게 된 소재(素材)는 「한국」의 지성인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하고 내 얼굴을 찡어질 듯이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코모』 선생,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는 것을 간파(看破)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나는 마삭 단타붙어서 물었습니다.

「자코모」씨는 겸손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나의 공부가 미흡합니다. 비록 미흡하기는 하지만 나의 관찰에는 자신을 가집니다. 나는 얼마 전에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발췌한 이야기 여남은을 읽고 깊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태성가」(泰成歌)를 읽고 「실라」국민의 애국적 단결과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무왕」(武王)을 읽고 「백제」국민의 높은 생활 철학과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 「태성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무왕」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국민의 생활 철학을 논한 만한 무슨 「거리」(素材)가 있다는 것일까?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코모」씨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 한자음과 뜻 ◎

결재해지(結者解之)…맺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 자기가 지지
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

부답복철(不踏覆轍)…선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음.

민족사의 재발견

유 달 영

<서울농대 교수>



우리는 지금 5천년의 과거와 추측하기조차 아득한 미래와의 사이의 한 시점에 이렇게 살고 있다. 길고 긴 생명과 역사에 연쇄(連鎖)의 한 개의 작은 고리(環)가 되어 살고 있다. 만일 이 고리가 제구실을 못하고 끊어진다면, 조상들이 5천년 동안 닦아 쌓아올린 역사는 한 개의 화석으로 과거의 역사 속에 매몰되고 말 것이며, 끝이 없이 양양할 후대의 역사도 허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재」를 바탕으로 받아 손에 쥐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가 맡겨준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겠

는가?

첫째로는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한 역사 속에서 현재를 손에 쥔 우리의 참 모습과 우리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을 분명하게 찾아내는 것이며, 다음은 현명과 슬기로 역사의 지향할 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 두 과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선명하게 부각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를 담당할 우리 자신의 참 모습과 그 존재 가치 및 내가 해야 할 과업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나 자신은 뚜렷어진 「나」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강물의 한 구성 분자인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발견한 「나 자신」이라야 내가 지향할 바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발견

되지 못한 「나」, 목표로 할 미래상을 소유하지 못한 「나」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빈 조각배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가공적인 소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나물 오늘 여기 있게 한 우리 조상들이 줄기차게 체험으로 걸어 온 생명의 여정인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이 귀중한 체험의 역사 속에서 성실과 용기와 슬기와 인내와 즐기찬 저항의 정신을, 그리고 또 고뇌와 신산(辛酸)과 절절한 비원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지금의 나 자신에 생생하게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나의 삶의 원천인 것이다.

과거도 현재도 나와 단절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의 강물인 것이다. 아무리 오래된 회미한 옛날의 역사라 할지라도 이 역사의 강물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민족과 국가를 막론하고 역사는 가장 올바르게 방향을 찾아주는 최선의 경전(經典)인 것이다.

사람은 예외 없이 교육의 산물이며, 또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교육과 사회를 떠나서는 벌써 사람일 수는 없다. 훌륭한 교육, 훌륭한 사회가 이룩되어 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선진, 후진, 야만의 차이를 가름하는 척도인 것

이다. 그런데 훌륭한 교육은 제 나라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훌륭한 사회 건설도 제 나라의 역사에 뿌리를 박지 않고서는 이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바람직한 사회로 지향할 수 있다는 진제를 우리가 긍정한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제 민족, 제 나라의 역사를 잘못 인식한다면, 그 그릇된 역사관 때문에 올바른 「나」의 발견과 지향할 목표인 미래상은 어떠한 정열과 힘을 가지고서라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지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인식되었고, 이해되어 왔는가를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였던 당시 그들의 정책의 두드러진 것은 교육을 억제하는 것과 역사를 말살하여 어둠 속에 가두어 두는 일이었다.

거족적으로 세우려고 하던 민립대학(民立大學)은 마지막까지 억제당하였고, 그들이 쫓겨나는 직전까지도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을 악랄하게 봉쇄하였다. 그 반면에 우리 민족의 애국자로서 직

접 간접으로 심혈을 기울여 교육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한글학자들은 결사의 각오로 빈곤과 탄압 속에서 한글을 연구하였으며, 단계(丹齋) 신 채호(申采浩) 같은 이는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 투쟁으로 동분서주하면서 국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교육과 역사를 통한 자기 발전이 자주 독립의 근본적인 과제인 것을 우리나라 일본이나 서로 잘 안 때문이었다.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온 국민이 분투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이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이 악의로 일그려뜨린 그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의 올바른 시정은 시급하고도 심각하다. 일본인들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까지도 우리 역사 범위 밖의 것으로 다루었고, 조선의 당쟁과 사화(士禍)를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주체성이 없고, 독창성도 없고,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당파성이 강하며, 내적 발전이 전혀 없는 민족으로 보았다.

한국 역사는 결국 그 전부가 비극적인 내우외환으로 시종된 것으로 꾸며서 희망 없는 열등 민족으로 낙인하였고, 또 그렇게 국제적으로도 널리 선전하였다. 오늘날 이것을 일본인들의 식민지사관(植民地史觀)으로 억압한 위축사관

(萎縮史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막대한 것도 우리 나라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 위축사관의 그물 속에 무의식 중에 끌려 들어가 있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극단으로 천대받는 울분은 자연히 조상들을 원망하게 되었고, 또 망국의 한으로 가득찬 가슴에는 구한말의 썩은 정객들의 부정부패상과 궁중의 비극적인 사건들만이 확대되어 긍정적으로 받아졌기 때문이다. 식민지 통치 아래 우리 국민들은 망국민(亡國民)의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보았고, 일인들은 정복자의 안경을 쓰고, 우리 역사를 보게 되었다. 색안경을 쓰면, 일체의 것이 안경의 유리빛으로 보이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도 늦지는 않다. 일인들이 써워준 옛날의 색안경을 주저 없이 벗어 던지고 아무 것도 가린 것이 없는 총명한 눈으로 역사의 참 모습을 똑바로 들여보아야 하겠다.

아시아 대륙이 큰 세력의 영향을 수명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이 된 소수민족인 우리 민족이 수천년 동안 그 거센 역사의 풍파 속에서 즐기치게 저항하면서 제 주권을 지키고 제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의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최근에 일본의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

인 「이즈미·세이이치」(泉靖一)교수는 한국 역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민족은 여러 차례 중국의 침공을 받았으나, 그 때마다 이를 잘 물리쳤다. 한국이 중국의 지배에 이렇게 줄기차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문명의 압력에 대항하여 정치적 독립은 물론이고 문화적 독립도 누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은 신라시대 이래로 남으로 일본의 만족과 북으로는 선진국인 중국의 문명과 정치적인 압력의 틈에 끼어 대단히 강한 저항정신을 키워 왔다」.

「한국의 요리는 우육(牛肉)이 중심이 된다. 그런데 만주족이나 한민족은 돈육(豚肉)이 중심이다. 우육을 중심으로 하는 곳은 멀리 떨어진 고대 인도인이 있고, 그 밖에는 고대 서아시아 지역과 유럽 등에 분포되어 있다. 한국이 우육 중심인 사실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의식주도, 종교도, 사회 조직도 얼핏 중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한발짝 들어서서 보면 중국과는 현저하게 다른 독자적인 문화이다. 특히 한국 문화는 구조적 특징의 저항의 문화이다」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냉철한 사안(史眼)으로 본

다면 일본인 학자들의 눈에도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억척스럽고 슬기로운 저항 정신이 두드러지게 감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 봉영(劉鳳榮)씨의 논문 「외구와 십승지지」(外寇와 十勝之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민족과의 투쟁의 연속이었던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씨의 논문이 정리한 이민족(異民族) 침구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족이 유사 이래로 다른 민족에게서 침해를 얼마나 당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대를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넷으로 나누고, 이것을 대륙 방면과 해양 방면으로 다시 구별하여 통계를 내어 보았다. 이에는 수십만 병력의 침구와 백명 안팎의 것을 모두 포함시켰다.」

「해양 방면의 침구는 거의 왜구였고, 대륙 방면의 침구에는 여진족의 것이 다수였지마는 이것이 모두 다른 민족의 침구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대륙에서 나라를 세운 부여나 발해들이 우리 민족이고, 이들이 또한 주위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공을 당한 일이 많으리라는 것도 짐작되는 것이지만, 자료의 미비로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위세조선 이전 2천년간의 일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 사적에 나타난

것만을 추리면 11회인데 그 전부가 대륙 방면의 침공이고, BC 57년의 신라 건국초부터 935년 신라가 고려에 통합될 때까지 992년간에 신라, 백제, 고구려 3국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공 받은 회수는 대륙에서 110회, 해양에서 33회로 모두 143회이다.]

「936년(고려 태조 19년)부터 1391년(공양왕 3년)까지 고려시대 456년 동안에 대륙에서 125회, 해양에서 292회로, 모두 417회이다. 이것은 평균해서 1년에 1회 가까운 침공을 당한 기록이 된다. 「근세조선인 1392년(이태조 원년)으로부터 1910년(융희 4년)까지 519년 동안에 대륙에서 192회, 해양에서 168회나 된다. 이것은 평균 1년반이 채 못되는 기간에 한번씩 외구의 침공이 있는 셈이다.」

이상으로 보아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침공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유의할 사실은 우리 주위에 강대한 세력이 새로 나타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를 침공했다는 사실이다.

대륙 방면에서는 진(秦)이 6국(六國)을 통일했을 때에 우리의 서북방 지역을 크게 침범했고, 한(漢)이 건국하자 위씨조선을 정복했고,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한 후에 양제(煬帝)는 거국적으로

로 고구려를 침공했고, 새로 일어난 신흥 세력인 당의 태종과 고종도 국력을 기울여 침공했으며, 다음으로 걸안, 몽고, 청의 침공을 비롯하여 최근엔 중공의 침공이 그 두드러진 것들이라 하겠다.

중국 왕조로서 우리를 침략하지 않은 것은 진(晉), 송(宋), 명(明)뿐인데, 진과 송은 국력이 미약했었고, 명은 외교에 의하여 미리 침공을 방비한 것이었다.

해양 방면에서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본을 통일하자 임진란 7년 전쟁을 일으켰고, 명치유신으로 새로운 세력이 자라나자 우리의 주권을 약탈하기에 이르렀다.

7세기에 수(隋)의 3차에 걸친 침공, 당(唐)의 전후 6차의 침공에서 그들은 모두 호되게 참패를 당하였고, 수제국은 그것으로 큰 타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당은 한반도를 고스란히 삼키려던 심산으로 신라를 도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삼국통일 후에 당군은 신라의 줄기찬 반격으로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쫓겨 나갔다.

우리가 동양의 역사를 살필 때에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아울러 우리가 인구 구성면에 있어서 매우 작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

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역량과 실력과 시련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 우리는 옛날 우리의 국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우리나라 근

세 300년간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근세 300년간의 인구 추이
단위 : 1,000

우리나라 근세 300년간의 인구 추이 단위 : 1,000명

연 도	조 사 인 구	계 산 인 구	연 도	조 사 인 구	계 산 인 구
1639	1,520	1,403	1750	7,330	7,215
1651	1,860	2,129	1759	6,970	7,242
1660	2,480	3,124	1771	7,020	7,257
1669	5,020	4,096	1780	7,230	7,271
1681	6,220	5,033	1896	8,024	9,180
1690	6,250	5,796	1907	12,930	11,602
1696	5,770	6,356	1915	15,597	15,616
1771	6,390	6,720	1925	19,020	20,044
1720	6,800	6,954	1935	22,208	23,254
1729	7,130	7,089	1944	25,900	24,813
1741	7,190	7,111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300여년전의 우리나라의 인구가 150만 정도였으니, 이러한 적은 인구의 세력으로 대륙의 크나 큰 세력과 맞서 줄기찬 저항을 해 온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개관한다면, 우리가 대륙에 일어나는 큰 세력의 주기적인 파동 속에서 오늘까지 굳세게

저항하여 온 요인은 결코 군사력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문화의 실력과 기술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동부 아시아의 민족 가운데 한 때 폭발하는 힘을 몰고 중국 본토의 쇠퇴기를 틈타서 대륙을 지배했던 것은 몽고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한민족의 거대한 인구와 월등한 문화 속에 융해되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오늘에는 그 종족들은 역사적 기록에만 남게 되었다.

먹은 자는 없어지고, 먹힌 자만이 남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들과 똑같은 운명에 빠지지 않은 것은 새옹지마(塞翁之馬)와 같은 행운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우리 민족을 바다쪽에서 괴롭혀 왔던 탐욕적인 상어같은 일본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일본은 건국 이후로 수천년 동안 제 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외적의 침구를 입은 일은 한번도 없었다. 몽고와 고려의 연합군이 두 차례나 일본을 정복하려고 접근했었으나, 번번히 풍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되돌아갔을 뿐이었다.

섬나라로서의 천혜적(天惠的)인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외환(外患)을 겪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신기스러울만큼 대조적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주권을 약탈 당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주권을 약탈 당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유럽의 여러 나라는 혈안이 되어 식민지 쟁탈 경쟁을 벌이던 침략의 시대였다. 따라서 동양에서 제대로 남아난 나라가 없

었다.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동양에서 가장 큰 세력인 청나라도 그 수도까지 점령당하였었으며, 유럽의 반식민지도 전락하게끔 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동양의 요지이므로 국경이 맞붙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밖의 열강들이 다 우리를 노리는 포악한 약탈의 이리떼들이었다.

지역적인 관계로 근대 문명에 일찍 눈뜨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제 자신을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취한 쇄국정책(鎖國政策)은 그 당시의 실정을 살핀다면 이해가 될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난국에 거국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불행한 정쟁(政爭)으로 제몸초차 가누지 못하였던 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약탈당한 것은 결코 일본 단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큰 세력의 남하를 방지하려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일본을 동양의 감시견(監視犬)으로 길러 두기 위한 정책에 의하여, 열강의 합의도 우리가 희생의 제물로 되었던 것이 실정이다.

영국은 인도를, 미국은 필리핀을, 프랑스는 인도지나와 그 밖의 식민지를, 일본이라는 감시견을 조종함으로써 러

시아의 남하를 막아서 안전하게 지키고
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동양의 식민지들이 일본의 광
란으로 어떻게 되었었는가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에게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던 당시
의 실정을 조상들의 무기력에만 돌리기
전에 세계와 동양의 정세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식민사에서 가장 짧은 기
간을 거쳐서 다시 독립하였으니, 나라
없는 백성의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세
계의 유례가 없이 혹독한 일제의 동화
정책(同化政策) 아래서 체험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우리 민족의 독
립정신과 민족의식은 크게 양양되었고,
더욱 강한 저항 정신이 길러졌던 것
이다.

역사에 대하여 무지(無知)한 사람들
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부패 정권의 쓰
레기통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
나라처럼 청백리(淸白吏)가 많았던 나
라가 드물다는 사실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제 나라
의 역사를 과소 평가하는 국민은 없다
고 신기스러워한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동양적인 겸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무지 때문이

며, 또는 일본 통치자들이 만들어 놓은
「위족사관」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다.

물론 한 차례 나라의 주권을 약탈 당
한 것이 너없는 역사적 수치가 아닐 수
없지마는 유럽의 어떤 강국도 정복을 당
해 보지 않은 나라는 없다.

어떤 나라의 역사도 예외없이 돌아가
는 흥망성쇠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
제점은 우리가 겪은 역사의 큰 수난, 그
것이 우리 나라의 참 활력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현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
는 점에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학자는 역사의 정확한 자료
와 기록만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
나라 5천년 동안에 살고 간 모든 사람
들의 일기를 다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
이 곧 정확한 역사는 될 수 없다.

결국 역사의 큰 줄기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역사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사관(史觀)없는 역사는 역
사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값진 「덴마아크」의 한
토막의 역사를 돌이켜 보기로 하자.

「스칸디나비아」 일대를 영토로 하고,
다시 영국을 지배하던 바다의 왕자 「덴
마아크」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던
시기에 급한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져 물

략하기 시작하였다.

1801년에 「파아커」제독과 유명한 「넬슨」제독이 이끄는 영국의 대함대가 「덴마아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포격하였는데, 이 때의 해전에서 「덴마아크」 함대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1807년에 영국 함대는 또다시 「코펜하겐」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덴마아크」 함대는 전멸하였다.

이 역사적 사실을 두 나라는 어떻게 다루었는가?

영국이 대영제국의 불패의 해군의 업적을 찬양한 것은 물론이며, 그것은 또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덴마아크」는 이 치절한 패전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덴마아크」의 위대한 애국자 「그룬트비히」는 1837년에 근세 50년사(近世 50年史)를 「덴마아크」 청년들에게 50여회에 걸쳐 강의하는 자리에서 포악한 영국 해군의 압도적인 위력에 대항하여 「덴마아크」의 해군과 친위병과 의용병들이 조국 「덴마아크」를 위하여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용감히 싸웠는가를 크게 역설하였다. 특히 사관인 「피타·윌모스」의 슬기롭고도 용감한 분전의 모습을 「덴마아크」 국민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그룬트비히」의 작품인 「용사 윌모스

의 노래」는 온 국민들에게 널리 애창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덴마아크」 국민의 용기의 연료가 된 국민가요 운동이 급속도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코펜하겐」의 해전은 「덴마아크」의 치절한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덴마아크」의 탁월한 용기를 발견한 값진 역사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을 제삼자인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덴마아크」 사람들을 엉터리이며, 기만자라고 볼 것인가, 또는 현명한 국민들로 볼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임진 7년 전쟁이나, 병자호란이나, 일제하의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깊이 반성할 일이다.

우리도 우리 발전을 위해서 「덴마아크」의 슬기를 배워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스라엘」의 고성(古城) 「마사다」는 유대인 수천 명이 로마에 최후까지 반기를 들고 항거하다가 전멸한 피에 젖은 고적(古蹟)이다.

이들때면 참패의 땅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고성은 성역화(聖域化)되어 유대인의 애국심과 용기의 거울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제는 죽은 고적이 아니라 영원히 유

대인들의 용기와 애국심에 기름을 부어 주는 숭고한 산 고적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우리도 우리 역사를 죽은 곤충표본 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생명의 역사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장쾌 무비한 기상과 신라와 백제의 눈부신 문화와, 고려의 대륙 북

구의 용지와 조선의 탐구와 창조의 정신은 모두 다 우리 조상들의 영원히 빛나는 값진 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재 발견한 우리 국사 속에서 우리들의 성실과 용기와 자부와 슬기와 저항 및 진취적 개척정신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영양을 풍부하게 찾아 섭취하여야 할 것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향토를 사랑할 줄 아는 향토애와 자기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생의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조국애로 무장된 자주적 인격을 터득하고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공헌할 줄 아는 인류애를 습득할 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우리 교육이 이상으로 하는 인간상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의 마음 속에 뜨거운 조국애와 열정이 식었을 때, 그러한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부러워하기 전에, 이 땅의 가난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와 윤리를 젊은 세대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힘차게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은 자조, 자립, 자주적인 인간을 형성하여 타성화했던 의타적 습성을 청산하는 데 온갖 교육적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항상 발전하는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고 개척과 창조와 건설의 원동력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한 교련 제28회 대의원 대회 및 교육 공로자 표창식 치사에서—

조선 무사 정신의

(1) 역사적 고찰



안 자 산

1. 무사도와 그 유래

조선의 무사도는 동기상부(同氣相扶)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자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고로 일반 생활과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여 온 것은 전혀 무사적 정신의 활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서양의 무사도는 영어의 「나이트」(Knight Chivalry), 프랑스어의 「슈발리에」(Chevalier), 독일어의 「라이터」(Reiter, Kavalier)라 일컫는 것으로서 그것도 역시 폭물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인 바, 서구 민족 정신의 결정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풍토와 민족의 성정(性情)과

사회 조직 등은 그들과 우리를 사이에 약간 다른 점이 있으므로 그 유래와 발달의 형식이 서로 다르다.

서양의 무사도는 독일 민족의 무원적(武頑的) 풍속이 신성한 기독교회에 점차 이상화됨에서 나온 것이니, 그 특징으로 말하면 기독교 군제(軍制)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안점을 「네가 신을 위하여 강용(強勇)하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눌러라. 노하는 중에도 물정(物情)을 망각치 말라. 이것이 실로 무사도의 진수이니라」고 한 것은 그들 무사도의 주지(主旨)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그들의 기독교는 박애를 주장하여 비전론(非戰論)을 내세웠으나, 그러한 주의를 실제 세태에는 적용시킬 수가

없어, 다시 전쟁은 지당한 신벌(神罰) 또는 유익한 상벌(賞罰)이라 하여 드디어는 진리와 도리의 승리를 목적으로 전쟁하는 자를 환영하게 되었다.

조선 무사의 최초의 발생은 어떤 은혜를 갚는다든지 또는 어떤 종교의 방편으로 출현된 것이 아니고, 혈족의 근본 성격과 공동생활에 충의물 다한 정치주의에서 그 도리가 기초로 된 것이다. 불교적 감화나 또는 그 영향으로써 무사도의 발전을 유력하게 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발전 도중의 일이고, 무사도 발생의 근본은 아니다.

고서(古書)를 살펴보면 고대 무사의 모습과 성정(性情)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성품이 강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굴하는 성품이 있고, 모검(矛劍)같은 무기를 항상 몸에 지녔으니, 이것이 무사의 본색이었던 것이다.

보전대 최초의 원시 생활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수초(水草)를 좇아 다니면서 유렵생활을 하는 동시에 맹수를 잡고, 자연과 싸우는 습관으로부터 그 성질이 양성되었다. 그러한 표류생활이 끝나고 점차 농경생활로 옮겨 갈 때부터는 집합적 정주의 생활을 시작하는 동시에 가족, 부락 또는 국가적 생활이 출현되었다.

이 때의 국가 조직은 어떤 권위에 복종하거나 다른 나라와 같이 어떤 은혜로서의 봉건제도로 된 것이 아니라 부락의

자치적 관념으로써 된 것이니, 고사(古史)에 의하면 옥저(沃沮)에 13소국이 있었는데, 숙신·예맥은 고구려에 병합되고 마한(馬韓)은 54국, 진·변한(辰·弁韓)은 각 12국을 거느렸다고 하니, 이것은 곧 부락생활이 습관상 및 환경상의 여러 가지 변화와 영향을 받아 발생한 자치적 자각에 의해 조직된 국가 생활인 것이다. 이 자연적인 열립(列立) 국가의 조직은 주종의 관계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중국 또는 서양의 제도와 같이 어떤 은혜로서의 봉건제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자국을 옹호하는 무사의 사명은 보수적 권위로 된 활동이 아니라 순진히 자기가 획득한 고정성으로 내려오는 본성활동의 충의적 발작으로 되어 나온 것이다. 그 본성의 헌신적 충의심이 일반 행위로 나타나 사회 윤리를 인성(因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덕목(德目)은 다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기(史記)에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①은 무용(武勇)이니, 이는 천성으로서 자연과 각투하던 습성에 의하여 공고해진 것이다. 이는 그들 서양 무사도의 조포(粗暴)로 흐르는 무용과는 다르다.

주밀한 사려를 더하여 그 권위를 보지함에 있는 것이니, 그 용기가 내적 사려를 존탁하여 아직 발작하기 전에는 기색

이 순량하고, 정조(情調)가 온유하여 얼른 보면 치인(痴人)으로 알려지게 되므로, 혹은 군자 또 혹은 선인이란 별명을 듣게 된 것이다.

②는 예양(禮讓)이니 일조(一朝)에 용기를 발할 때는 뇌정을 질타하다가도 평상 사고에서는 공손하고, 겸양하여 불상법이니, 불상책니 하는 의표로서 호양이라는 명예까지도 얻게 된 것이다, 대개 사회의 질서는 예의가 없으면 파괴되고 만다. 이미 부락 생활에서 국가 생활로 진보된 과정에서는 협동심과 복종심이 수련되어 그 결정이 예의를 이루게 되니 그 예의가 개인의 내심에 있어서는 인격을 고상하게 하고 수양에 자취하는 덕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의가 없는 사람을 공덕심이 없는 것으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의심이 국가 생활에 대하여는 단체적 협동의 기둥이 된다. 또한 그 예의가 사회로 표현할 때는 사람의 감각을 선찰(善察)함에 온정으로서 자비, 겸양 또는 평화 환경(懷情)의 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 서양 무사의 정치(精緻)하지 못하고 섬교(纖巧)하지 못함에 비한다면, 그 풍정이 크게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다.

③은 충의이니 위의 사기에 타인의 곤란을 보면 죽음을 던져서 구원한다 함은 곧 충의를 가리킴이다. 서양 무사의 충

의는 기독교를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주의에 순신(殉身)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무사의 충의는 도덕의 본원으로서 정의대도를 계율하며, 약자를 돕고, 약자를 경계하니 이 충의를 발할 때에는 어떠한 곤란, 어떠한 재난이라도 인내하며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는 것으로 이 충의는 실로 조선 윤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고대 무사도에 이상의 세 가지의 덕이 있다고 한 것은 옛 기록에 적혀 전래한 문 의(文意)에 의하여 학술적으로 이를 판단할지라도 가히 알 수 있으며 고대의 소방(小邦)이 조직 생활을 하였던 실례에 의거하여도 그 때의 도덕에 이상의 삼강(三綱)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으니, 자고로 조선은 예의지국이란 말이 있었음도 그러한 근거 때문일 것이다.

2. 무사의 발전

상고(上古) 무사의 강용, 예의, 충의 등 세 가지 덕성이 실생활의 경험과 자각적인 교훈으로서 스스로 발전해 나갈 때 그 덕성이 점차 자라나가는 계제(階梯)에 일치 협동의 도덕적 활동이 나타나 대단결의 신생활 조직을 요구하는 공작이 발로되었다. 그런데 그 대동 단결의 공작은 소국가에 있는 무사가 각기 실생활의 경우인 지리적 감명으로 쫓아나와

먼저 부분적인 단합을 기대함에 있었다.

말하자면 북방의 지세는 천박하고, 기후도 한랭함으로, 그곳에 사는 무사는 근면과 경쟁심이 많음으로써 예양(禮讓)의 심덕(心德)보다 강용의 성격이 강하여 무엇이든지 무단적으로 활동하기를 일삼았다. 그로 인하여 고주몽(高朱蒙)을 대표로 한 무사 일단이 서남으로 내려와서 인근의 여러 소국을 정복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고, 그의 지파인 온조단(溫祚團)은 남으로 내려와 여러 곳을 정복하여 백제를 건국하였다.

동남방의 지세는 다른 곳과는 달라서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도 알맞아 여기에서 성장한 무사는 강용보다 예양과 충의의 심덕이 강하여 족장에게 복종하는 심성(心性)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개개의 족장은 대지존(大至尊)을 봉대(奉戴)하는 작용이 부(富)함에 이르니, 여섯 부의 촌장이 회의를 열어 박혁거세(朴赫居世)를 받들어 세우고 신라를 건국하였으며, 그 남방의 아홉 족장은 또한 수로왕(首露王)을 받들어 가야국(伽倻國)을 건립하였다.

그렇듯 신라, 백제, 고구려 및 가야국이 형성된 것은 상고 무사의 정신 활동이 자라나온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상고 열국이 삼국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자의 부분적인 공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국민의 사

상을 통일 지휘하던 정신이 있었으니 그 정신은 천신과 조신(祖先)을 숭봉하는 종교적 정조이며, 그러한 종교적 정조는 고유사상으로서 무사도의 근저가 된 것이다. 동시에 전혈족(全血族)의^{*)} 사상을 지배한 것으로, 말하자면 남북 지방을 막론하고 천신을 숭봉한 것은 정(情)생활의 공통적인 풍습으로 되어 전혈족 또는 무사의 정신을 통일한 것이다.

그 제천(祭天)의 사무와 의식을 주관한자는 천군(天君) 또는 다른 별명으로 서 국왕 이외에 별립(別立)하였다. 그러나 그의 직장(職掌)은 정치 행위와 인사 범절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서의 고문 또는 감독이 되었으니, 이들을 후세에 와서 무(巫) 또는 화랑(花郎)이라고 했다.

지봉유설(芝峯類說)과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남자 무인(巫人)을 「화랑」으로 해석한 바 화랑과 남무(男巫)는 동물이 어(同物異語)로서 가악(歌樂)으로써 제신(祭神)하는 자를 이르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무(巫)를 천대시하고 있으나, 고대에는 무(巫)를 군왕과 같은 위치로 존제하였다. 그런데 그 무(巫), 곧 화랑은 아주 많은 무사 또는 무사의 일군(一群)으로 조직된 것이다.

효경구명결(孝經句命決)에 동방 악인(樂人)은 지모무양생(持矛舞養生)이라 하였고, 진양악서(陳陽樂書)에 있는 동

방악인의 도본(圖本)은 역시 모(矛)를 들고 있는 바 그 때 제식(祭式)의 일단인 음악대가 모두 무장을 갖추고 나선 무사임이 판명되니 오늘날까지 유행되는 무녀(巫女)들이 군복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가무(歌舞)로서 제신(祭神)하는 풍채도 그의 유풍(遺風)이다.

그 무(巫), 곧 화랑의 무사적 사명은 본래부터 충의의 성격이 있어 권선징악하고, 부약억강(扶弱抑強)하는 활동이 있으니, 천신에 제사하는 것도 실사회의 행복을 구하여 부족을 보익(補益)함이 그의 근본 사상이다. 그러므로 각지방에 있는 무(巫)들은 그 지방의 사상과 실생활상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북방의 정치는 무(武)를 전상(專尙)하여 대신이 채임(替代)할지라도 신구대신이 격투를 행하여 우승자가 피임(被任)하는 일까지 있어서, 그 지방의 약점은 문덕(文德)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래서 북방 계통의 무(巫)는 그 부족함이 문덕을 발양하기로 나섰다. 그러나 남방 즉 신라의 정치는 무(武)보다 문덕이 우세하여 오히려 유약의 편이 보이므로 이 지방의 무(巫)들은 그를 보익하기 위하여 그 본성인 무적(武的) 기세를 휘날리기로 하고 나서니 이것이 남방 무사의 발전된 체제였다.

그럼으로써 고구려 및 백제의 무(巫)는 문적(文的)으로 풀리고, 그 무사적

사명은 분리하여 전문적인 군대적으로 나갔다.

그러므로 그 두 나라에는 산무사(散武士)여서 특별한 무사단체의 현형(現形)됨은 없었다. 신라의 무(武)는 그 본래의 무사적 사명을 그대로 전상(專尙)하여 군대 이외에 별립하여서 화랑이라는 명칭으로 특별한 단체를 조직하고 나왔다. 그런데 화랑 무사의 발양은 진흥왕(眞興王) 때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제24대 진흥왕은 절대 염주로서 사방을 통일코자 하는 정략을 베풀어 대활약을 시도할 때, 무(巫) 곧 화랑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니 사다함(斯多舍)이 단장이 되고 그 부하에 천명의 무사가 집결하여 진천동지의 대활약을 연출한 바 그로부터 남정북벌의 대전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20년간 정쟁을 계속하니 우선 가야를 쳐서 일국에 합병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수십군을 빼앗아 아연히 4배 이상의 지역을 확대하였다.

그런데 사다함이 화랑으로 나서기는 진흥왕 10년경의 일인데, 당시 국인(國人)이 사다함을 반들어 화랑으로 섬기기를 청하여 된 것이니 이 때에 화랑을 삼았다고 한 말로 보아서는 화랑의 명칭이 그때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알려지는 바, 그것이 벌써 상고에 있던 제사장의 무(巫)로서 계속하여 내려온 것이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신라 초기부터 진흥

왕 10년까지는 무릇 630년간인데 그러한 장시간에 있어서는 화랑사(花郎史)가 전함이 없으므로 그동안은 어떤 과정을 지내왔는지 알 수 없으나, 국운의 전진이 지지함을 보아서 무사도의 발전도 서서히 점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타국의 침범을 받아 여러번 곤경을 당했으나, 은인자중하여 최후의 기회를 기다리고 인근 소국을 대단결로 병합함에도 여·제 두 나라보다는 훨씬 뒤떨어졌었다. 그리다가 진흥왕 때에 와서 비로소 경장(更張)할 때 무사도도 그의 경로를 짚하여 은연중에 다년간의 세련을 받아 가지고 국운과 같이 발흥하여진 것이다.

신라의 무사도가 진흥왕 때를 기점으로 백년간에 크게 발전하였다.

그들의 제1차 활약으로 인하여 주위를 정벌 합병하여 국력이 다른 두 나라와 동등으로 이루어 삼국 병립을 완성하였고, 제2차 활약으로 인하여는 장렬한 거사로서 삼국을 통일함에 이르니 화랑 무사의 발달은 이 삼국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그 정점에 달하였다.

그런데 무사도가 진흥왕 때에 이르러 어찌하여 그렇게 쾌속도로 진흥이 되었느냐 하면 이 원인은 세 가지가 있었다.

그 첫째는 국왕의 장려로서 진흥왕 10년경에 사다함도(斯多含徒)의 종군에 의하여 가야국을 정복한 후 왕은 그 효과

를 참작하여 37년부터는 화랑을 특선하여 수백명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각지를 순회하면서 인재들을 박탈하여 관리를 통용케 하고 동시에 그 단원을 증가케 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무사는 돌연의 발흥을 나타냈다.

그 둘째는 단장을 귀족으로 한 것이나, 신라의 사회제도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재등용에는 별족을 표준하여 뛰어난 인물이 있어도 출세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화랑도가 일어나면서부터는 왕손과 귀족 등이 그의 단장이 되어 직접 인재를 취택하여 누구든지 도의가 있는 자격으로서 그의 단원이 되고 보면 사로(仕路)에 출세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러므로 대재결기(大材傑器)는 많이 화랑의 도(徒)가 된 것이다.

그 세째는 무사가 문덕을 수양함이다. 자래로 무사는 예(禮)의 덕이 있었거나와 이 배의 화랑도는 더욱 인도(仁道)를 닦아 강유(剛柔)의 심술(心術)을 가지며, 그러므로 단장은 문학의 공(工)이 있어 그로서 그 도(徒)를 지도하였다.

김 유신(金庾信), 김 인문(金仁問)같은 인물이 다 유명한 문예가로서 시문과 경술에 능함으로, 따라서 단장을 혹 풍월주(風月主)라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무사는 모두 문무 겸전의 성격이 있어 무덕(武德)의 근본을 잘 유지하고, 또한 경천위지(經天緯地)의 포부를 발휘하여

모범의 행동을 취하니, 고로 백성은 그를 숭배하여 추종함이 많았다.

3. 무사의 단체

진흥왕 때부터 문부왕(文武王)까지 곧 사다함이 출현한 후로부터 약 백년 동안의 1세기는 전혀 무사의 세계가 되었다. 즉 당시의 삼국 전쟁은 국군의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삼국 무사의 격투로 볼 것이다.

그런데 여·제 두 나라의 무사는 단체가 없이 밀우(密友), 온달(溫達), 계백(階伯) 등과 같이 개인적 의협이 풍기로 되고 신라의 무사는 전입한 단체를 만들어 공동책임으로써 결사의 활동을 발휘하였다. 그럼으로써 여·제 두 나라의 무사는 화랑 무사의 단체력을 당하지 못하여 필경 그 두 나라는 신라에게 병합 통일되고 말았다.

화랑 무사의 단체 조직은 고대의 계봉으로 내려오다가 진흥왕 때에 이르러 크게 공고하여진 것이다. 본래 화랑의 선정은 왕의 독재로도 했고, 민망(民望)에 의하여 국민의 추천으로 하기도 했으니 후자는 사다함이 시인(時人)의 청봉(請奉)으로 인하여 화랑으로 된 예가 그것이요, 전자는 진흥왕 37년에 설원랑(薛原郎)을 받아들여 화랑을 삼은 것이 그 예다.

그런데 화랑의 자적은 15~6세의 소년 남자로서 행의(行誼)가 단정하고, 지기

(志氣)가 강용하며, 그 용모는 옥골선풍(玉骨仙風)의 신체미가 있는 자로서 특정한 것일 때 그의 의복도 수려하게 하여 일종의 배우처럼 내세운 것과 같이 되니, 이는 정히 서양 무사의 화공자(花公子)라는 것(Varlet, Page)과 비슷하다.

그 화공자는 15세기에 자기집을 떠나 타국의 무사의 집에서 전습할 때, 그 체자(體姿)를 미려하게 화장하니 말하자면 아름다운 미복에 화려한 적색 의복을 입고, 장미화를 꽃으며, 입에는 미소를 머금어 여색미(女色美)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주군(主君)의 좌우에 숙위(宿衛)하여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수종자가 된다. 정식 무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서는 용감하지만, 평시에는 경박한 성질이 있고 악희(惡戲)를 잘하며 또한 호색도 하니 그의 결점에 대한 소설적 일화가 많다.

조선의 화랑 무사도 그 서양의 화공자와 같이 화복미장(華服美裝)의 묘소년(妙少年)이나 그의 사루는 관이하게 달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관리를 시취(試取)키 위하여 그 문도(門徒) 즉 단원을 데리고 지방에 순회할 때 도의로서 연설하고, 가악으로써 유흥을 베풀기도 하여 관광자를 초집(招集)하여 그 중에서 인격자를 선발하여서 자기 단원을 만드고, 동시에 관리에 등용케 한 것이다.

그러나 단원이 된 이상에는 환욕(宦

懲)이나 공명을 취하는 사상이 없이 오직 무사의 도덕적 정신을 수양하고 또 발휘함에 있었다.

사다함(斯多含)이 큰 공을 세우자 왕이 그 공을 크게 치하하고, 노비 300명을 하사하였더니, 사다함이 그들 모두 방환(放還)하여 자유를 주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며 또 왕이 논밭을 하사하니 그것도 받지 아니하고, 불모지(不毛之地) 일대를 청렸으니, 무사는 그렇듯 청렴결백하였으며 조금도 사치나 안락에는 눈뜨지 아니하였다.

물계자(勿稽子)는 문벌이 미미한 자라 큰 공을 세우고도 후대받지 못했다.

그 후에도 큰 공이 있으나 소독이 없었지만, 그는 소독이 없음을 원통하게 여기기는 커녕 도리어 「신자(臣子)가 되어서는 위난할 때에 치명망신(致命忘身)이 가능하거늘 내가 수차 위난을 당했으나, 치명망신을 못했으니 장차 무슨 민목으로 조시(朝市)에 출입하라」하고 도리어 산중에 은거하여 다시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렇듯 무사는 청렴무욕하고, 오직 국사에 헌신할 뿐이니 이것이 곧 무사의 원기였다.

화랑 무사의 지개(志概)가 그렇듯 건강함으로써 그의 단체도 매우 공고하여 만인일신으로 맺어졌다. 그런데 그 단체는 일문(一門)에 한함이 아니라 일대(一

代)에 수문(數門)이 있어 일시에 여러 명이 병립하며 그 단원 수는 제한이 없이,

사다함(斯多含).....1천인

남 모(南毛).....3백인

김만랑(欽曼郎).....1천37인

효종랑(孝宗郎).....수천인

수백인 또는 수천인까지도 되고, 그 단체 기관에 있어서는 주장자(主長者)가 있으니, 이를 화주(花主) 또는 국선(國仙)이라고도 하고 그 단원은 선랑(仙郎) 또는 낭도(郎徒)라고도 일컬었다. 그러나 그 기관 내규는 사기(史記)에 전하지 아니하여 상언하기 불능하거니와 그 단장인 화주는 전후 2백여인이 된다고 한다.

그런즉 그 단장이 2백인이 될 때에는 그 단원은 1단에 5백인씩만 계산하여도 무려 1만인이 될 것이다.

그 십만인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 장렬한 공업을 세움에 헌신한다면 무슨 일에 어려움이 있으랴.

효종랑(孝宗郎)이 어떤 효자를 보고 상을 줌에 그 단원 수천인이 일제히 속(粟) 1석씩을 주렴하여 주었다. 그런功德심과 단합심을 발휘함에는 천지를 번복하는 것도 어렵지 아니한 능력이 있었으니, 이 화랑단의 무사는 실로 동양사의 특색이라 할 것이다.



특
집

필요한 것이 다 있을 줄

신뢰받는 군인이 되자

—충무공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
종
승

△보라매회 회장△

최근 수년동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소의 냉전이 화해 「무드」로 접어들었고, 서로 적대시하던 미국과 중공이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우리 자신도 북괴와의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 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의 야욕만은 30년을 두고 끈질기게 변하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대통령 각하 저격사건과 휴전선 「터널」사건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평화를 얘기하며, 통일을 논의할 수 있은까 하고 그들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끈질긴 북괴의 위협을 저지하고 국민총화에 의한 강력한 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10월유신이 단행되었고, 또 그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부도한 무력 적화통일의 헛된 꿈을 버리게 하는 가장 첩경인 까닭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개체가 군대이며, 군대의 존재는 바로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국민과 더불어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군인이 지녀야 하는 기본 정신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군인이 되어 필승공군의 일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군인의 길에 명시된 군인의 기본적인 정신을 살펴보면 첫째가 가치관의 확립이다. 군인의 가치관이란 조국의 안보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조국에 바치는데 있다. 충무공이 「이제 왜적을 물리친다면 언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신 마지막 말씀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인 노랑 싸움에서 새벽에 승선하기에 앞서 비장한 각오를 하신 것이다.

왜적들이 조선땅에 쳐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물러갈 때에는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충무공이 이 전투에서 적탄에 맞아 운명하면서도 부하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킨 것은 나라를 위하여 비변없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다는 신념, 즉 애국을 위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산증거이기도 하거니와 이에 따라 충무공은 후세에도 영원히 성웅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확립이 필승의 신념으로 이어지는 매체가 되며, 군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필승의 신념인데, 이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수많은 청년 장병에게 끊임없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전투에서도 지간에 싸움에는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과학적인 신무기의 개발과 활용, 인적, 물적 우위의 전지 및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싸워서 꼭 이기겠다는 신념을 가질 때, 그리고 장병 각자의 이 필승의 신념이 총화단결을 이룰 때는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임진란 때 충무공이 백의종군 후에 불과 30여척의 깨어진 병선을 이끌고, 300여척의 왜군들과 울돌목(명량)에서 전투했을 때에도 인적, 물적 모든 면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으나, 꼭 적을 이기고야 말겠다는 강한 적개심과 필승의 신념이 충천하였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세째로 숭선수법의 정신과 책임완수의 정신이다. 즉 장병 각자는 자기가 맡은 바 임무수행에 숭선수법하여, 명령의 존엄성과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할 때 군기는 확립되고, 막강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무공이 부하로부터 보다 큰 신망과 존경을 받은 것도 항상 숭선수법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강한 책임완수의 신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왜란중 자신의 아들이 왜군에게 전사했을 때에도 개인적인 흥분이나 슬픔을 나타내지는 않았고, 지휘관으로서의 홀어진 몸가짐은 갖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의 모친이 진영 가까이 와 있었지만, 전비태세의 점검과 즉각응징의 대공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결코 병영을 떠나지 않고,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고심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는 군인으로서 훌륭한 일생을 마친 산 증인이기도 한 것이다.

네째로 실천과 같은 강한 훈련으로 끊임없는 전기를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추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대전이 아무리 국민 총력전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최 선봉에 서서 적을 막아야 하는 것은 군인이다.

군인이 평소에 훈련을 소홀히하여 주어진 방위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안보체제 강화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군인은 항상 전투훈련에 열중하고, 끊임없는 전기연마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군·민간의 유대 강

화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군인의 길에서는 존경과 신애로서 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즉 군인에게서의 존경과 신애란 종적 횡적인 유대강화로써 단결을 굳히고, 공사의 구별을 함으로써 서로의 예를 지키라는 것이다. 이는 군인이 군을 떠나서 가정에서의 생활을 할 때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게 될 때 군·민간의 유대는 견고해지고, 총화체제는 굳어지는 것이다.

개인을 확대한 것이 가정이며, 가정을 확대한 것이 사회다. 사회와 병행해서 군대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뭉쳐진 사회며, 커다란 군대가정임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군대에서 상호간 존경과 신뢰를 갖고, 상호간의 예의를 갖는다는 것은 군과 사회를 연결하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검소한 생활 기풍을 말하고 있다. 군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과 정성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한다 함은 국민의 피와 땀과 정성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국민과의 유대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모든 군용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 것이고, 또 부모형제들의 땀과

정성에 의해서 이룩된 것임을 알 때에
어찌 사치와 낭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충무공은 왜란의 그 어려운 시점에서
도 군량을 아껴서 의주로 가 있는 임금
에게 식량을 보낸 일이 있다.

이 얼마나 장하고, 국민의 정성과 노
고를 귀하게 받아들인 선행인가? 모든
군인은 물욕과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
리고 오직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임무 수행과 책임완수에 몰두할 때 국
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강한 군
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수 있을 것
이라 믿는다.

끝으로 군인은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자유민을 위한 군대로서, 국민의 자제
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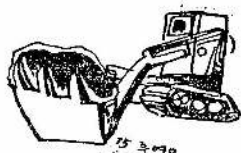
즉 군인은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거
부하고, 오직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며, 자유민에 대한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군
대는 국민의 자제로서 형성되고, 이 과
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국민에게 신뢰받는다 함은 자식
이 부모에게 신뢰를 받는 것과 같은 것
이며, 부하가 상관에게 존경하고, 신에
받는다 함은 부모 형제지간의 현육의
정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현금 어려운 시국에 더군다나
북괴의 끊임없는 침략 야욕에 대처하고

있다.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안보체제
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군·관·
민의 총화체제가 긴요한 때이다. 특히
우리 군이 국민과 더불어 유대를 강화
하고 신뢰받아야 함은 현대전의 성격이
군과 군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
의 대결이며, 단순한 무력적인 대결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외교
등 갖가지 분야를 포함한 총력적인 대
결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의 생존과 존망이 결정되는 군사력이며
이 군사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군인일진대, 어찌 군이 국민의 강
력한 지지와 신뢰를 받지 않고 국방임
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특히 공군은 현대전의 특성인 속전속
결의 기수가 되며,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
서 공군은 필승의 공군이 되기 위하여
유신정병으로 총화단결 체제를 갖추고
즉각응징의 대적 경계태세를 강화하여
야 하며, 군·민간의 유대 강화에 보다
진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
적인 군이 되어 필승공군으로서의 긍지
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정진해야 하겠다.



군인과 책임완수

마
욱

△전우신문 편집실장▽

특
집

필승공군이
나아갈
길

◇ 필승의 공군이 되기 위하여 맡은 책임을 다하고 희생과 봉사, 협동의 새마음 정신을 생활화하자. ◇

사람이 사는 곳에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는 곳에 조직이 있고 조직된 집단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조직에 망라된 구성원은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군대에 전대·중대·대대·비행단식으로 계서(階序)가 있듯이 사회에는 도·시·군·면·리의 행정단위로 국가의 목표를 소화, 유지, 발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념을 육·해·공군으로 구분하며 또 그것을 군의 계서에 따라 분할 책임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지상 목표 중 국토방위와 국민의 재산보호라는 대명령을 군이 맡고 있다고 하면 그 중 하늘을 지키는 것이 곧 공군의 책임인 것이다. 그 책임을 공군 장병은 자기 소속된 분야에서 분할하여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장병 각자의 책임완수는 곧

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은 국가의 지상목표를 충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노동자는 생산공장에서, 농민은 농도에서 그리고 사부원은 행정면에서 각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은 국토방위의 대임을 60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애국의 길인 것이다.

나 하나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개인은 물론 집단을 위해서도 무척 위험한 생각이다.

열 사람이 합해야 하나가 될 힘을 아홉이나 여덟사람이 합친다 해서 아니될 것은 아니나 힘의 균배에 있어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수명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책임과 임무는 각자의 수행에서 집단의 힘을 길러 뭉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서 군에서는 장교, 즉 지휘자가 할 책임이 있고 사병이 할 임무가 다르다.

그럼 여기서 우선 장교, 즉 지휘자가 할 책임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다루어 보기로 하자.

장교가 지녀야 할 책임

장교도 인간이다. 그러나 지휘관으로서의 장교는 인간으로서 구비해야 할 모든 바탕 위에 적어도 부하, 즉 사병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들의 요구에 호응할 수 있는 감정을 지니고 조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장교는 박력과 지구력 그리고 결단력과 설득력(說得力)이 있어야 한다.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고 숭선수범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항상 부하의 신상을 파악하고 애로를 타개해 주는 데서 정신적인 유대를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부하들은 그 지휘자를 따르게 마련이요, 나아가서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생사를 같이 할 각오가 정립되어 가는 것이다.

먼저도 말한 바 있지만 중대 단위로 본다면 휘하의 각 편대장은 중대장의 책임을 나누어 실천하는 차원적인 지휘관으로서의 장교인 것이다.

때문에 편대장은 중대장의 책임을 나누어 받는 입장에서 부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하급 부대의 지휘관일수록 중심 지도자가 아니고 차원적인 지휘관이란 관념만으로 항상 상급 지휘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대운영의 책임은 크면 클수록 그 책임이 무거운 것이고 적으면 적은 것만큼 책임이 덜한 것이다.

그래서 편대장에게는 편대장이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중대장은 중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각 지휘관은 차원적이기에 앞서 중심적 「리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교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 중하고 또 면할 수 없다.

군의 구심체(求心體)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상급자로부터 표창이나 포상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할 힐책 또한 면할 길 없다.

그러한 경우 그 책임이 부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 즉 장교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휘관은 「리더십」에 관

해서 이렇게 말했다.

『특정한 인격의 소유자가 공동의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의지나 감정 그리고 통찰력(洞察力) 등으로 개인을 이끌고 다스리는 특성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지휘관 즉 장교는 자발적으로 압력 없이 자진해서 하는 생활 기풍을 가짐으로써 사병들의 의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훌륭한 장교 밑에서 병영생활을 해온 사병이 모든 일에 자진 솔선하여 부대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병영을 명랑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전력을 증강하는 길인 것이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일에 자진하여 수범한다는 것은 병영의 화목단결을 도모하게 되고 또 그것은 전진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병영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장교의 책임이요 임무이기도 하다.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 하게끔 병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곧 장교의 첫째가는 책임이다.

이를 위해 장교는 항상 부하를 돌봐야 하고 부대 주변을 보살핀다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지휘관

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장교의 노력에는 부하들도 따르게 마련이다.

노력 없는 곳에 책임이나 임무가 완수될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교의 노력에 사병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그것이 곧 병영의 명랑화란 기초인 것이다.

우선 내무생활에서

병영의 기본은 내무생활에 있다.

그것은 사회면 직장 나름대로 그에게 지워진 임무와 책임이 있게 마련이다.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움직여만 한다는 것이 인간의 생활이다.

군대라는 특수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장병 역시 계급과 직분에 따라 맡은 임무가 다르다.

조종사도 있을 것이요, 정비사도 있을 것이요 또,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보급요원도, 행정요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분장(分掌)한 업무가 완수될 때 그 부대, 나아가서는 공군의 책임을 완수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 개인은 공군이라는 큰 기계의 작은 부속에 지나지 않으나 그 부속 하나로 말미암은 사고는 어떻게

보면 그 부대, 크게는 공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 책임이란 두 글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내무생활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동료전우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자.

이미 분장된 업무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은 더 노력해야 하고 과중하여 부리가 가게 된다.

우리가 간다는 것은 우선 전우애의 상실이요, 임무의 불이행은 상관 즉 국가에 대한 무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복귀를 제압할 수 있는 공군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의 자기 책임 불이행으로 그 전력에 악화를 가져왔다면 이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배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때문에 군대는 그 어느 사회계층보다 책임을 중시하고 그 완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군인은 완성한 책임관념과 실천수법을 으뜸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책임감을 생활화 하는 것이 곧 내무생활이다.

병영생활의 일상생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완수하는 습성을 곧 조국에 대

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다.

청소하든, 무기를 수입하든, 행정사무를 처리하든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미룸없이 수행한다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생각해야 하겠다.

그래서 옛 철인(哲人)들도 『책임을 통감 못하는 자에게는 말도 주지 말라』라고 했다.

아내를 부양하면 아내를 굶기지 않겠다는 의지와 절의가 없이는 아예 장가도 가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등병이나 일등병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분대장이 되고 중·상사가 돼보면 부하 통솔과 그들을 편하고 의욕있게 군 복무를 마치게 한다는 것이 하사관으로서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한 책임을 각자가 느끼고 수행할 때 그 내부생활은 명랑해지고 군기는 스스로 확립되어 맡겨진 책임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각자에게 지워진 책임을 다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지휘관이요, 또 상급자인 것이다.

화목단결·자조·협조의 분위기를 조성이 곧 책임을 완수케 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기초를 내부생활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일찍부터 내부반의

가족화 운동으로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누구를 위함도 아닌 오직 자위(自衛)를 위한 우리의 생활태도인 것이다.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것이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자기의 책임을 깨닫는 일이 된다.

임무수행의 기초

책임을 무엇이나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한 마디로 해서 스스로 올바르게 해 나간다는 뜻이다.

정신과 행동의 양면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어 나가자면 그 책임을 수행하여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최소한도로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현들의 통론이다.

그 요건이란 바로 상식과 판단의 능력이다.

첫째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갖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상식이란 읽고 듣고 보고 하는데서 넓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읽고

보고 듣고 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벌어지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관련된 사실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는데 따라 그 상식의 질은 변화해 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전문의 범위가 넓고 이해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식의 질은 더욱 높아져 가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이 자기 직무에 관련된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에 규라든가 복무규율 및 기타 근무규정들을 숙지 이해하고 또한 날로 발생하는 관계제사실을 분석 검토하여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상식의 넓이와 질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것은 곧 책임수행 능력의 소지를 마련하는 첫째 요건이 된다고 하겠다.

둘째 판단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가능하며 무엇이 불가능한가를 식별하는 능력인 동시에 올바르게 생각하는 여러가지 문제해결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최상의 해결책인가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약하거나 없을 때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쑤이며 또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의 규약이나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자기 소속집단의 방침에 대해서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훌륭한 판단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식을 현실에 적용시켜보기도 하고 또한 직접경험 내지 간접경험 요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예상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등은 모두가 종합되어 하나의 지적(知的)인 판단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자질 구분은 자기의 임무에 관련된 상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기의 임무에 관계되어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관념을 제고시키고 책임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상식과 판단 능력의 제고 방법인 것이다.

상식을 넓히고 판단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타인의 조력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근간이 되어야 하겠다.

군의 정신교육이나 정훈교육이 곧 합

리적인 의식개발과 보다 고차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같은 소이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가 자신과 장차 예상되는 사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갖는 그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책임관념과 책임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누구나 자기의 소임과 직분을 명석히 이해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경쾌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데 여기서 진일보하여 상위 직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상식과 판단능력을 갖추었을 때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시제만경의 확대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지(大地)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바라보이는 시제(視界)는 극히 협소하지만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비행기에서는 그 바라보이는 시제가 훨씬 넓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책임수행 능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책임관념과 책임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비유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비록 말단부대의 일개 병사지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

하여 내 스스로의 꾸준한 노력으로 임무에 관한 상식을 넓히고 또한 사물에 대한 판단력을 높인다면 현재보다 더 무거운 책임도 감당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일지 모르나 하면 자기 자신의 향상 발전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중에서 자기 자신의 발전 향상처럼 더 기쁜 일이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떠한 위치에서 무슨 책임을 맡고 있던간에 왕성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곧 모든 임무수행의 기초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렇게 우리가 맡은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부터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오직 군인은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생사를 초월해 가며 주어진 책임 앞에 신명을 마칠 수 있는 각오와 결의를 확보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고 패잔병(敗殘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책임 문제를 추구하게 되며 또한 그 책임문제는 병사 각 개인

의 정신상태에 결부시켜 해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책임은 군인의 정신적 요소로서 중요시 될 뿐만 아니라 군인정신의 구성요소로서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병영생활의 복무지침으로 준수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군인정신을 ①명예와 ②투철한 충성심과 ③진정한 용기와 ④필승의 신념과 ⑤임전무퇴의 기상과 ⑥책임완수 등을 그 기본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명예와 책임관념은 다른 정신적 요소보다도 기본요소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충성심과 용기와 필승의 신념은 순수한 정신요소이며 임전무퇴의 기상은 외표적인 행동요소이지만 그 어느 것이나 책임과 명예라는 관념적 기초 위에서만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안으로는 양심의 명하는 바에 따르고 밖으로는 사회적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명예라는 것은 개인의 직업 또는 직위에 상응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기준에 알맞는 명성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개인 또는 소속된 부대원으로서 생활할 때 안으로는 스스로의 양심을 파기하고 밖으로는 사회적 기대에 배신하여 마땅히 인정 받아야 할 명성마저 잃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신상태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적 앞에서의 용기, 즉 싸워서 꼭 이긴다는 신념 등의 정신요소는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임전무퇴의 책임완수란 늠름한 기상은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나 한 사람의 병사는 비록 일개 분대에 지나지 않지만 정비 또는 보초병으로 근무할 때는 부대 전체의 안전을 경비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의 통신병으로서 「레시바」를 귀에 걸고 있을 때에는 비행기의 방향선정과 작전 연락을 도맡아 하는 중임을 띠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겠다.

그것이 국가와 민족이 자신에게 부과시킨 책임을 통감, 감수하고 그 수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만약 그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무책임하게 탈선행위를 자행한다면 적에게는 침공의 기회와 허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은 아군을 멸망의 위기로 몰아

넣는 비잡한 현상을 가져 오게 될 것이
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논리인 것이
다.

이러한 전지에서 우리 군인에게 있어
서의 투철한 책임관념과 드높은 명예심
은 군인정신의 기본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야 하는가를 항상 뇌리에 두고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애국
이요, 애족이요, 총화체제를 더욱 굳히
는 일임을 명심하자.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주어진 환경을 개척하여 그것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 중단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만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 1969년 신년사에서 —

○ 우리는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다음 세대에는 훌륭한 유산을 물려
주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송두리째
바쳐야 한다.

—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 유시에서 —

○ 지금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국 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먼저 생활의 합리화, 근대화가 이룩되지
않는 한 이 과업 수행은 어려운 것이다.

—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한 담화에서 —



특
집

팔경하애와
충화단결

팔경하애와「충화단결」

윤

영

춘

△문학박사·경희대 교수▽

우리 또래의 생활습성에 의하면 40여 세가 된 형을 보면 아우된 사람은 으레 일어나서 형에 대한 인사를 갖추었다. 말하자면 웃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보였던 것이다. 웃사람을 대해도 본체 만체 하는 그런 버릇없는 태도가 아니었으니 이것을 일러 장유유서(長幼有序)라 하겠다.

덜어놓고 웃사람이라고 해서 공경할 것은 아니나 연장자로서 연장자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야만 할 것 아닌가?

요즘 다방같은 데서 자주 일어나는 인질소동은 일종의 우리 사회의 병폐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들이 부대를 이탈해서 소동을 벌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면 상사를 섬길줄 모르는 불경손한 열간막둥이가 태반이다.

혈기방창하고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생태는 대개가 가정불화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정명도(程明道)의 학설을 따르면 경(敬)은 곧 예(禮)라고 했다.

경심(敬心)은 잃지 않으면 곧 마음이 겸손해져서 교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해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면 반드시 공경하는 사람이다.

가정에 있어서 공경할 줄 아는 자녀를 두면 이것은 부모의 면류관이다.

경(敬)에는 복종심이 따른다.

「우정(友情)의 전쟁(戰爭)」이란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은 「퀘커」교도(教徒)였다.

사람을 죽이는 총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주인공은 집총을 거부한다.

「퀘커」교도들은 오랫동안 집총을 거부해서 나라마다 말썽을 일으켰는데, 이 경향은 차츰 달라져 가고 있다.

몇해 전만 해도 이 집총 거부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번졌던 일이 있다. 영화의 내용에 있어서 주인공의 집에(퀘커교도의 집) 적군이 들어와서 집식구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이 「퀘커」교도는 본능적으로 총을 들고 저항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 집총을 거부하는데는 물론 성경에 입각해서 입장을 달리할 수 있으나 국가적으로 보면 국법이 이를 용납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나 사령관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적군의 침략을 받고서야 국법의 존귀함을 알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법을 발동하는 위정자나 군대 사령관을 존경하고 싶은 생각까지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한 개인의 명령이 아니

라 나라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앞서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들의 소행이다. 반년에 명령을 내리는 상관은 부하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을만한 인격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극상(下剋上)의 풍조가 부대 안이나 사회에 편만(遍滿)해 있으면 그 부대나 그 사회는 편만한 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기성세력을 아예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상사에게 반항적 태도로 나온다면 그 사회는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요즈음 나온 이방자(李芳子)여사가 쓴 「지나온 세월」을 읽고 느낀 바가 많았다. 그것은 일제시대에 일본 귀족의 내면생활이 어떠했을까 하는데 흥미를 느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측면사(側面史)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왕 전하가 방자 여사와 결혼하고 동부인으로 동남아 여행길에 올랐다.

일본 정부가 특별히 배려한 유람선을 타고 해군의 호위하에 호화스런 여행을 하는 도중 배가 상해(上海) 부두에 정박하려는 순간 「내리면 위험하니 내리지 말고 열른 부두를 떠나 달라」는 두전이 날라왔다.

한국 임시 정부의 김구(金九) 주석이 지휘하는 독립군이 이 유람선을 습격해 들어올 위세를 보인다는 일본 대사관의

긴급 무전연락이었던 것이다.

이왕 진하의 심정은 몹시 착잡해졌다. 배는 일본의 것이로되 마음은 늘 조국을 그리는 그였는데 조국의 독립을 잊지 않는 자기를 공격해 온다는 충격과 아울러 임시 정부의 독립군 위력이 대단하다는 데서 생각이 착잡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수 없이 배를 돌려 상해 부두에는 기항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뱃길을 돌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일제하에 그도 일본의 세력이 상해에까지 뻗었던 당시에 임시 정부의 열혈청년이 어떻게 유럽선애까지 위세돌 뻗었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통쾌하기 짝이 없었다.

임시 정부의 주석인 김구(金九)선생은 부하들에게 인격적인 숭배를 받았을 뿐더러 부하들은 김구(金九)주석의 명령에는 목숨을 내어 걸고 복종했다.

김구(金九)주석을 그토록 존경하고, 순종하는 데서 일본 제국과 대결하여 우리 임시 정부의 뚜렷한 존재를 만방에 선양했던 것이다.

아침을 부러가며 상관을 존경하는 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충성을 다했던 임시 정부의 열혈청년. 그 삼엄한 일본 군경의 경계망을 뚫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휘날렸던 광

경을 생각하면 우리 나라가 독립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인간다운 직분을 다하는 생활은 군인 생활인줄 안다.

한 사람이 일단 국가를 상징하는 군복을 입고 나시면 그 때는 개인의 모든 것을 국가에 완전히 바치는 것이 된다. 군복을 벗기까지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항상 기민한 활동과 국가의 충복이라는 일념으로 생활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전쟁에는 승패가 따르지만 군인의 영광이란 시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만 한다.

이것은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상사를 믿고 존경하는 것은 일사분란한 총화단결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의 전성기에 있어서 「카이사」의 무공문예(武功文藝)가 일세를 빛냈던 역사를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대시인인 「호머」는 청년 시기에 「부르터스」장군의 휘하(麾下)에서 보병대장으로 복무했는데 「부르터스」장군의 총애를 받은 것은 대장의 명령을 잘 복종하고 상사를 존경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셰익스피어」는 기마대장으로 군복무할 때 충실한 군인으로 상사의 명

병을 잘 복종하고 상사를 존경한 모범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문무(文武)가 한참 발전했을 때의 소설가 「세르판테스」가 육군에 복무했는데 거기서 얻은 소재들이 그의 불후의 작품을 창작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그가 역시 상관에게 충복이었다는 것이다.

철학자 「데칼트」는 1616년에 「프랑스」 지원병으로 입대해서 「화탄」에 주둔했을 때는 「빠뿌리」공(公)의 부하였다.

몇번이나 화탄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이루었는데 그 때는 25세였다. 모범적인 군인이었다는 호평을 남긴 것은 대노라 하여 늘 자기 자랑을 나타내기 보다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광을 상사에게 돌렸다는 것이며, 상사를 부합히 따랐고 존경한데서 상사의 사랑을 받았다.

정의를 위한 전쟁은 언제나 역사를 통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영웅 호걸의 모범적인 행동은 언제나 전쟁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들의 모범이란 우선 복종심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사에게 충성을 다한데서 책임을 완수한 것이다. 「호머」가 「국가들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영광이라」고 말했듯이 피끓는 정열을 나타낼 위해 바칠 때 그 숭고한 생활이 후세에 길이 빛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사(下士)가 무조건 상사(上士)에게 숭배하게 되는 이면에는 상사가 부하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이 우러나는데서 이루어지는 줄 안다.

전쟁터에 나가면 상하 구별 없이 똑같은 진우라 일상생활에서 상사는 부하에게 친 아우, 친 자식처럼 사랑하는 우애의 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내리 사랑이라」는 말은 군대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격언이다.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거든 네가 먼저 남을 섬기라는 말은 부하를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

그 바쁜 시간에 제자의 발까지 씻겨 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최고의 봉사 생활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서로 봉사하는 생활에서 총화와 단결이 이루어진다.

상관에게 불손했다고 해서 「어디 두고 보자」는 격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아량이 있는 상사라고 할 수 없다.

혹 부하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만 한다.

내가 극히 존경하는 퇴역장성 박영석 장군은 지금은 중요한 국가 기업체의 사장으로 있지만 그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 나의 제자들은 입대해서 그의 부하가 되었다.

박 장군은 자기의 부하가 병이 나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부하와 같이 걱정하며 물어주는 인정이 넘치는 지휘관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박 장군을 「성인장군」이라고 했다.

인자하고 늘 웃는 얼굴로 대란에서 부하의 존경을 단뿔 받았다.

그의 인격에 감동되어 부하들은 명령이 내리기 전에 척척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퇴역했으나 그 때의 부하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부하의 일을 잘 돌보아주고 있으니 이같은 사랑에 감동 안 될

사람이 있겠는가.

상사라고 해서 위엄과 명령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인간미에 넘쳐서 위엄과 더불어 사랑의 사도로 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줄로 안다.

사랑으로 얻힌 「에멘」동산이 만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이 오고가는데서 이룩되는 줄 안다.

살벌과 불화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군대에서부터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시범을 보여주던 이 시범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우리 사회가 총화단결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는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나의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남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존경과 이해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써 서로 돕고 이해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의 인권은 떼떽하게 신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제18회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 치사에서 —



특
집

필승공군이
다아갈길

「즉각응징하는 길」

소
장
천

영
성
△작전참모부장▽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 해처럼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없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부터 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고무적인 사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예외없이 있었지만 북괴의 「땅굴 남침로(南侵略路)」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경악이요, 분노요, 특히 제복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렸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일이다.

지금 나는 「단순히 이긴다는 각오에 그치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 아니되는 절실한 국가적 요청에 따라 즉각응징의 계급태세로 적의 도발을 분쇄하여야 한다」라는 역사적 사명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놓고 곰곰히 지난 일을 되새기면서 새해의 설계를 생각해 본다.

어느 진사(戰史)를 보더라도 적을 알지 못하고 싸워 이긴 일이 없었을뿐 아니라 더우기 적을 알더라도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패전의 고배(苦杯)를 들었음은 껍이나 익혀온 교훈(敎訓)이다.

문득 지난 해에 있었던 「홍수환」과 「카바넬라」의 사각(四角)의 대결이 생각난다. 비록 통쾌한 「편치」에 의한 K.O 승은 아닐지언정 피땀어린 작고 끝에 접

던한 「세계참피언」의 고지를 일차적으로 방어한 것은 패사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언뜻 보면 단 두 사람만의 필사의 투쟁같이 보이지만, 그 선수들 뒤에는 「세칸」이 있고, 「트레이너」가 있으며, 그들을 길러준 「국가(國家)」가 있는가 하면 불사(不死)의 투지를 발휘케 하는 국가적의지(國家的意志)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본 지면의 성격상 구체적 분석이나 방안의 제시(提示)는 가능한한 피하고, 다만 「필승 1당 5 공군(必勝 一當 五 空軍)」이 되기 위한 길을 모색, 정립하는 「방법론적 태도와 의지」를 중심으로, 평소의 소신(所信)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I. 대응개념(對應概念)의 정립

○ 적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장병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진다. 만일 복귀의 정규군이 ○○만명, 노동적위대, 붉은 군위대가 각각 ○○만명, 전술기 몇대, 탱크가 몇대 등만을 대담하는 어느 장병이 있다면…… 「홍수환」선수가 「카바넬라」선수의 신장, 체중, 「핀치」의 길이, 「편치」의 「다이아메타」 등만을 알고 열전에 임해서 이

길 수 있겠는가? 라고 자문자답을 권하고 싶다.

홍 선수가 「이길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장병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이상의 것들은 상대방의 물리적인 잠재력(PHYSICAL POTENTIALITY)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이에 부가해서 그러한 물리적 힘을 어떻게 운영 구사할 것인가 하는 적의 기도(企圖) 내지는 의지(意志)를 예리하게 분석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의 기도(企圖)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가령 상대방을 「넉·아웃」시키려면, 상대방 선수는 물론, 「세칸」이나 「트레이너」들의 훈련방법, 과거부터 구사해 오던 전술 등 그들 국민성이 도전적이냐, 호전적이냐로부터 관중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예의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복귀의 기도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군사적 잠재능력(潛在能力)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구성이나 성격, 인민의 의식구조 내지는 의지 등은 물론이려니와 「세칸」이나 「트레이너」를 후견국(後見國)에 비유한다면, 중공 및 소련의 전략적 기도와 국제적 여론의 추세(관중의 반응에 비유) 등

을 총괄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모든 수단과 방법, 예지를 동원해서 논리적 사고로 비교 분석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위협에 대한 연구 분석이 「특정시기(特定時機)」나 「특정한 필요(特定한 必要)」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면 논리상의 모순을 범하거나 커다란 오판(誤判)을 자초하기 쉽다.

가령 「아퍼·켓」으로 상대방을 「터·아웃」시켰다 해서 항상 「아퍼·켓」만을 구사하는 우둔한 「복서」는 없을 것이 아닌가? 때문에 「적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적에 대해 하루도 쉬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 분석 작업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 나의 솔직한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서의 「나」의 개념은 개인으로서의 「나」일수도, 공군 전체로서의 「나」일 수도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각 전투요원이 몇대의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일단 유사시 내습적기(來襲敵機)에 대해 얼마만큼의 피해를 적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같은 개념인 까닭이기 때문이다.

일장기(日章旗)의 대전대군의 폭음이 「진주만」을 진동시켰던 때부터 「히로시마」에 원폭의 폭음이 만개했을 때까지 2차대전의 주요한 전사의 토막토막이 붙여 머리를 스쳐간다.

기간중(期間中)에 있었던 전략(戰略) 전술(戰術) 등은 차치하더라도 마침내 패전국으로 몰락했던 일본이 과연 그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했었는지? ...에 문제성이 있다고 본다.

혹 「가미가제(神風)」특공대적 기혼과 기질만을 과시한 나머지 총체전력으로서의 「나」의 솔직한 능력판단(能力判斷)에는 소홀했거나 잘못 평가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패전원인(敗戰原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눈이나 손이 닿지 않는 적을 미리 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나」 자신을 안다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의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항상 상대적 개념에서부터 창출(創出)되는 것으로서 싸울 상대방과 비교 분석되어야 하며, 각 분석 요인별(各 分析 要因別)로 거침없이 객관적 기초 위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더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 당시 일본국의 국력도 적은 것은 아니었으나, 상대국인 미국의 무궁무진했던 잠재능력은 마침내 일본으로 하여

금 소나무 「광술」에서 기름을 짜내는 궁지로까지 몰고 갔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복서」의 세계로 잠시 눈길을 돌려 보자. 만일 홍 선수가 2, 3「라운드」쯤에서 강한 「펀치」로 「카바넬라」를 KO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치더라도 15「라운드」까지 지탱할 수 있는 체력이나 힘의 안배를 구사할 수 없었다면 결과는 자명했던 일이 아니겠는가?

이와같이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각 전투요원의 사격기량, 정비기술, 각 전투 단위부대의 통합된 체제적 전투역량 등 단기간내에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의 순발력으로부터 장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총체 자원의 동원능력, 동원자원의 배분 등 「나」의 지구력에 이르기까지 전 요인(全要因)을 분석, 평가, 해석하고 사심없는 비판을 가할 줄 아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년공군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다듬어 알찬 전진만이 허락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

물론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요원들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줄로 믿고 싶다. 그러나 한결음 더 나아가 각급 지휘관이든 관계요원이든 간에 월말이나 연말이면 으레 하계 마련인 업무분석 과정에서 형식적이며, 요식적

인 계수적(計數的) 종합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내부적 요인을 파헤쳐 질적인 평가에 분발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과거로부터의 모든 관계자료가 없이는 과학적인 분석을 기대할 수 없음으로 각종 자료의 정리 보관함이 선결문제이며, 특히 하나의 거짓도 없이 「나」의 능력을 보고하고, 포용할 줄 아는 습성과 노력을 당부하는 바이다.

◎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적의 가능한 전술적 행동, 방안은 그들의 전력 규모에 따라 수백 수천을 헤아릴 수 있다.

이때 어느 특정 방안에 대해서만 대응 개념을 정립했다면 계획의 강직성(剛直性)을 불면(不免)케 될 것이며, 방안 각각에 대한 정립 작업을 시도한다면 계획운용(計劃運用)의 단순성과 용이성(容易性)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적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OPTIONS)들을 망라하여 놓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대처방안(代替方案)(ALTERNATIVES)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최적(OPTIMUM)의 개념을 정립하기란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적에 관한 한 그들의 방안 자체가 불확

정요인(不確定要因; UNCERTAINTIES)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은 특정 개인이 할 경우 능력의 한계를 느낄 것이며, 때로는 개인적 직관(直觀); INTUITION)의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예외한 후덕력과 명석한 분석 비판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연구팀(THINK TANK)에 의한 끈질기고 꾸준한 연구 작업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립된 개념은 작전계획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원래 계획이란 어떤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보완(修正補完)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실제 전투에서 싸워야 될 전투요원과 이를 뒤에서 운용통제(運用統制)하는 전투참모와의 약속 동작을 문서화한 것임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서 잠시 「사각의 링」 위의 장면을 연상해 보기로 한다. 「타이틀」전을 갖기 위해서는 몇개월 혹은 몇년 전부터 세밀하고 치밀한 작전계획을 짤 것이다.

상대방이 「스트레이트」로 도전해 오면, 어떠한 「후트-웍」으로 「더어억킹」 「모션」을 써서 「카운터 부로우」를 날릴 것인가?

혹은 어느 「라운드」에서 결정적인 강타를 행사할 것인가?

즉 힘의 안배 등을 고려해서 말이다. 다시 말해서 「세칸」이나 「트레이너」와 선수 사이에 비밀히 대화할 수 있는 전술의 약속을 미리 작성하여 도전할 것이다. 마침내 「벨」 소리와 함께 결전은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작전계획대로 상대방이 싸워줄 것을 기대하기란 어리석은 일이며, 어떠한 몰발적인 전술로 도전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전술을 훈련하고, 익혀왔다면, 「세칸」의 약속 신호에 따라 그때 그때의 상황을 능히 제압할 수 있을 때 그 「약속문서」는 바로 이길 수 있는 우수한 계획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수단——

대응개념의 정립과 작전계획의 발전——은 그렇게 심오한 학문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각양각색의 문제의 도전을 받으며, 해결해 나가듯이 일상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역경이라도 좌절됨이 없이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문제에 대한 도전적 생활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북괴의 전면적 재침이든, 지난 서해 사태와 같은 강도적 행위이든,

동해에서의 어떠한 해적행위든 간에, 또한 최근에 있었던 「땅굴」을 통한 최고발악적인 도발이 어떻게 이를 단호히 응징 격멸할 수 있는 용기와 기지와 각오는 서 있다. 다만 복귀가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도발을 야기하더라도 상황 발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이 구사할 수 있는 대응계획을 끊임없이 검토, 보완, 발전시키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첩경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Ⅱ. 군사력(軍事力)의 육성(育成)

아무리 우수한 대응계획일지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즉 물리적 힘이 균형있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고대전(古代戰)에서와 같은 어떤 의지만의 대결로서는 현내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군사력의 육성이라는 명제는 국가안보영역(國家安保領域)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실로 군사력의 육성은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인 요건이며, 이는 바로 국력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도전과 응전이 연속되는 세계사 속에서 국가도 세제도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토인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날 무기체계의 발달 추세는 우리의 사고영역(思考領域)을 벗어날 정도로 그 속도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항공력 분야는 조그마한 전자장비로부터 우주공학(宇宙工學)에 이르기까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을뿐 아니라 천문학적 숫자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복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양상의 도발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공군력 주도하(空軍力主導下)에 야기되리라는 것은 쉽게 수궁이 가는 일이지만, 아직도 숫적 열세에 처해 있는데에 당군(常軍)의 고민이 있다 하겠다.

물론써 보면 수원적(受援的) 국방관리체제(國防管理體制)하에서는 비국으로부터 얻어진 장비며, 제도를, 다시말해서 「현존전력(現存戰力)」을 여하히 관리보존하느냐 하는 일반적 관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숙명적으로 자주국방관리체제(自主國防管理體制)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현금에 있어서는 과거의 소비적 측면의 관리를 탈피하고 군 건설이라는 투자적 측면까지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무한정의 투자는 있을 수 없

을 것이며, 투자에는 반드시 예산의 한계성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選擇)」을 해야 되는 필연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의 슬기와 현명이 동원되어야 함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선택」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보다는 차라리 선택을 해야만 되는 오늘의 고민이, 더욱 대견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주(自主)」에로의 발돋움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늦은감마저 든다.

원래 「자주(自主)」의 개념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얼마만큼 나의 의지대로 유도하느냐는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국방노력이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어떠한 군사력의 육성은 현존 무기체제(現存武器体制)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개념을 정립했던 과거와는 달리 대치(對峙)하고 있는 적의 위협추세에 따라 정립된 전략전술개념(戰略戰術概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인 무기체제의 자극적이며, 과학적인 「선택」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이란 단순한 주먹구구식이나 어떤 직관(直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객관성을 토대로 한 비용대효과분석(費用對效果分析)을 통해서 최적의 조

합(COMBINATION)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理致)일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지향하는 공군의 육성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뚜렷한 목표 설정하에서 이에 부응되는 공군력의 증강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전력의 증강 추세에 부합되는 군구조(軍構造), 지휘운용체제(指揮運用体制) 및 제도(制度) 등의 연구 작업도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면 경제적 전설과 일면 안보태세의 완비라는 이중적(二重的) 명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국가적 처지로서의 모든 군사력의 건설노력이 낭비가 없는 과학화(科學化)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Ⅲ. 전투기량(戰鬪技倆)의 배양(培養)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립된 대응개념이 있고, 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력이 구비되어 있다면, 이제는 전투요원의 정신적 기초만이 남아 있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숫적 열세와 선제기습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전투요원의 정예화(精銳化)」와 「체제훈련의 강화」야말로 현시점에서는 진승(戰勝)의 관건이 아닐 수 없다.

◎ 전투요원의 정예화(精銳化)

정예화(精銳化)란 작자가 맡은 소임을 완수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 전투요원(全戰鬪要員) 즉 개인의 전문화(專門化) 내지 정통화(精通化)에 그 목표를 두어야만 하겠다.

흔히 「교육」과 「훈련」을 동일개념으로 착각할 경우가 있는데, 전자가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지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면, 후자는 다분히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의 전문화는 단계적이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정비사는 장비의 일을 높이고, 조종사는 일기당천(一機當千)의 기혼으로 전투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선적으로 자기 능력에 알맞는 임무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최고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실전을 연상하면서 평소 피땀어린 훈련을 거듭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나폴레옹」 군대를 격멸했던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말했던 「위터루」의 싸움은 「이른」의 운동장에서 이미 이겼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말이 아닌가?

한말의 기종으로라도 적기를 격추시키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맹훈련을 거듭한다면, 「북괴를 무찌르고, 영공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음의 나태를 마음껏 뒀던 우리의 삶터인 이 창공에서 이미 이겼었다」라는 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 자체 훈련의 강화

아무리 개인적으로 전문화되어 보유 무기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기량을 함양하였더라도 일인대일인(一人對一人)의 전쟁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각자의 기량이 한 목표로 집약된 때 비로소 총체전력(總體戰力)으로서 그 역량을 12分 발휘케 되는 것이다.

항공력의 발휘는 조종사, 관제사 및 무기 등 각 체계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한 대의 적기를 격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체제훈련(體制訓練)의 강화를 요구케 되는 것이며, 또한 고도로 숙련된 요원을 필요로 하는 것도 물론이다.

특히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장비를 다루고 있는 공군에서의 체제의 유기화(有機化)는 그때 그때 지시되는 혹은 설정한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전분야(全分野)의 요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는다.

어느 행사 때면 흔히 볼 수 있는 「카드·섹션」이 있다.

이것은 수천의 학생이 하나의 목표를 그리기(達成) 위해 그때 그때 지시에 의거 각자 맡은 동작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조화의 극치일 것이다.

이와같이 지휘운용체제(指揮運用體制)에 의해 전문화(專門化)된 기량을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발휘한 때 비로소 체제훈련의 참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맺는 말

지금까지 대응개념의 정립, 보완, 발

진 그리고 이에 알맞는 무기체계의 선택 작업 등 방법론적 태도와 이 양자를 실제로 운용할 전투요원의 의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극히 당연하면서도 보편적인 사실을 다시 정리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복귀의 어떠한 도발이라도 이를 즉각 응징 격멸할 수 있는 「필승 1당 5공군(必勝一當五空軍)」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소리없이 조용히 실천하는 새해」를 슬기와 예지로써 하루하루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것만이 이기는 길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자유는 남을 위하는 봉사정신을 요구한다. 자유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유는 봉사정신을 요구한다. 우리가 자유 속에서 한 거래됨을 깨닫고 거래의 한 몸 됨을 발견하면 할수록 거래에 대한 우리 모두의 봉사 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

- ◇.....정신(精神)의 문제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기되어야.....◇
 ◇.....하고, 철학은 실행성 있는 과제가 배제(排除)되는데.....◇
 ◇.....서 출발해야 하지만, 또한 정신의 문제는 반드시.....◇
 ◇.....표현된 전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특

집

필승공군이 나아갈 길

능력 과 창조

— 유신정병과 필승공군이

되기 위한 정신의 문제 —

대령 김 원 기

△정훈차감▽

1. 이유있는 문제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현재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의 힘에 있음이 틀림없다.

능력과 창조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행복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껏 창조된 열과 슬기 때문에 향상되고 발전된 생활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군(軍)이라고 해서, 공군이라고 해서 이와같은 능력과 창조의 바탕에서 출발된 생활규범, 곧 정신전력의 발현(發顯)이 예외될 수는 없다.

그런데 창조하는 능력없이 기대 이상의 창조를 바라는 풍토에서는 항상 부조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기대 이상의 창조를 바라기에 비능률이 만연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접이 생기는 것이며, 능력과 창조없이 발전하고 또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다.

전혀 근거도 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이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발전의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다.

사회 저명인사와 자신이 동성(同姓)이지만 해도 친척인 척, 심지어는 자신과 친한 사람의 성이 그 유명인사와 같아도 자신이 무슨 유명인사나 된 양, 또는 유명인사 가문에서 살고 있는 양 우쭐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자기네 동네에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살고 있어도 자기를 높이려는데 함부로 이름을 팔고, 한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의 먼 친척에 유명인사가 있어도 자기가 잘난 양 우쭐대는 사람들이 가끔 있음을 우리는 본다.

또는 자기 선조의 X대 할아버지는 무슨 벼슬을 했고, 자기 외가 쪽으로 X대 위는 구한말(舊韓末)에 무슨 벼슬을 했고, 처가 쪽으로 누구는 왜정시대(倭政時代)에 무슨 군수를 했다는 등, 그럴싸하게 떠들므로써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는 위인들도 가끔 있다. 우리 옆집에는 지금 한창 날리고 있는 모(某) 배우가 10년 전에 살고 있었는데 나보고 오빠라고 했고, 15년 전에 살던 옛집엘 가보니 3층 슬라브집이 들어앉

았는데 모 인기가수가 살고 있단다. 그래서 어찌란 말인가.

유신정병으로 필승공군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무능력이 배제되고 능력과 창조가 만개(滿開)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이런데서 군정신(軍精神)의 문제는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다.

2. 문제의 기본철학

철학은 원래 인간의 참된 삶을 어떻게 진리의 방향에서 이끌어가느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군에 있어서의 정신의 문제에 대한 기본철학은, 어떻게 군을 군의 진리, 즉 최고의 진리를 유지하여 조직있게 발전시키느냐에 그 핵(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고능력(思考能力)은 한계가 있다고들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분명치 못한 결론들이 많이 내려지고 있다.

한 예로, 실행할 수 없고 실현될 수 없는 인간의 사고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 몇 세기 전에 「다·빈치」(Leonardo da Vinci)가 생각한 인간의 공중항보나, 월세계에의 여행, 물 속에서의 생활은 당시에는 사

고능력의 한계였을지 몰라도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사고능력은 그 한계가 무한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사고(思考)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즉, 창조(創造)의 힘이 문제가 된다.

이상(理想)의 세계, 과학의 세계, 그리고 몇 세기를 앞보는 분야에서는 사고를 따라 가는 현실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다만 인간의 창조 능력을 예상할 수 있는 예언자적 논리만 있으면 족하다.

거꾸로 말하면, 현실에 있어서의 실행능력 즉 창조의 힘은 예언자적 논리만을 가지고는 충족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조화(調和)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무한한 사고와 현실에서의 적합한 창조가 어떻게 서로 발전시키고 발전하느냐에 군정력(軍戰力)의 정신문제가 당면해야 하는 기본철학이 있는 것이다.

군에 있어서의 사고무한(思考無限)은 탁상론(Table Work)으로 밀리기 쉽고, 현실적응의 창조는 기회주의(機會主義)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사고와 창조의 균형을 너무 중시하다보면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로 밀리기 쉽

다. 물론 어디까지가 사고한계(思考限界)이며, 어떤 것이 창조의 힘이며, 어느 것이 능력과 창조의 균형인가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군정신전력의 가치가 그 요구수준(要求水準)이 「평균(平均)이 아니라 최대최고(最大最高)」인만큼 능력과 창조는 이 요구수준에 알맞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군정신 문제에 관한 기본철학은 「최상(最上)의 능력과 구체적인 창조(具體的創造)를 생산하고, 유지하고, 증대 발전시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군정신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대부분은 선택된 과제(課題)에 대한 집중개발(集中開發)을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 이루느냐에 있었다. 즉 이것은 어떻게 이만큼 언제까지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저만큼 언제까지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군인으로서의 정신이 갖추어진다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왕성한 사명감과 필승의 감투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여 끊임없는 전기연마로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된 과제에 대한

집중개발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창조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고사나열적(古事羅列的)인 교육방법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투입된 교육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측정의 예상마저도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까닭에, 군 정신문제의 기본 철학에 대한 출발은 배제(排除)된 과제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인 최상의 능력과 구체적 창조를 생산, 유지, 증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위전개(轉位展開)되게 된 것이다.

3. 배제된 과제

배제(排除)라는 뜻은 「밀쳐서 떨어뜨리는 것」 즉 「의식적(意識的)인 작위(作爲)에 의해서 제외된 것」을 뜻하는 것이나, 이 글에서 배제된 과제라 함은 현실적인 최상의 능력 및 구체적 창조를 생산, 유지, 증대, 발전시키는 「표현(表現)된 정신력(精神力)」을 뜻한다.

이것은 군 정신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시했던 것은 「교육(教育)과 주의(注意)」, 「실천강조(實踐強調)」, 「교육효과지상측정(教育效果紙上測定)」이었지, 군정신에 주입된 모든 종합요소가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서 전력(戰力)에 구

체적으로 기여하고 부가(附加)되었는가를 소홀히했던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論理的)이고 구호형(口號型)이며 형식에 치우쳤던 군정신제고효과(軍精神提高效果)를, 실증적(實證的)이고 행동형(行動型)이며 실질(實質)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군 정신문제를 전위 전개한다는 것이다.

「교육(教育)은 인간생활의 경험, 지식, 규범을 다음 세대에 전달시키는 국한된 관습에서, 현실에 밀착한 그 계급에 맞는 「사람됨의 가르침」으로 변하였고, 다시 있는 소질을 그대로 자라게 하는 「인간관계와 창조의 능력배양」으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음을 현대의 교육자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군 정신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군사(軍史), 전통적 사명감(傳統的 使命感), 군기(軍紀), 막연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주입시키며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상경하애의 계급적 인격존중, 능력의 극대화, 부대발전을 위한 창조의 능력배양으로 발전하는 즉, 소극적인 논리적 제규범을 적극적인 실증적 행동강령으로 만드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 교육철학의 가장 큰 비중이 되고 있는 「탄압」과 「열립」이, 군 정신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중요시되어야 하는 까닭이 있다 하겠다. 군내(軍

內)에 있어서의 병원(兵員)은 하나의 공통된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분석의 방법을 택한다면, 병원개개인(兵員個個人)은 하나의 「고독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이 고독한 인간들이 병영생활을 이룸으로 해서 「계급적인 만남」, 「공통목표의 만남」, 「동일생활조건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여

으나, 앞으로의 군 정신교육은 교육자의 소질과 능력을 옆에서 자극하고 선도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력적이며 개인 창조의 조직적인 집합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제된 과제에 지나지 않았던 개인의 능력과 소질이, 경쟁적인 집합을 통해 전력(戰力)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兵員
兵員
兵員
兵員
兵員

같은 생활 같은 목표

계급유지

군대

(각기 다른 인간들의 만남) (의식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기에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를 형성한다.

그런데 군대에서의 「만남」은 그것이 전혀 의식적(意識的)이라는데에 그 특수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意識)은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조직의 의식이며 목표 달성에 대한 조건적 의식이다.

따라서, 군대라는 사회를 이룬 고독한 인간들인 병원 개개인의 만남은 전혀 새로운 생활을 만들고 움직이게 되는 생소한 「열림」으로 해서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군 정신교육은, 피교육자의 소질과 능력은 거의 무시된 채로 교육자의 의도하는대로 강제적이며 집중적이고 집체적인 방법에 의존한 것이었

(새로운 생활관습의 적용) (특수사회) (형성)

강 제 적
집 중 적
집 체 적

열림

자 발 적
능 령 적
창 조 적

兵員 兵員 兵員

兵員 兵員 兵員

(이끌림의 상태) (스스로 참여하는 상태)

그런데 문제는 「열림」에의 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현대 교육철학에서도 「열림」의 문제는 「전원전인」(全員全人)인가 아니면 「개별전인」(個別全人)인가 하는 문제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개별전인의 쪽으로 대다수가 이해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즉 목적하는 바에 따라 조직전체를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향상시켜 조직에 기여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후자를 택하는 것이 시간과 능률을 절약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전자를 택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의 의미가 총력전이며, 숙전주의이고 기술전이라는 데로 정의되고 있다면, 전원전인의 정신교육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야 한다는 데서,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우선 개발하는 개별전인의 정신교육 방법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즉 이것이 군 정신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열립을 보다 크게 하는 「배제된 과제」인 것이다.

4. 정신전력의 발현

배제된 과제를 중시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무능력과 안일을 제거하는 근본수단을 창출하는데 있다. 흔히들이 수단을 정신전력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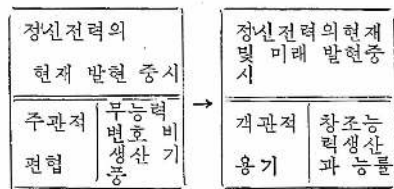
제례식의 표현으로는 정신전력이 현재에 발현(發顯)되는 것을 중시하였고, 특히 전시(戰時)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표현되는 정신전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몇개의 오류가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이유없는 용기 즉 자만과 저돌성과 객관(客觀)을 잃은 주관적편협(主觀的偏狹)을 크게 조장시켰다. 국민을 보위하고

국가를 방어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둘째, 무능력을 변호할 수 있는 소지(素地)를 만들었다. 책임감 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변명을 늘어놓기만 해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셋째, 준전시를 망각한 현실만족의 안일주의로 인해서 창조없는 병영생활이 계속될 수 있는 비생산적 기풍이 일부 만연되었다.

이와같은 몇개의 오류로 인해서 정신전력문제는 그 도달방법을 현재의 발현(發顯)에 두지 않고 「현재 및 미래의 발현」에 두게 된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정신전력의 발현에 있어서 현재를 중시할 경우 주관적 편협, 무능력 변호, 비생산의 기풍이 조장됨에 반하여, 현재 및 미래를 중시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표현된 정신력」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첫째, 장병 개개인의 용기가 객관화

되어 편협을 지양(止揚)하고 포괄적인 이해(理解)에 의한 선도(善導)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강제와 남독에 의한 애국심이 아니라 참여의 요구에 의한 애국심이 발휘될 것이다.

둘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고 능력껏 창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인격 존중에 의한 인간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태여 자기를 높이려 애쓰지 않을 것이며, 능력을 인정받고 창조를 상찬(賞讚)받게 될 것이다.

세째, 무사안일주의가 배격되고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고조되어 생산과 능률이 존중되는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 정신문제는 현재에 집착하는 편향성교육위주(偏向性教育爲主)에서 객관적 실천주의(客觀的實踐主義)로 방향을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즉 사실을 인지시키고 인지된 사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실 인지와 동시에 실천하고 실천결과에 대한 참여도를 측정함으로써 군 조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정신문제라고 해서 논리적이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고 실증적이야 한다는 새 원리를 세워야

할 때인 것이다.

5. 능력과 창조

능력이라 함은 「잘 감당할 힘」을 뜻하고 창조라 함은 「처음으로 만듦」을 뜻하는 것이나, 한편으로 능력이라 함은 「책임을 지는 자기소양(自己素養)」을 뜻하며 창조라 함은 「자기 활동을 중하게 여김」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능력과 창조라 함은 「자주(自主), 자존(自存), 자중(自重), 자활(自活)」의 모든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찾아서 만들고 처리하고 영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공군 제 2 전력의 기초이론이 $F=MC^n$ (F =총체전력, M =유형전력, C =무형전력, n =함수)라 함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무형전력 즉 유형전력의 가층(加層)에 따라 총체전력의 질과 양의 변역(變域)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C 는 곧 능력이며 n 은 창조의 함수이다.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게」라는 제 2 전력의 슬로우전은 능력과 창조의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는 일시적인 행정처리가 아니며, 단기간의 작전 계획도 아니다.

최고의 전력을 유지하고, 최상의 진

두력을 보지(保持)하기 위한 영구적인 행동원리이다.

어떠한 경우이건 무능력은 변호될 수 없으며 미화될 수도 없다. 창조되는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어려움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창조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 합리성,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에 타당성, 합리성, 가능성 등은 장병 개개인의 사명감, 육구충족, 활동능력, 관습, 관속도, 능률과 인적, 물적, 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수반하게 되고, 갖가지의 능력과 극복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신분엔 만족하고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미래진력을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며, 기대 이상의 창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될 것이다.

한편으로, 능력과 창조는 군의 목표인 전력극대화를 이루게 하는 근본과제 이면서 현실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력향상의 제장애(諸障礙)요소 제거라는 근본과제는 곧 능력이며, 임무수행과 합리적 병영생활이라는 현실적 과제는 창조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 개개인의 능력과 창조는 곧 군 정신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군 정신문제는 사명감 고취라는 기본 과제에, 이제까지 「배제된 과제」였던 능력과 창조를 발굴하고 도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그것은 빈곤 아닌 번영의 역사이며, 의타 아닌 자립의 역사이며, 분단 아닌 통일의 역사다. 그것은 정녕 중흥이 약속하는 전진의 역사다.

— 1967. 제 4300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

◎ 대화가 대화에 그치지 않고 협동으로 발전하고 또 그 협동은 진진으로 행동화되어야 한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료회의 치사에서 —

지휘관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고찰



대령

허

왕

△범부감▽

1. 서 언

지휘관이 직접 그 직무를 대만하였을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소속 부하장병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지휘관의 근무태만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적용 여부가 자주 거론되곤 한다.

이에 우리 군형법상의 지휘관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규정내용과 일반 형법상의 직무유기죄 및 대법원 관례에 언급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고자 한다.

2. 지휘관의 정의

지휘관이라 함은 본래 부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군형법상으로는 “중대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합장,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군 형법 제2조 2호). 지휘관의 정의를 제한한 이유는 지휘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가중하여 지휘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군형법은 지휘관에 대한 범죄(제14조 2호) 및 지휘관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범죄는 특별취급을 하여 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따라서 지휘관의 범위를 제한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로 일본 육군형법은 “군대의 사령에 임하는 군인”이라 하여 부대단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미군형법상에는 지휘관(Commanding Officer)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지휘관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거나 가중처벌규정이 거의 없는 바, 이는 지휘관이거나 부하이거나 책임의 평등 원칙에 인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군형법은 후진성을 띄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3. 지휘관이 주체가 되는 범죄유형

가. 불법전투 개시죄(18조)

나. 불법전투 계속죄(19조)

다. 불법 진퇴죄(20조)

라. 함복죄(22조)

마. 솔대(率隊)도피죄(23조)

바. 직무유기죄(24조)

사. 수so이탈죄(27조)

위 7개의 범죄가 지휘관을 주체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무유기죄는 그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일반형법에도 직무유기죄가 있으나 일본형법상에는(일제시도 같음) 직무유기죄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관례도 형법제정(1953. 9. 18) 이후의 것 밖에 없으므로 중부하지는 못하다.

4. 지휘관의 직무유기죄

가. 의 의

본 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하는 것이다.

공무원(군인 포함)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를 형법 제122조에서 직무유기죄로 벌하고 있다.

군형법 제24조는 지휘관의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의 문구는 전혀 동일함으로 지휘관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겠다.

나. 행 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인 바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은 공무원(군인 포함)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위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바 형법이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죄로서 형사벌을 과하고 있으므로 위 양자의 관계를 조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법,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무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유기 행위로 인하여 국가권력을 격하시키는 정도의 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는 소위 “지무”와 “유기”라는 개념을 적절히 해석하여야 모든 징계사범이

직무유기죄가 되는 불합리를 구체할 수가 있겠다.

(1) 직무의 개념

직무는 일응 법령이나 상부의 명령 또는 주위 사정에 의거해야 할 의무 (Charged by Circumstances With Duty to……) 등 지휘관이 맡게 되는 직무, 소극의 모든 직무를 뜻한다고 볼 것이나 판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중요 관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가) 대법원 1962. 5. 2. 61. 형상 125호 서울고법 1952. 5. 2. 62. 노41호

형법 제122조의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 본래의 직무를 맡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의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나) 대법원 1966. 3. 15. 65. 도984호

“형법 제122조의 이른 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총실근무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법,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

한다.”

(다) 대법원 1970. 9. 29. 도 1790호)

“피고인은 위에 적은 동성호에서…… 밀수 여부의 감시방지, 화물의 임검 및 감시 등 승감(乘監)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감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자택에 돌아왔다는 사실인 바 위 사실인 즉…… 위 승감임무는 이른 바 법령상의 추상적인 총실근무의 임무라고 볼 수 없고 특정한 선박에서 일정한 기간 특정한 감시임무에 종사할 구체적인 직무라고 할 것이요…… 직무유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대법원 1959. 12. 4.

“세관 또는 동 임검직원으로 외항선의 수입, 수출, 화물의 적재, 양육 감시, 밀수방지, 무단승선자를 단속하는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무단히 승선하려는 자를 국인 승선케 하고…… 직무유기죄가 된다.”

(마) 대법원 1956. 10. 19. 4289. 형상 244호

“경찰관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현인하고도 의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된다.”

(바) 대법원 1961. 2. 28. 4294. 형상 35호

“경찰관이 투표용지 유출사실에 대하여 삼사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를 수사하지 않음은…… 경찰관으

로서 각종 범죄수사 및 경찰 제정보를 수집 보고할 직무에 종사……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태도는 모든 징계사범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본래의 직무” “구체적인 직무” 등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2) 직무수행의 의무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의무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965. 9. 7. 65.도 984호)

“직무유기죄란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1965. 12. 10 65도 826호)

“군내내의 특단의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 피고인에게 인대장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음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5. 9. 7)라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위에서 말한 “직무”라는 개념과 상관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3) 유 기

유기란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대법원은 이것도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6. 3.

15, 판결은 명백히 “추상적인 충실근무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군형법에는 무단이탈죄가 규정되고 있으나 일반형법에는 무단이탈죄가 없음)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바,

(나) 우선 직무유기는 이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안 된다. 즉 대법원은 “형법 제122조에 이른 바 직무유기죄의 성립에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비뚤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집행에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혹은 재관적 사유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1960. 7. 30). 또 “피고인이 물품불출을 청구하고 조만간 불출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즉시 불출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직무유기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불출되지 않은 사유가 어떠한 사고로 인한을 알면서 그 사후조치를 고의로 강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처단할 수 없다(1966. 7. 26: 66.도 122호).

(다) 의식적 포기, 고의적인 거부나 유기가 필요함으로 일단 수행한 이상 내용의 부실, 부당은 제외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 등을 월2회씩 조사할 때 그 재고량을 정확히 조사할 직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두 조사하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혹은 소홀히하였기 때문에 그 수량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무집행 내용이 부실할 뿐 직무집행 의사로서 직무집행 행위를 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한 것인바,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여 직무집행 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법상

의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69. 8. 19. 도 932호).

5. 결 론

따라서 군형법상의 지휘관의 직무유기죄는 군 지휘관이 법령상의 그 본래의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할 특정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고의로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것이고 부하의 사고에 대한 평소 감독소홀 등은 지휘관 자신에게 직무유기 사실이 없는 한 군인사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인간과 인간성 ◎

◎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여러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망 혹은 이익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 밑에 있다.

— J. 로크 —

◎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의 선조를 되돌아보지 않는 후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 E. 버크 —



군인과 애국심

홍종도

애국이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함」이요, 애국심이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나라 즉 국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란 「나라」 또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정치단체를 가리킨다.

즉 「일정한 영토」란 「국토」를 말함이고, 「다수인」이란 「국민」을 말함이고, 정치단체란 「주권」을 가리켜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을 말한다.

따라서 애국심이란 우선 동족으로서의 국민을 사랑하고, 국토사랑에 의한 나라 사랑의 향토심을 가져야 하며, 국가 존립을 위한 주권 유지를 위한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군인들이 「국토방위」를 위한 최첨단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더욱 엄격하게 따진다면 국민의 임무가 국토방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 위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며, 외래 침략자로부터 우리의 국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군인에게 있어서 애국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심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군인의 길」을 살펴보면 「우리는 국가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국가를 지키다」 함은 「국민」 「국토」 「주권」을 말함이고,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함은 임무완수에 대한 가치관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 세분해 보면 「국민」이란 군인에게 있어서는 부모요, 형제인 것이다.

국가를 떠나 조그마한 개인의 가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의 부모와 형

제의 안위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진대, 보다 높고 큰 차원의 국가에 있
어서 어찌 값진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의 동포를 위하여 기쁘게 심신을 바치
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국토」를 지킴도 마찬가지이다.

국토는 국민의 생활터전이요, 보금자
리가 아닌가?

국토가 없는 민족은 그 국민이 흩어
지고, 주권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중
동을 보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몇 세기에
걸쳐서 유랑생활을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 민족 내 학살이
있었고, 설움받는 민족의 상징이 되었
었다.

• 2차 대전이 끝나자 중동의 조그마하
고 버려진 땅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국토를 얻고, 융성한 나라를 세웠다.

국민 모두가 피망 흘러 황무지의 사
막에 세계의 낙원을 건설했다.

「이스라엘」보다 환경이 좋고 살기 좋
은 나라에서 살던 「유대」 민족들이 자기
의 나라를 찾아서 모여들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밀려난 「팔레스타
인」 민족의 줄기찬 저항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랍」 민족과 끝없는 투쟁

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다.

4천여년의 역사를 통해 외적의 침입
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은 민족의
생존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

적에게 쫓겨 강화도로, 남한산성으로
의주로 피난을 하면서도 결코 물을 건
너 타국으로 흘러가거나 병합되지 아니
하고 끝내 우리의 국토를 지키 왔다.

「주권」도 마찬가지이다.

한사군의 설치로 인하여 처음으로 한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민족이
근질근 투지로 한민족을 몰아내고, 우
리의 주권을 찾았으며, 가깝게도 일제
36년을 통해서 주권을 빼앗겨 쓰라린 식
민통치에 뼈를 깎았다.

우리 민족은 멀리서 구미제국에서, 가
깝게는 중국과 적지 일본과 우리의 땅
에서 그들과 주권 쟁취를 위한 끝없는
투쟁을 벌였다.

상해 임시정부가 그러했고, 순국 열
사와 의사들의 장거가 그러했고, 만주
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들의 활약은 더욱
컸다.

당시 우리에게 군인은 없었다.

그러나 민족의 주권을 찾겠다고 의혈
청년들이 목숨을 내던지고 일본군과 싸
웠던 그 장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
을 위해서 그러했는가?

가깝게는 6.25 당시를 살펴보자.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 동족상쟁의 피비린내를 맡아야만 했다.

많은 우방의 도움도 받았고, 우리의 자유와 생존을 위하여 수많은 생명이 바쳐지고, 많은 재산이 불살라졌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벌써 30년에 접어든다.

남자 나이 30이면 가장이 된다.

가장은 가정의 안정과 발전과 융화될 도모하고, 외부로부터 가정의 붕괴 및 파탄을 책임져야 하고, 자기의 자손을 가르치고, 키울 책임이 있다.

성년, 아니 가장이 된 국가도 그렇고 성년이 된 군대도 그렇다.

우리 군인에게 있어서 더우기 성인이 된 군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고, 또 살아가야 할 국가에 대한 책임과 임무 또한 마찬가지다.

일제 36년을 통해 군대가 없을 당시도 독립군을 조직하여 적과 싸웠다.

그런데 오늘날은 60만 대군, 그것도 갖가지 고통과 피나는 어려움을 다 겪은 우리의 국군의 위용으로 보아 과거와 같은 쓰라린 역사를 또다시 겪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보다 알찬 군인의 임무완수를

위하여 군인은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에 불타야만 한다.

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 향토에 대한 무궁한 번영, 국가 발전을 위한 법과 질서의 유지 등 막대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로: 한국적인 실정으로 보아 공공 정신의 함양이다.

현금 세계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베르린」 장벽에 의한 세계적 긴장과 소련의 큐바에 대한 핵기지 건설 시도를 절정으로 하여 동서간의 긴장이 점차 해소되기 시작하여 냉전 체제에서 화해 협조체제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있어서 그 이념의 결합은 결코 아닌 것이며, 단지 전쟁만은 예방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다.

또한 동서의 해빙이 결코 한반도에 평화는 정착시키지는 않는 것이며 또한 전쟁의 억제력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김일성이 신년 「메시지」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속도전」 운운하여 속전 속결의 무력 적화 통일을 호언하고 있어 그들의 남침 야욕이 가시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또는 공산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공정신에 의한 강력한 국민정신의 무장인 것이다.

무기에 의한 전쟁의 형태를 앞선 것이 바로 정신력에 의한 싸움이고, 이 정신력에 의해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가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공정신에 의한 강력한 정신무장이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실정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며 애국심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군인의 정신에 있어서 승공정신에 의한 정신의 무장이 애국심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책임있는 임무완수다.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우기 군인에게 있어서의 책임이란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 안보에 직결되고 있음을 더욱 자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기의 조그마한 노력이 국가의 존망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며, 꼭 무력을 통한 싸움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의 작은 일들이 모두 그들과의 대결이며 개인의 노력에 의한 새로운 전기의 개발과 책임의 완수가 곧 방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장병 그 어느 하나가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적에게 그만큼 지고 있는 것이 되며, 또 나라사방을 위해 가는 길에 그만큼 역행된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째로: 철저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의 함양이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국민의 자제로서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 험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군에서 보내게 된다.

혹자는 잘못된 생각에서 군대는 “청춘의 매장처”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기 자신이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대적 사명감도 갖지 못한 것이며, 또한 자기 자신의 충실한 자신의 생활을 갖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군인은 가장 젊은 나이에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가장 알차고 힘있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군인의 몸으로서가 전 생활을 통하여 오

직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군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보다는 보람을 찾고, 가치를 느껴야 하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정신도 가져야 한다.

미국의 고「케네디」대통령의 유명한 호소, 국민들에게 힘있게 외친

“여러분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 말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장병 여러분도 군 복무 기간을 통하여 “나 하나쯤이야”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경우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바칠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한다

이것은 큰 것을 성취시키고, 그 결과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보다도, 좋은 결과가 오게 하기 위하여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 봉사하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비해로: 법과 질서의 유지다.

군인은 국가 보위를 위하여 특별히 조직된 단체이기는 하지만, 결코 특권적인 존재는 아니다.

군인도 국민의 일원이며,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군에서도 군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임무와 직책에 따른 책임완수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며, 상하상호간 철저한 인화단결로 군민총화와 막강한 군전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됨으로써 군이 갖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의 첩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애국」이란 거창하게 나라 전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작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한 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처지에서 이를 달갑고 값있게 받아들여 성실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고, 또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병 각자는 군인된 도리로서 오직 국가 방위를 위한 철저한 군무자세의 확립과 주어진 임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바로 「애국」임을 알아야 하겠다.



1. 군 새마을정신의 의의

군대는 민족의 불변하는 생존권을 상징하며 독립 국가의 표상이 된다.

우리 나라가 8·15해방으로 국권을 찾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곧 국군이 창설된 것은 군의 이러한 존재성을 잘 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군은 진군이래 이 민주적 민족독립국가를 보위할 것을 지상 이념과 목표로 삼아 왔다. 즉 대한민국의 안정 독립과 민주체제 그리고 그 평화적 번영을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확고히 지키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6·25를 비롯한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분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국군은 일찍부터 10월유신 과업 수행과 새마을운동 행진 대열의 선두에 참여하여 각급 부대에서 새마을운동은 오늘도 한창 불타오르고 있다. 국력을 증강하여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조국의 평화적 민주통일을 기하려는 10월유신의 이념은 새마을운동의 행동철학과 실천적 과업으로 구현하는 데서 비로소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참여는

군
의

새
마
울

정
신

편
집
실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립과 평화를 보전하며 국가를 방위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국제 평화 유지에 공헌하려는 우리 국군의 이념 및 사명에 충실한 행동 원리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조·근면·협동을 부르짖는 새마을 정신은 군인 정신과 더불어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우리 군 내에 깊숙이 뿌리박혀야 할 필수적인 정신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곧 자주국방의 정신적 기초이자 군인 복무 강령의 한 기본이기도 하다.

참다운 국방은 원래 강렬한 자조의 정신에서 우러나온다. 자조의 정신은 자기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함과 동시에 그 보전을 위하여 나와 내 나라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지키겠다는 주체의식과 방위의지 그리고 능동적이며 헌신적인 국방 봉토를 생산시킨다.

또 매사에 근면, 검소하려는 데서 충절심(忠節心)과 능률성, 규범성, 청백한 품성이 피어나며 이런 정신적 요소들은 곧 훌륭한 협동의 대전제이자 강철같은 단결과 전통의 근원으로 된다.

현실적인 우리의 자주국방이 방위에 대한 의사, 의지, 정신에 주안점을 두고 자주의 이념속에 상호방위와 집단안보의 개념을 제제면에서 흡수하면서 자체 능력을 확대시켜가는 추세하에서 이

보다 더 귀중하게 찾아야 할 정신적 지표는 없는 것이다. 또 자주국방을 위하여 우리 군은 태세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많은 실천지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우리 실정에 알맞는 군사교리의 개발이나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군대 체질의 발전, 물량적인 방위능력의 보완같은 것이며, 이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풀어가면 투철한 군 새마을 정신의 발양이 군 내에서 그지없이 요구된다.

「군의 새마을 운동이란 바로 자주국방태세 강화를 위하여 그 실천 지표를 달성하려는 전군적 사업활동을 말하며 군의 새마을 정신은 그 자주국방의 우람찬 추진력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군의 새마을정신은 우리 국군이 본연의 국방 사명과 임무를 다하고 자기의 승리와 전진을 기록한 혁혁한 전군사를 이으며, 자주국방의 명실상부한 중핵체로서 더욱 내실화하려는 기지개라 할 수 있다. 또 멀리 국난을 당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일치 단합하여 국방의 대의 앞에 열거했던 호국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민족주체 사관을 따라 나라의 방패로 국민의 자제로서 국력 배양과 총력안보태세 강화에 한 걸음 더 앞장서려는 향도적 발돋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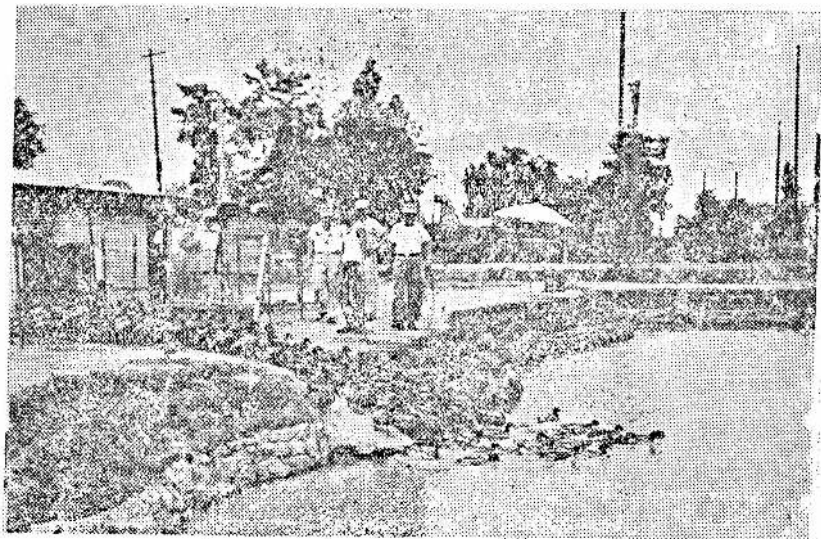
2. 자주국방의 추진력, 새마을정신

가. 자주국방의 요건과 새마을정신

일반적으로 자주국방이란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주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자기 나라 안보에 가해지는 위협요소가 무엇이며 그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는 가장 적절한 방책을 주체적으로 선택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에는 근본적으로 자의에 의한 결정과 방위방법 실행에 있어

서의 주체성 발휘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때문에 국방을 위한 자기의 정신과 능력 및 체제의 구비를 그 요건으로 삼는다. 이 요건 중 어느 하나가 결여돼도 그것은 참다운 의미의 자주국방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가령 방위 능력은 완전히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방위방법이 다른 나라의 강제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우나 타의에 따라서 그런 체제의 굴레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자주적이라 할 수가 없다.

그 반면에 제아무리 방위 방법의 판단이나 체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했다 해도 이를 실행 유지할만한 자기의 역량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자기 의지를 파



나가는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자기 의사와 자기 손에 의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태세를 마련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최고 목표이고 가장 완전한 것이다.

새마을 정신이 자주국방을 위한 그 추진력으로서 공헌하는 뜻과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 운동의 행동 강령인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은 곧 바로 자주국방의 제1요건인 자위(自衛)의 의지와 정신을 형성하며 고취시킨다. 이 정신적 작용은 자주국방의 시발이자 종착점을 이루며 그 능력과 체제를 기르는 모체가 된다.

자조하는 정신은 항상 발전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부풀려 준다. 그에 따라 의타심은 줄고 개척정신이 왕성해진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앞장서서 과감하게 대결하는 자주성과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 만사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책임과 사명 앞에 최대의 충성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정신을 「나」 개인으로부터 「나라」와 「겨레」로 연장할 때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기약하고, 그 생존과 보위를 위한 투쟁에 자발적으로 출선 참여하게 된다.

자위의 의지와 정신은 또한 근면한데서 살이 찌고 협동하는 데서 불어난다.

즉 근면과 협동으로 질량이 확대되는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여 나와 이웃과 나라가 잘 살게 될 때 그 속에 우리는 한사코 지켜야 할 귀중한 방위 가치를 더욱 강렬하게 의식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새마을 정신은 우리 자주국방의 능력을 훨씬 비약시킬 것이 명백하다. 현대의 추세로는 국방을 위한 물량의 종류나 수요가 그지없는게 사실이다.

국방력 또는 전력의 개념이 단지 병력이나 특정한 군수물자로 규정되던 시대는 이미 옛날에 속한다.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군사력과 인간의 정신력을 비롯하여 그의 모든 자원과 개발력, 생산력, 공업력, 과학기술력, 정치외교력, 사회적 문화적 역량 등 무형의 제반 요소가 종합되는 것이다.

새마을정신과 사업은 바로 이런 현대적 국방력의 온갖 요소를 개발하는데 합치된다. 그것은 우리 나라 구석구석이 방대한 저력을 널리 그리고 깊이 있게 개척해 가고 있다. 비단 경제적 개발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개혁 작업이 불어 있는 것이다.

농어촌을 주 무대로 하여 나라안에 밀어닥친 이 개발의 새 물결은 60년대에 거둔 1,2차 경제계획의 성과나 지금 완창인 중화학공업 건설의 진전과 아울러 우리 자주국방의 물량적 능력을 영원히 뒷받침할 토대이자 국력의 혈맥이

다. 또 이 새마을정신과 사업의 진전과정에 비능률을 배제하며, 새마을 실정에 알맞게 토착화 해가는 민주주의의 효율성이나 사회 부조리 현상의 제거는 국력의 낭비를 막고 이를 가속적으로 증강시키게 한다. 국력배양이라는 10월 유신의 참된 목표가 이루어지며, 그와 함께 퍼질 나라의 부강한 나라는 감히 적이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 태세를 높이 쌓아 올리게 된다.

세제, 자조·군면·협동의 새마을정신과 그 실천적 진행은 또한 우리의 자주국방을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다져가게 한다. 이념적으로는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꾸는 도장이 곧 새마을 사업장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확장된 물량 생산과 유통 체계는 유사시 언제든지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자조와 군면으로 추진되는 농촌 사회의 근대화 경향이나 협동으로 연결된 체제의 정비는 긴급시에 대비하는 동원속도와 숙련성을 기르게 마련이다. 이처럼 스스로 분발 협동하여 자주·자조·자위의 길을 닦는 우리는 자력 국방의 분량을 그만큼 늘림과 동시에 우방들과의 집단안보, 상호방위 체제를 오히려 이끌며, 더욱 공고히 하는 담보이다. 변천하는 국제 사회는 희망없는 자원이나 상대성 없는 원조를 남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

게 하고 있다.

스스로 좌절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게 무의미한 도움을 계속할 나라와 국민은 없는 것이다. 보다는 상호방위에 참다듬게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체제를 갖춘 그런 나라를 영원한 방위의 동반자로 삼아 상호 이익성을 찾게 하는 참이다. 우리의 새마을 정신과 실적은 이런 흐름에 비추어 맹방과의 상호방위나 여러 우방과의 집단안보 관계를 체계적으로 더욱 진실하게 할 것이 틀림없으며, 이는 「자력과 타력의 공존」으로 요지부동해야 할 우리 자주국방 체제를 보강하는 튼튼한 기조라 할 수 있다.

나. 총력안보의 정신적 자주

총력안보의 목적은 복괴의 침략으로부터 첫째, 나라를 지키고, 둘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세째, 민주주의를 지켜 자유와 평화를 보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생활 태도를 국가 안진보장이라는 차원으로 밀착시키면서 복괴로부터 오는 직접적 무력침략이든 간접적 침략이든 모조리 분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이 우리를 앞잡을 수 없을만큼 힘을 갖추어 그 침략을 사전에 억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기에 총력안보는 모든 국민

의 가치관과 나라의 시책 방향을 안보 제일, 안보 우선에 두어야 한다.

국력배양에 일치 단합하며,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불건전성을 출선과감하게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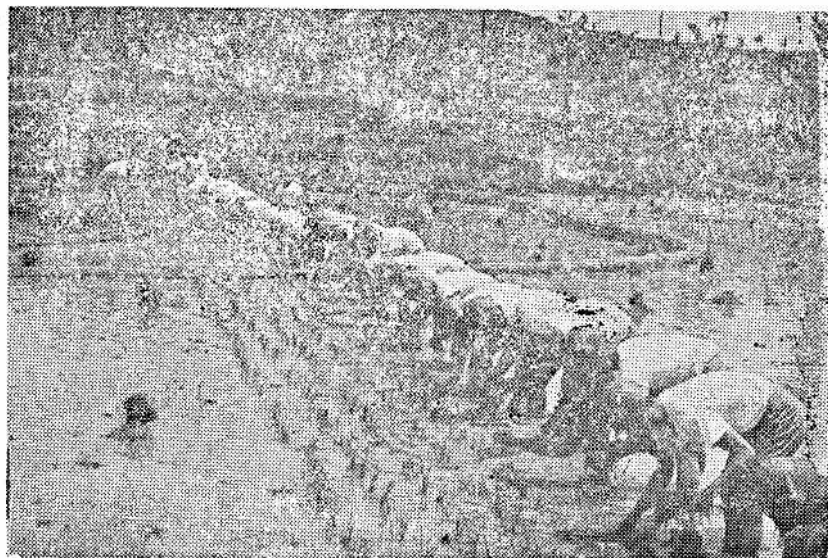
정신적으로는 자주·자조·자립의 의지와 자세가 발달해야 하고, 자위를 위한 용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행동면에서는 항상 협동 참여하며 생산성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활동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새마을운동 정신의 중추인 자주·군면·협동은 총력안보 구현을 위한 이런 정신적 행동적 요강 즉 자주·자조·자위·협동·군면과 일치한다. 또 군내 새

마을 운동의 지표를 달성함으로써 나타나는 강력한 군사력의 배양은 곧 총력안보 태세 강화의 중심력을 키우는 것이다.

군은 안보의 중핵체이자 향토성이 강한 전위적인 실력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심이 강한 조직체일뿐 아니라 항상 혁신성, 발전성을 안으로 추구하며 성장하는 체질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내에서 생활화 하는 새마을운동은 온 나라 안에다 가장 생생한 정신적 씨앗을 펼치게 한다. 그 실행을 안내하며 힘의 생산을 자극시킨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한결같은 의



지와 행동으로 참여해야 할 총력안보의 정신적 기둥을 우람하게 성장시켜 결코 쓰러지지 않을 미더운 태세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3. 군 새마을운동 목표

가. 군내 유신 체제 확립

10월유신의 영단은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회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아들여」 「우리 민족의 진운을 명예롭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박 정희 대통령 각하의 중대한 결심」에서 내려진 것이다.

여기서 말한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란 곧 우리 안보의 원천과 종착점을 내적으로 추구하는 대목이다. 또 「민족사의 진운」을 「명예롭게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밖으로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이 나라의 국권과 자주독립과 번영하는 장래를 확고히 보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써 두 대목은 모두 안보의 본령(本領)을 기조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유신은 우리에게 5대 과업을 지시하고 있다.

첫째는 국력배양의 가속화와 조직화이고, 둘째는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국민의 단결이며, 세째는 민주주의의 한국화, 토착화, 전전화를 위한 제도의 개혁과 정치 형태의 쇄신이다. 네째는 경

제 성장의 지속과 조국 근대화의 추구이며, 다섯째는 우리 사회의 개혁으로 부조리, 비능률, 무질서 상태를 영원히 제거시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국방의 일선을 담당한 군의 새마을 운동은 국가 보위의 총책임자인 대통령 각하를 중심으로 하는 유신체제를 확고하게 다질 것을 첫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안보란 따져보면 국난을 극복하는 활력과 행동의 총합으로 보장된다. 그 활력과 활동은 반드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힘껏 뭉침으로서만 힘차게 전진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고 훌륭한 지도자의 영도 아래 뭉친 체제나 사실이 없이 국난을 극복한 일은 별로 없다. 또 그런 나라가 융성 발전한 기록도 찾기 힘들다.

「윈스턴·처칠」수상을 받들어 뭉쳤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참극과 난국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아데나워」수상의 영도는 서독의 패전 참화를 속히 아물려 「라인」강의 기적을 생간했으며, 「드골」의 강력한 국가 지도는 고민하던 「프랑스」에 영광을 회복시켰다.

우리의 사실(史實)로도 신라 통일 위업과 임진왜란 극복의 중심으로 김 유신, 이 순신의 두 장군을 깊이 숭앙하고 있다.

구국의 대업이 가로놓인 오늘의 우리 현실 아래 이런 역사적 교훈을 결코 저버릴 수는 없다. 군대는 특히 그렇다.

그러므로 국군의 통수권자를 구심점으로 유신의 이념, 목적, 목표, 과업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체제와 진로를 우리 모두는 힘차게 보고 나가야 하겠다.

이런 국방력의 유무가 자고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였고, 그 강약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름 잡았다. 2차대전 후의 국제 권력 구조를 보아도 국방력이 으뜸간다고 할 수 있는 핵보유국가들의 위치나 발언권은 단연 우위에 있다.

국제 정치는 결코 한국의 입장을 우



나.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

독립국가의 생명은 국방력에 의존한다. 그 생명의 권위와 영원성은 국방력의 자주성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국방력의 자주성이란 이미 풀이한 것처럼 방위에 관한 판단과 결정을 자위로써 내리고 선택한 방법을 실행할만큼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리가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 평화공존, 현상유지, 긴장완화, 군사력 불행사를 내용으로 한 새 국제문제 해결 방식은 분명히 강대국들 사이의 용물이자 편의일 뿐, 약소국을 위한 안전체제로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결국 한국 문세는 한국인인 우리 손에 달렸을 따름이다. 전쟁이나 평화나 의 감림길은 오로지 우리 힘으로 저울

절되며, 나라의 통일 귀추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신념과 능력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그것들은 아직 미흡한 현실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새마을운동의 두번째 목표는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과 그 전진으로 집중케 되는 것이다.

나로부터 방위의 주체로 출발하는 것이 오늘날 절실한 우리 자주국방의 본바탕이다. 이것이 곧 주체의식이며, 자주성의 첫 요건을 이룬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그 구원을 믿으려는 자세는 그에 대한 배신이다. 주체의식은 보편적으로 능동성, 자발성, 수범성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며, 이는 왕성한 방위활동과 의지를 가동시킨다. 방위의지는 적의 위협과 자기의 방위 목적 및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투철한 국가관, 애국심과 충성심의 실감, 자기 역할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신애로운 협동성환의 감명에 의하여 굳어진다.

군대는 이런 방위의지의 기본 여건을 가장 훌륭히 간직함과 동시에 전국 마을에서 모여든 장정들의 조직적인 대집단이다. 따라서 방위의지를 전국적으로 이식하여 국민적 합의를 추진케 하는 중추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의 촉진과 더불어 우리의 자주국방은 자력의 면적을 넓히면서 우방

협력체제와의 공존을 존중하는 폭 넓은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한다. 군의 새마을운동은 이 자력의 확대를 위한 대내 대외적인 실천 분야를 널리 갖고 있다. 예컨대

① 건군 이념과 반공정신, 그리고 유신이념과 새마을정신을 함양하는 정신전력의 강화로부터

② 군대의 과학화와 실천적 교육 훈련을 통한 정예군의 육성

③ 예비군의 고도한 전력화

④ 방위산업의 육성

⑤ 겸소하고 경제적인 운영 관리

⑥ 주둔지와 인근 황폐지의 개간

⑦ 적영 농장경영 및 녹화사업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다. 군·민 일체화

군 새마을 사업은 군·관·민의 상호의존과 유대협력을 많은 분야에서 늘릴 수 있다. 민간 경제 부흥이나 지역 사회 개발에 군의 우수한 기술,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부대 주둔지 주변의 황무지 개간,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의 정작영농 추진이나 그 활동 보호 또는 지원으로 안정과 증산을 돕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륙지방의 오지(瘁地)와 취약지구나 멀리 낙도로까지 뻗치는 군의 대민지원은 범국민적인 새마을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민간과의 이런 유대관계 형성은 새마을사업 지원에서 처음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국군은 발족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민지원 사업과 군민간의 교류를 확장하면서 주민들의 두터운 대군(對軍)신뢰감을 획득하였다. 이는 국민의 군대로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자세이다. 국가 총력전의, 국민총력전의 형태로 발전한 현대적 국방개념이나 전쟁양상과도 부합되며 우리의 방위 대상인 북괴 공산집단의 이른바 혁명전쟁을 손쉽게 분쇄하는 요결이기도 하다.

공산침략자의 「혁명 전쟁」이란 대중획득을 위한 정치적 전략의 전개를 승리의 제1요건으로 삼고 있다. 즉 지역보다 민심을 장악하여 대중의 참여와 협조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는 상대방을 고립화시키면서 멸망으로 유도한다는 목표에서 온 것이며 그 지지획득에 실패하면 「혁명·전쟁」이란 실패하게 마련이다. 60년대 후반부터 북괴가 시도한 모든 대남 간접 침략 공세가 실패하고, 특히 68년에 대량 침투한 공비들이 완전히 섬멸당한 근원은 우리 민심의 높은 반공의식과 철저한 대군 협력에서 찾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 일체화를 위한 군의 대민 유대증진은 정규전, 비정규전을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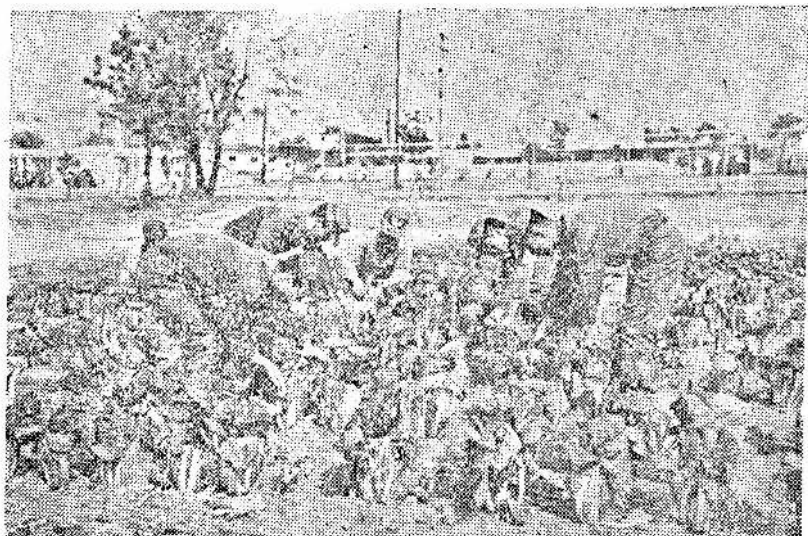
본하고 백전 백승을 기약하려는 당면 중요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민심을 사는 군대만이 능히 영원한 승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옛부터의 전훈(戰訓)이다. 군 새마을운동은 국군의 그런 체통을 더욱 빛낼 계기와 여건을 제시한 것이다.

4. 결 론

군대가 풀리는 땀은 정병을 육성한다. 전투력을 배양하며 군사 기술상의 숙련도를 높인다. 그것은 장병 개개인의 발전이나 부대 기능의 전진이며 자기 방위력의 위대한 증강을 이루게 된다. 여기 군면을 전장해야 할 철리(哲理)를 터득하게 된다.

자조하는 군대는 자기를 존중할 줄 알며, 힘의 권위를 스스로 창조한다. 좌절감이나 제념에 물리는 일이 없이 역량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도전과 시련에 과감히 대결하며, 자기 수호와 난관극복에 주체성을 발휘한다. 타(他)의 도움을 스스로 얻게 되며, 유비무환의 태세를 안락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

협동하는 군대는 꺾이질 않는다. 바다처럼 불어나는 일이나 흐터질 염려도 없다. 능히 공동운명적인 군대 일가를 형성하고 국민과 친척이 되며, 우방군과의 외척관계를 이루게 된다. 협동은



행동 성과를 배가하고, 힘의 위력을 계속적으로 자승(自乘)한다. 하나의 점(點)으로부터 선(線)을 잇고, 면(面)을 생산하는 마력이 그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 3대정신을 내걸고 지금 전군에서는 도도하게 진행되는 반국민적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 근대화물 위한 운동, 국력을 개발하며 봉치는 운동, 온 누리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운동으로 번졌다. 민족의 일대 발전 운동이자 약진운동인 것이다.

군인은 우선 이 운동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며 독자적으로 대대 사업으로 솔선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이 운동이

내외의 온갖 도전 요인을 물리치며, 나라와 겨레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고 민주적 통일 전망을 밝히는 10월유신의 햇불행진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군의 존재의의와 직결되며 그 이념이나 사명에 일치한 것이다.

이 운동은 또한 국력 배양의 가속화와 조직화를 지상목표로 하기 때문에 군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불어나는 국력은 국군과 온 국민이 갈망하는 자주국방 태세 및 총력안보 태세 확립의 대자본이자 전제를 이룬다. 나라의 장래를 보장하며, 적을 견제하는 지름길 또한 이 밖에 달리 없는 것이다.

국군은 자기 발전상 이 새마을운동과

국가 경제성장에 발맞추며 수행해야 할 많은 지표와 과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장비를 비롯하여 군사교리 등 방위력의 구조 요인은 너무 남에게 의존적이었다. 그 때문에 군사력의 운용이나 행사에 미치는 제한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자기다운 특성과 독립국가 군대로서의 면모를 더욱 빛내가야 할 형세는 이제 확실히 내외로부터 눈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줄여 말하면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이를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국군이 나 국민은 엄숙히 맞고 있는 것이다. 군의 새마을운동이든 민간의 새마을운동이든 그 성과는 이런 요청에 적응하는

훌륭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 즉 근면·자조·협동은 자주국방력 구축과 그 태세강화의 정신적 토양이자 거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신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행동화 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고, 극력배양이나 자주국방의 꿈은 필 수가 없다. 새마을운동이 「행동의 철학」이자 「실천의 도장」으로서 강조되는 원리에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먼저 군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하는 각자의 실행으로부터 시작된다.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우리의 사명감과 긍지로서 그 빛을 영원히 빛내게 하기 위하여 보다 합심 노력해야 하겠다.

◎ 한자음과 뜻 ◎

일반지보(一飯之報)…한번 밥을 얻어먹은 은혜에 대한 보답.

적은 은혜에 대한 보답.

운도시래(運到時來)…무슨 일을 이룰 운수와 시기가 한 때에 운

유주지탄(遺珠之歎)…마땅히 등용할 인재를 등용하지 못한 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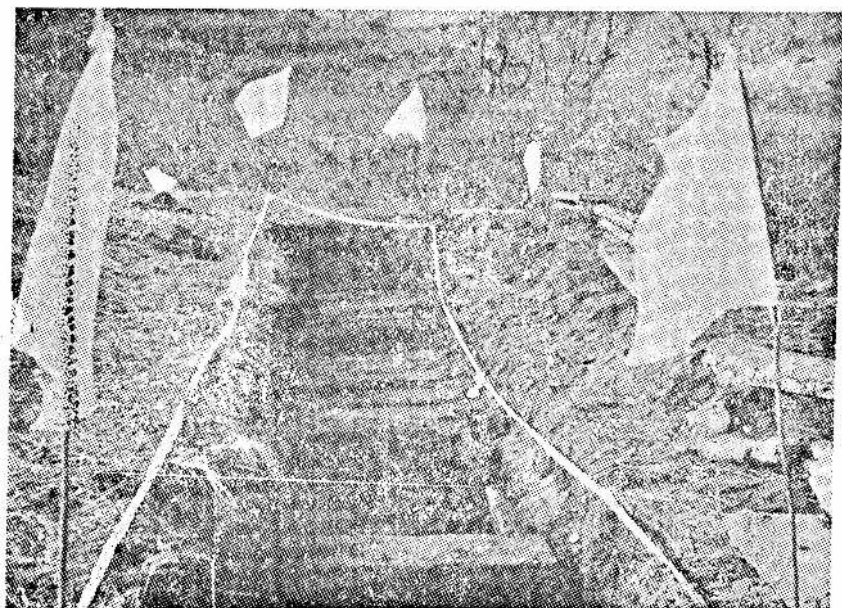
위재조석(危在朝夕)…아주 위험하여 하루 동안 지내기 어려운 형편

옥하사담(屋下私談)…쓸데없는 사사로운 이야기

남침해온땅굴

— 그 저의와 우리의 각오 —

편 집 실



■……영하의 휴전선에 동이 틀 무렵 21년 동안이나 인적이 끊겼던 관목 숲 사이에서 이상한 김이 새어 나왔다. 이 김은 북괴 군이 비무장지대를 불법적으로 요새화 하고 있다는 것을 고 발하는 것이었고 동족을 기만하려는 독소를 뿜고 있었다.

북괴는 최근 간첩의 직접 남파와 조총련을 통한 우회 침투 등 지하공작 계획이 실패되고 최근의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8·15저격사건 등으로 한국내의 극론 분열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 조성이 수포로 돌아가자 드디어 비무장지대 밑으로 땅굴을 파고 남침하려는 「두더지 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1. 땅굴의 첫 발견

74년 11월 15일 고량포 북방 비무장지대를 우리의 민사행정 경찰대가 순찰하고 있었다.

이 순찰은 휴전협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었다. 구 정섭 중사 외 8명의 순찰조가 한 지점에 이르자 땅 속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은 오전 7시 35분, 이상히 여긴 순찰조는 그 곳을 파기 시작했다.

땅을 한참 파내려 갔을 때 뜻밖에도 그곳에서는 북괴가 파내려온 땅굴이 발견되었다. 북괴의 땅굴이 발견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방 1,200m되는 곳이었다.

군사분계선 북쪽 비무장지대를 대남 공격기지화해 온 북괴가 휴전선에 동굴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아군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에 정밀수사를 해오던 끝에 드디어 발견한 것이다.

휴전협정에 따라 남북의 군대는 1953년 7월 27일, 당시의 전선을 군사 분계

선으로 하고 남북이 각각 2km씩 후퇴하여 4km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북쪽의 비무장 지대는 북괴측이 관할하고 남쪽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관할하게 하였다.

그런데 땅굴은 놀랍게도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200m나 넘어온 것이었다. 이 땅굴은 산 밑을 깊이 뚫은 곳도 있으며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계산한다면 그 길이는 약 3.5km로 추정되는 긴 「터널」인 것이다.

우리의 민정경찰대가 북괴가 파놓은 땅굴을 발견할 무렵 북괴군은 갑자기 3백여발의 자동화기 사격을 가해 왔다.

우리의 민경대도 안전을 위해 적절한 방어수단을 취함으로써 희생자는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괴가 왜 군사 분계선 남쪽에 있는 우리의 민경대에 사격을 가해 왔겠는가 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북괴는 그들의 남침행위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아 보려고 했던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괴의 저항을 물리치고 기어이 정체를 밝혀내고 말았다.

우리의 민정경찰대는 계속 그 곳에 머물러 수색 작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그 땅굴은 다음과 같은 것임이 밝혀졌다.

땅굴의 높이는 1m 22cm, 폭은 윗부분이 약 91cm, 밑 부분이 120cm로서 큰

규모의 것이었으며, 벽과 천정에는 「콘크리트」판의 기둥과 「슬라브」를 얹은 조립식 땅굴이었다.

2. 시간당 1개연대이상의 병력 남침 가능

도대체 이런 땅굴을 파서 복귀는 무엇인 하려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땅굴의 기술적인 의도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북괴가 파놓은 땅굴 속에는 「레일」이 깔려 있었고 궤도차를 자유로이 돌릴 수 있는 회차로(回車路)와 배수로까지 설치돼 있는 것이었다. 이 땅굴은 1시간에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을 침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속에 군대가 들어가 숨는다고 하면 약 1개 사단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레일」을 이용할 경우, 포신을 비롯한 각종 중화기를 운반할 수 있다.

이 땅굴은 수비용도 아니며, 탐색용도 아니다. 완전히 대량 공격을 위한 공격용 땅굴인 것이다.

제2의 6·25를 겨냥하는 괴수 김 일성의 남침야욕을 이 땅굴은 응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땅굴은 고랑포 북쪽 지점에 있다. 그런데 이 땅굴의 위치는 서울에서 52km지점 밖에 놓여 있다. 자 동차로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가

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땅굴이 천후, 기상, 지형, 하천 등과 관계 없이 항상 기습작전 수행이 가능한 병력 수송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서부전선상의 자연 장애인 임진강이 겨울에 결빙한다면 북괴군은 손쉽게 임진강을 건너 서울로 침공해 올 수 있음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이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전율(戰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괴가 땅굴을 판 것은 일시에 대량의 병력을 휴전선 후방에 침투시켜, 이른바 속전속결로 대한민국을 적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땅굴은

첫째, 전면전쟁을 일으킬 때 이곳을 통해 대량의 병력을 투입, 전방의 유리한 고지를 일시에 점령하여 우리의 방어태세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둘째, 약 8만명이나 되는 특수 「게릴라」부대를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침투시켜 우리의 수도권을 비롯한 후방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전개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이들 침투 병력에 대한 각종 장비와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땅굴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굴이 목적하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놈들이 내란을 조작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김 일성은 항상 말하기를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엔」이 북괴의 남침이 있더라도 간섭하지 말라는 음흉한 주장인 것이다.

이것은 물론 6·25를 일으켰던 김 일성이 「유엔」군의 반격으로 지리멸렬했던 쓰라린 경험 때문에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엔」 등의 집단안보체제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속셈인 것이다.

그런데 이 땅굴은 바로 김 일성의 소위 「민족 내부 문제」라는 엉터리 주장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이 땅굴을 이용하여 병력을 남파시켜 전쟁을 일으켜 놓고는 그것이 북괴군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한국군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이라고 선전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주한 「유엔」군이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일성이 북괴군을 침투시켜 놓고 한국에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의거라고 선전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1·21 사태 때도 그랬고 삼척, 울진 공비사건 때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시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사회질서가 혼란할 때에는 북괴군이 나와 총질을 해 놓고 한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해도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 질서의 안정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3. 요새화된 비무장지대

북괴가 군사분계선 북쪽 비무장 지대에 대대적인 공격기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1972년에 발표된 바와 같다.

북괴는 판문점에서 시작하여 금성(金城)에 이르는 80km 사이를 바로 군사분계선에 맞대어 철책을 쌓았다.

그뿐 아니라 북괴는 이곳에 225개의 진지를 만들고 「시멘트」로 요새화했으며, 야포와 박격포 그리고 방사포, 무반동총 등, 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었다. 북괴가 비무장지대 안에 끌어들이는 병력만 해도 사단 규모가 넘는다.

비무장 지대를 완전히 남침의 전초기지로 만든 것이다.

그래도 이 때에는 북괴의 행동은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북괴가 공공연히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남쪽 우리 땅 깊숙이 침략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괴는 다수의 초음속 전폭기와

공중으로 무장 공비를 침투시킬 때 쓰는 신행 수송기를 비롯하여 유도탄 장비, 정비정, 고성능 잠수함, 고속 어뢰정을 들여 왔고 「탱크」도 대량으로 새로이 들여왔다.

누구와 싸우자는 비행기며, 잠수함이겠는가?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80고령의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집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지 오래다.

이것들이 과연 평화를 위한 것이겠는가?

전쟁을 위한 것이겠는가?

휴전협정을 짓밟고, 또다시 제2의 6·25와 같은 침략전쟁을 감행하겠다는 김 일성의 흉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4. 노골적인 남침 폭언

민족반역자 김 일성의 남침 야욕이 어제 오늘에 와서 미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남북조절위원회의 평양측 공동위원장으로서 대화의 마당에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던 김 일성의 동생 김 영주가 73년 소위 8·28성명이라는 것으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을 때, 김 일성의 검은 뱃속은 이미 드러났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0월 초 북괴는 소위 「인민군 지휘관 및 정치 일꾼 열성

자 회의」라는 것을 열고 대한민국이 만일 저들의 적화통일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놈들은 영영 쓸어버려야 한다」고 열려했다.

그러나 북괴는 과연 10월 말경부터 서해 5개 도시의 해역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금년 2월 15일에는 이 부근에서 우리의 어선을 격침 나포해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 일성은 74년 3월 4일, 한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와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한국에서 용공혁명 또는 공산혁명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라 응당한 책임」이라고 망언했다.

북괴는 이 같은 김 일성의 지시에 따라 6월 28일에는 동해에서 우리 해양경비정을 격침시켰고, 7월 20일에는 군산 앞바다에까지 간첩선을 침투시켰다.

놈들은 드디어 8월 15일, 우리의 국가원수 박 정희 대통령 작하를 암살하려고까지 시도했다.

김 일성은 8·15암살 음모가 실패되자 조총련의 간부들을 적화혁명을 일으키는 길만이 통일의 길이라고 열려했다. 이 날이 74년 9월 24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방굴 속에는 벽에다 「9월 24일」 또는 「9월 26일」이라고 날짜를 표시한 것이 있었다. 그렇다면 김 일성이가 조총련 간부들에게 대

한민국의 적화혁명을 위해 총권기하라고 일러대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 땅굴을 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북괴는 겉으로는 「평화통일」 운운하면서 내면적으로 전쟁준비가 이미 완료된 단계에서 다만 남침의 구실과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5.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북괴의 끊임 없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성실하고도 참을성 있게 전개되어 왔다.

1971년 8월, 1천만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1972년 5월에는 우리측이 먼저 평양을 방문하여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성공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우리측이 「서로가 서로의 사회를 서로에게 완전히 개방하자」고 제의했으나, 그들은 군사문제에 우선적으로 다루자고 하면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미군의 철수만을 꾀했다.

작년 8월 28일 김 영주의 남북대화 중단선언 뒤에도 우리는 계속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에서 남북대화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하여 왔으나, 북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를 거부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북괴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6·23선언을 통해 북괴가 원한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제의했으나 북괴는 이를 거부했다.

또 우리가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을 맺어 이 땅에 전쟁을 막아내자고 했으나 북괴는 이것도 거부하였다.

우리의 이 모든 평화 제의를 거부한 북괴가 한 일은 무엇인가?

분 세광을 보내 박 대통령 각하를 암살하려 했고, 육 영수 여사를 서거케 했다.

그리고 이제는 땅굴을 파고 들어와 일거에 우리를 덮치려는 노골적인 침략 행위를 개시했다.

6. 우리의 힘은 국민총화

북괴의 침략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위험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발밑까지 땅굴을 파고 기어드는 눈앞의 위험인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동안 땀흘려 건설해 놓은 번영의 터전은 한줄의 재가 되어 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우리 사회가 사대적인 환상론으로 흥
화를 깨는 빈틈을 노정(露呈)하고 있을
때 북괴는 땅굴을 파고 군사분계선을 넘
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일시에
1개 연대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대
규모의 것으로……

생각하면 아찔하고 무서운 일이다. 더
구나 북괴는 침략을 해 놓고도 내란이
라고 우겨대려고 하는 흥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치가 떨리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괴의 남침을 막는
길은 오직 한 길, 국민총화 뿐이다.

박 대통령 각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는 「준전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전시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라의 모든 힘과 지혜를 국가안보에
종집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약할 줄도 아는 슬기
를 가져야만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씀
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7. 결 언

우리에게 남겨진 최대 최선의 길은
북괴의 어떤 무력 도발이나 간접침략도
단호히 분쇄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확립하는 것 뿐이다.

이 길은 또한 북괴의 망상을 견제하
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첩경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또 한번 이번 사건이 수도 서
울로부터 불과 1백여리 밖에 안 되는 전
방에서 일어난 일이며 일거에 대병력으
로 기습 남침할 수 있는 터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집요하고도 잔악한 북괴의
위협을 기필코 분쇄해야 할 것이다.

북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허
점만을 노리고 있다.

제2의 6·25를 획책하여 땅굴을 파고
있는 북괴의 이같은 행위는 일촉즉발의
위험성조착 예감케 한다.

그리므로 우리 장병들은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온 국민에 앞장서서 총화안
보 체제의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속 담 풀 이 ◎

○ 물고 차는 상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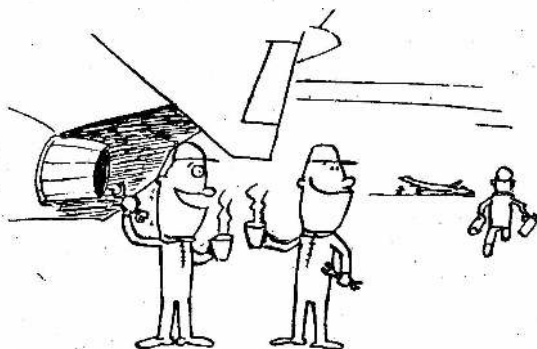
용기가 넘쳐 원기 왕성한 사람

○ 봉화불에 산적 굶기

일을 너무 서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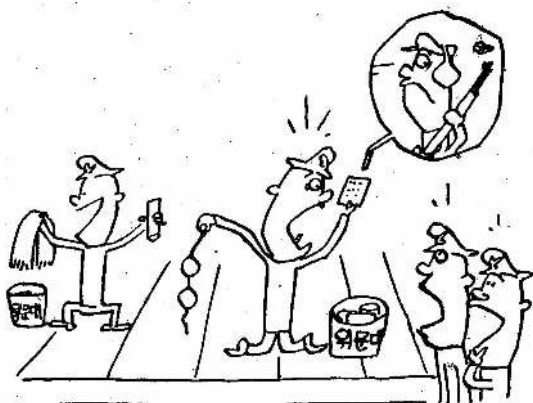
공·군·만·상

박진래



△ 라인의 모진 찬바람도 △

대대장님이 다녀가면 봄의 훈풍으로 변한단 말야!



△ 위대한 아이디어 △

추운데 근무하시는 아저씨의 귀막이로 참 좋은 것 같아
누나 모르게 위문대에 넣었어요.

공 · 군 · 만 · 상



△알만 해△

그저 여자 나이 닷이 되면 올드 미스의 칭호가 붙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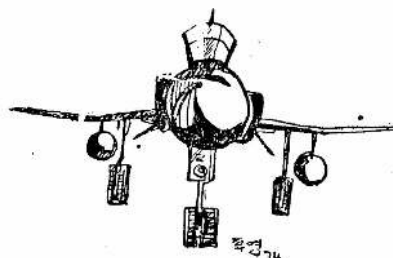


△이색 생일 축하△

우리 부대의 마스코트 토끼양의 열두해째에 처음 맞는 생일을 경축하며...

Northrop P-530 Cobra

— 유 순 근 역 —



◎ F-5의 후계기

P-530 Cobra는 현재 많은 나라들에
서 사용되고 있는 F-5의 후계기(後繼
機)로서 Northrop사(社)가 1960년대
후반부터 자비(自費)로 개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투기의 민간회사에 의한
자주(自主)개발은 지금까지 희귀한 일
이며, 또한 이 P-530은 F-5 이래 Nor-
throp사가 전지해 온 바 있는 소위 경
전투기의 사상(思想)에 속하는 점에서

미국식의 전투기 철학 중 전혀 특이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전투기인지 폭격기인지 알 수 없
는 “괴물” F-111, 지나치게도 다용도
에 강요된 F-14, 전투기의 원점으로 되
돌아온 제공용기(制空用機)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지극히 값이 비싼 F-15 등
가운데에서 본기(本機)는 분명히 성격
을 달리하고 있다.

F-15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겁을
먹고 있는 미공군 당국은 「양산(量產)을
전제로 하지 않는」이라고 주석(註釋)을
붙여 지금 한창 진행 중인 General
Dynamic사의 YF-16, Northrop사의
YF-17이라는 2가지의 경전투기의 개발
계획에도 본기는 작으나마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같은 Northrop사의 YF-17은
근본적으로는 본기와 거의 다름이 없는
기체인 것이다.

F-5의 후계기로서 Northrop사가생각해 낸 것은 그것을 MACH:2급으로 성능을 향상한 기체에 있다. 그래서 전투기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생각나는 제공, 근접지원, 저지, 요격 및 강행정찰(強行偵察)이라는 다섯 항목(項目)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제공용기로서의 능력에 중점을 주어, 여기에, 사용자측인 각국 공군의 사정에 적응시키 다른 네 가지의 기능을 적절히 부여할 수 있도록 기체를 계획하였다.

또 수출용기(輸出用機) 자체는 다른 나라라도 「라이선스(License)」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후진국도 사용하기 쉽도록 구조간소(構造簡素)로서 정비보수가 용이한 높은 신뢰성, 거기다 되도록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등이 있어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된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완성품을 사들이고 있는 후진국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Customer가 자국(自國)이더라도 생산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체를 몇 개 부분으로 쪼개서 그것들을 개개(個個)로 몇개의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소위 Package적인 설계를 했다.

이와같이 하여 개개의 Package에 대하여 각국의 기술자가 Northrop에서 1년 정도의 시험, 설계, 공작 등의 실지연구를 한 후, 자기 나라에 하청하여

생산에 종사하도록 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완성기의 공장도로 한 가격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와같은 Package 내(內)에서 많은 공수(工數)이거나 가격이 많아지는 것은 「엔진」과 전자장비로서 각각 25.2%와 24.8%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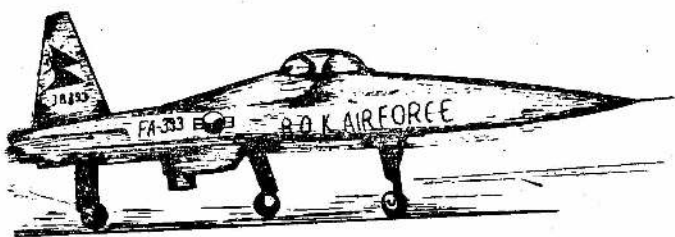
그 외에 주익(主翼)이나 전동(前胴) 후동(後胴)같은 것은 결국 5 내지 10% 정도의 비율로서 보잘것 없어 최종총조립(最終總組立)에의 경우 2.4%에 불과하다

◎ E-M성능의 향상

제공기(制空機)로서의 기능을 전면에 내어걸고 그것을 최종점시(最重點視)하는 이상은, P-530의 설계에 최대로 중시하여야 하는 것은 소위 E-M 성능을 어떻게 해서 크게 할 것이냐인 것이다.

E라는 것은 Energy, M은 Maneuverability라는 것으로서 요컨대 속도, 상승률 혹은 고도, 선회의 회두율(回頭率)과 같은 성능상의 상태치(狀態値)로 비행기가 어떻게 빨리 변환(變換)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체의 비(比) Energy의 급속증대나 Energy 상호간의 급속변환의 능력인 것이다. 익면하중(翼面荷重)이나 추력하중(推力荷重) 등의 크고 적은 것이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



<F-5 A/B Freedom Fighter(Northrop)>

고전적인 운동성의 개념에서는 익면하중이 낮은 것이 선회성을 높이는 절대조건이었다. 이 또한 상승성능에는 익면하중이 적은 것이 불가결하도록 된다. 그러나 이를 추구하자면 가속성의 효과가 눈앞에서 희생이 되어 버린다. 오히려 최대추력(最大推力)이 기체 총중량의 반 이하라고 할만큼 종래의 Jet 전투기에서는 익면하중이 큰 것이 가속성을 좋게 하는 것으로서 선회성능을 희생하여 이 편을 중시했다. F-104가 그 좋은 예이다.

물론 이것으로서는 직선가속(直線加速)은 좋게 되더라도 선회시의 커다란 각도에서는 큰 유도항력(誘導抗力) 때문에 말할 것 없이 성능의 저하가 두드러지게 되어버린다. 그러나 F-15나 「하리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최대추력이 기체중량을 상회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같이 추력하중(推力荷重)이 저감(低減)한 상태에서 익면하중의 낮음이 가속성을 감쇄하는 정도는 더없이

적어져서 거의 무영향에 가깝게 된다. 한편, 저익하중은 선회성능이나 상승률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

여기에서 Northrop사의 P-530 실제 Team은 속고하여 저익면하중(低翼面荷重)과 저추력하중(低推力荷重) —바꾸어 말하면 큰 추력중량비(推力重量比)—를 채택하였다.

P-530의 중량은 먼저 만들었던 F-5의 2배약(弱)이지만 익면적은 2배강(強)으로 익면하중은 F-5의 400kg/m^2 여(餘)로부터 300kg/m^2 이하로 대폭 저하됐다.

중량이 거의 같은 F-104에 비하여 보면 P-530의 익면적은 꼭 2배이다. 또 P-530의 2기(基)의 Engine의 After-burning 총추력은 분명하게 기체이륙 중중량을 상회한다.

비무장상태에서 실지 전투시의 중량 상태에서 추력중량비(推力重量比)는 F-154나 「하리아」에도 능가한다고 P-530의 설계자는 호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력하중(推力荷重)이 낮은

것, 퇴물이 말한다면 기체고유의 잉여 추력이 지극히 큰 것이 순항성능(巡航性能)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Jet항공기의 가장 좋은 순항상태는 CL 0.5/CD가 가장 크게 된 자세로 이루어지므로 종래의 전투기에서는 연료만 재시에 이러한 자세를 취하기는 곤란하여 아주 불경제의 비행이었던 것이다.

P-530은 중량상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이러한 가장 좋은 순항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최고의 경제성으로, 그리고 충분히 높은 순항속도로서 임무지점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이다.

◎ 30°의 후퇴각(後退角)

어떤 모양의 초음속전투기라도 높은 Mach의 속도에서 커다란 G가 미치면서 급격한 전투운동이 실시되는데 이 경우에 속도는 급격히 저하된다.

따라서 Top-Fighter적인 전투행동은 일반적으로 천음속(遷音速) 내지 높은 아음속(亞音速)의 속도역(速度域)에 한한다.

그래서 이런 속도영역에서는 대영지각(大迎之角)일 때에 큰 유도항력(誘導抗力)이 생기는 후퇴익(後退翼)이나 Δ -delta익(翼)은 대단히 불리하고 운동성을 현저히 해쳐서 속도를 급속히 저하

시키고 만다.

Northrop의 P-530설계자는 이와같은 경우, 양호한 운동성을 얻어내기 위하여는 후퇴각은 최대로 30°가 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이론을 본기에서 실천하였다.

후퇴각을 적은 수치(數値)로 그치게 한 대면적(大面積)으로 4% 남짓한 박익(薄翼)을 반영시킨 설계로 경량구조(輕量構造)에 기여케 함은 여기에서 성공하였다.

수출용의 판로나 가격을 고려하여서 「컴포지트(Composite)」재료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날개에 한하여 각부(各部)에 Composite재(材)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중량에서 30%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설계Team은 애석해 하고있다

주익전연(主翼前緣)으로부터 동체에 연(沿)해서 기수에 뻗쳐진 정형부(整形部), 영국같은데서 「스토레그」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부분은 본기가 Cobra라고 이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것에 높은 G의 대영지각(大迎之角) 운동시에 못쓰게 되지 않는 효과를 갖게 한다.

날카로운 후퇴각(後退角)에서 낮은 「아스펙트」비의 Delta익 모양의 이 부분의 양단(兩端)에서 생기는 강력한 와관(渦管)이 주익상면(主翼上面)의 기류를 고르게 하여 대영지각(大迎之角)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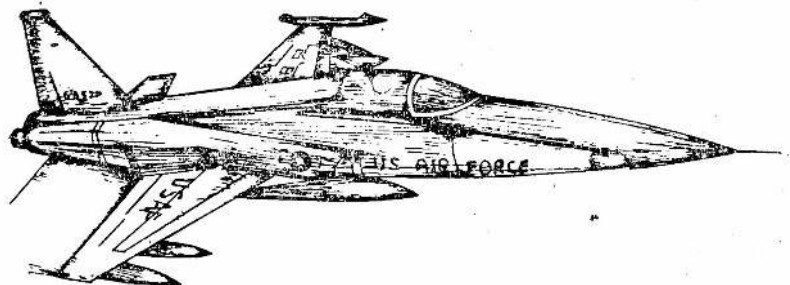
때에도 박리(剝離)되지 않는다는 말하자면 전연(前緣) 「소오갓트」나 경계층 격판(境界層隔板)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General Dynamie사(社)의 YF-16도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Cobra적(的)인 「스토레에그」는 겨우 이중류용도기(種類用途機)에 이제부터 유행이 될 것이다.

Northrop에서는 이와같은 익(翼)을

「하이부릿트」익(翼)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위에 주익(主翼)의 전연(前緣), 전익폭(全翼幅), 후연(後緣)에 이르러 나누어진 Slat와 Flap은 이착륙시에는 Pilot의 선택조작으로 작동되어서 공전시(空戰時)에는 Flap과 편익3편(片翼3片)의 Slat의 가운데 1편이 공전 Flap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자동식 공전 Flap이라 할지라도 구



<F-5E (Northrop)>

일본해군이 사용한 것과 같은 항상 최적위치(最適位置)를 구하고 포락선상(包絡線上)을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작동이 Air Data Computer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된다고 할 뿐이다.

이와같은 E~M 성능향상책의 추구에 의해서 본기(本機)의 선회율은 고도 4,500m Mach 0.8에서 최대 매초(毎秒) 1.3° 이른다고 하며, 또 고도 9천m 미만까지 Mach 0.8에서 매초 8°의 선회율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고 한다.

이것은 아음속기(亞音速機)의 F-86F보다도 훨씬 우수하여 운동성에 자만하고 있는 「프랑스」의 Mirage F에도 능가한다.

세계의 전투기계(戰鬪機界)에서 특출한 것이라고 해서 제공전투기의 본질을 훌륭히 살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기(敵機)에 대하여 사점(射點)을 점유(占位)하기에도, 적기나 Missile로부터 회피 이탈하기에도, E~M성능이 큰 것은 본기의 특색인 것이다.

「스토레그」의 효용

Northrop사가 부르는 「하이부릿트」익(翼), 결국 「스토레그」가 달린 주익(主翼)이나 공전 Flap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이 Cobra의 이름의 근본이 된 「스토레그」그 효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고속의 소영지각(小迎之角)일 때에는 이 부분은 거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나 대영지각(大迎之角)이나 커다란 G에 걸려 있으면서 운동시(運動時)에는, 이 부분에 생기는 와관(渦管)과 저압(低壓)에 의해서 주익상면기류(主翼上面氣流)의 박리(剝離)를 방지하는 기술(記述)의 작용을 제외하고 기체상면경계층의 유해한 이 동운동을 그치게 한다.

그 위에 이 와관(渦管)은 수직미익(垂直尾翼)의 대영지각(大迎之角)일 때에서의 효율저하가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이 부분과 사이에 끼어진 기수동체(機首胴體)에는 어느 정도 양력(揚力)을 만들어서 운동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우기 이 부분하면(部分下面)에서 기류가 정류(整流)되는데에는 후방에 위치한 공기흡입구에 양호한 기류상태를 가져오게 하여 Fan·Engine의 내부에서의 「디스토오션」의 염려는

본래 적어서 그런 「디스토오션」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스토레그」에는 기체가 초음속역(超音速域)으로 가속하였다, 아음속으로 감속하였다 하는 경우도 익(翼)의 공력중심(空力中心)의 대폭의 이동을 방지하여 「타코안타」 등의 현상이 생김이 없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

전익배치(肩翼配置)의 주익「스토레그」부(部)의 동체연결 부분의 뿌리(根)에는 상·하면에 관통하는 Slot가 달려 있다. 이것으로 정류(整流)와 맞붙어 「엔진」 공기흡입구에 유해 기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쓰여지고 있다.

「스토레그」상면(上面)의 부압부(負壓部)에 익하면(翼下面)으로부터 기류가 빨아들이는 작용에 연유하는 것이지만 흡입구 부근의 정류작용(整流作用)에는 소영지각(小迎之角)일 때에는 이 Slot와 흡입구 바로 앞의 「스브릿타」판(板)과도 거의 같은 정도의 효과를 올리고 있어서 대영지각(大迎之角)으로 되면 Slot의 쪽이 대개의 정류작용을 담당케 되는 것 같다.

◎ 특징있는 수직미익(垂直尾翼)

미익(尾翼)은 수평, 수직의 공(共)하

큰 면적, 큰 「아스펙트」비(比)의 것이 달려있다. 먼저 수평미익(水平尾翼)쪽은 말할 것도 없이 전동식(全動式)으로 2행구조(二桁構造)의 간소한 것이다.

그러나 F-15와 같이 좌우 벌개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되어 있지 않다. 좌우 차동(左右差動)의 수평미익은 YF-17이 채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주익후퇴각(主翼後退角)이 작고 보조익(補助翼)의 충분한 효력이 나타난 본기(本機)에서는 수평미익에도 횡조종(橫操縱)에 안 쓰면 안 되는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구조의 간소를 도모하는 데에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특징이 있는 것은 수직미익, 쌍수직미익(雙垂直尾翼)으로 하여 위쪽, 바깥쪽으로 상당히 경사(30°)져 있다. 이 미익배치(尾翼配置)는 MIG-25에 시작되어 F-14, F-15와 이 무렵 유행이 되었던 모양이지만 미익간(間)의 간섭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익효율(尾翼効率)의 극단적인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법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모양의 비행자세가 되어 기체 주위의 기류상태가 어떻게 되었더라도 이 2매(枚)의 수직미익층에 적어도 1매만은 양호한 기류의 가운데 스며들어 오도록 하여서 이 수법이 채용되도록 되었던 것이다.

P-530의 수직미익은 미익이나 방향타(方向舵)의 「모멘트암」을 크게 하기에 최적임이 확실하여 기체 후단(後端)에 위치하여 있지 않고 그것보다도 상당히 전진(前進)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이것으로서는 당연히 수직미익의 면적이 보다 커다란 것을 필요로 하여 불리한 것이므로 Northrop사의 설계진이 진실하게 거누는 표적(目標을 뜻함)은 「모멘트암」의 조금씩의 연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그의 단축의 물리를 참고 어느 모양의 비행상태에서도 효율의 격심한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수직미익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진진한 위치에 설치되면서도 P-530의 수직미익은 큰 면적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대단히 큰 「아스펙트」비의 것이므로 이에 의해서 극도의 대연지각(大迎之角)일 때에 있어서도 수직미익의 선단(先端)이 동체나 주익의 반류(伴流)의 원외(圈外)에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되는 것이다.

◎ 초점(焦点)을 좁힌 설계

Canopy도 특징이 있다. 오랜 옛일이 그리운 수직형(水滴型)의 돌출방풍(突出防風)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상항력(形狀抗力)에서 보아도 약간 불

리하게 여겨지는 이 형식을 특히 본기에서 부활시킨 것은 첫째로 Pilot의 시계개선 때문인 것이다.

보강용(補強用)의 창살이 없는 완전 투명의 이 Canopy와 함께 본기의 사출 좌석(射出座席)의 「레드레스트」에도 특별한 개량이 가해져서 Pilot의 두부(頭部)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自由度)는 많이 커져 있다.

본기의 심장인 「엔진」에 관하여는 쌍발형식으로 한 것이 Customer에게 호감을 주고 있다. 단발보다 쌍발쪽이 안전도가 높다는 생각은 지금 현재 Pilot 사이에 신앙처럼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Northrop사도 편협비행(片舷飛行)에 의한 항속능력이 유리한 것, 생활율이 높다는 것 등을 선전하는데 실수는 없다. YF-17에도 역시 동일한 「엔진」의 쌍발형식을 채용하였다.

본기의 YJ101-GE-100 「엔진」은 당초 후보에 올라 있던 「롤스로이스」 RB-109를 물리치고 1970년에 물망에 올라 겨우 선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개발도상의 「엔진」이었다.

본래는 B-1A 폭격기로서 개발 중의 F101-GE-100 Turbofan Engine을 축소한 것을 Core(核心)로 한 냉각용(冷却用)으로 극히 소량의 By-Pass

공기량(空氣量)을 갖는 것, 즉 순전회 Turbo Jet(A/B가 달리다)이다.

압축기 10단(段), 환상연소기(環狀燃燒器), 단축(單軸) 2단(段) Turbine으로 After-Burning추력(推力) 6,800kg을 내어서 주목되는 것은 압축비가 20:1 이상인 아주 높은 것이다.

이것은 P-530의 설계가 천음속이나 고아음속(高亞音速)에서 고성능으로 초점이 좁혀져 있음을 나타낸다. 고압축비 「엔진」은 초음속에 알맞지 않기 때문이다.

장비법(裝備法)도 매우 단순하여 공기흡입구는 간단한 Pitot형(型) 바로 앞에 유해기류(有害氣流)를 제거하는 「스프릿타」판(板)이 달려져 있을 뿐 가변형식(可變形式)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에서는 Mach 1.6 부근에서 Pressure Recovery가 나빠져서 이 속도역(速度域)에서 효율이 저하되는 것이 P-530의 특징인데 이는 간소하고 안가(安價)라는 점에서 일부러 이 방법을 채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 취약점은 값비싼 Radar

P-530에 장비되어 있는 화기관제 다용도 Radar는 겨우 F-86 이래 9종(種)의 제식전투기(制式戰鬪機)에 채용되었

던 실적을 가지고 「퓨우즈」사(社)가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요구되고 있는 기능도 단지 제공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기능도 같이 갖도록 기획하고 있는 본기의 성격에 부응(副應)해서 Target · Range (공대지 Mission), 전투기, Look-up(索敵), Look-down(對地)의 4항목의 다분야(多分野)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고가의 Radar가 실은 P-530판매상에서의 취약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LSI(Large Scale Integration)기술을 마음껏 쓴 이 Radar는 1 feet³당(當) 2천만개의 「콤보 오넨트」를 조립한 것으로서 F-14용의 3백만개, F-15용의 7백만개라는 것과 비교하여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Look · up · mode는 Wide-beam을 써서 50km 전방에 5m²의 목표물, 또 Look-down에서는 25km 전방에서 5m² 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성능, 중량과 함께 또 불확실 요소를 남긴 P-530이어서 근접지원 Mission에는 7개소의 Pylon에 합계 7,260kg까지가 탑재가능하며 최대 중량은 18,145kg 정도가 될 것으로 예견되며, 전투행동반경은 Mission에 의해서 물론 다르지만 대체로 근접지원에는 고도 1,700m에

서 2시간의 Loiter를 포함하여 150NM 제공 Mission에서는 350NM이 되는 모양이다.

양익(兩翼)에 증조(增槽)를 단 비행에서는 2,600NM의 Range가 된다. 이륙 성능이 좋지 않는 것과 저지용(沮止用)으로서의 행동반경의 부족 등이 전작(前作) F-5의 초기형(初期型)의 결점이었으므로 이 점은 펍 개선되었다.

◎ 강적(強敵)은 YF-16

궁극적으로는 본기의 판로이지만 미 공군은 본기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아서 국내 수요는 YF-17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후진국에의 MAP라고 하더라도 본기는 F-5 등 보다 훨씬 더 고가로서 복잡하다. F-5의 경신용(更新用)으로 가볍게 구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토」제국을 돌아본다면 캐나다에서는 문제가 없고, F-5 때와 같은 정도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유럽제국에서는 MRCA Panavia 200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 기체는 서독, 영국, 이태리의 항공기 Maker에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의 하나여서, 질적에서도 실용상에서도 훨씬 뛰어난 것이 된 급제(及第)의 이 P-530을 제발 사용해 달라고 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구입에는 MRCA 계획으로부터 탈락된 나라들이 상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란(和蘭)이 이미 현용(現用)의 F-104와 또한 F-5와의 경신용으로 채용을 거의 확정하고 있다.

「뉴웨이」도 대개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오스트랄리아」도 역시 상당한 관심을 본기에 쏟고 있다.

중근동(中近東)이나 AA 제국에서 보면, 여기에는 「프랑스」의 Mirage F라는 강적이 방해하고 있다. 모든 점에서 Mirage F는 본기에 비하여 열등하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안가(安價)이고 유지 경비가 적어야 하는 후진국의 입

장에서 생각하면 절대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P-530에는 Northrop사가 자신하는 가운데서는 「딜레마」같은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YF-17인 YF-17은 순진한 제공 전용의 것이다.

경전투기에서 P-530과는 전적으로 다른 설계라고 한다면,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기체로 보여진다.

그리고 YF-17에는 General Dynamics사의 YF-16이라는 강적이 있다.

YF-16이 채용되고 YF-17이 추방(追放)=폐기의 뜻임)되면 그것은 P-530의 평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인간과 인간성 ◎

사람에게는 네 가지가 있다. 무식하면서 무식함을 모르는 자는 바보니—그는 피하라. 무식하면서 무식함을 아는 자는 단순하니—그는 가르치라. 유식하면서 유식함을 모르는 자는 잠을 자니—그는 깨우라. 유식하면서 유식함을 아는 자는 현명하니—그는 따르라.

— 버튼 여사 —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진리이다. 인간 속에서 모든 자연이 이해되고, 모든 자연 속에서 인간만이 창조되었고, 모든 자연이 인간만을 위해 창조되었다. 인간은 모든 사물의 척도이며, 인간의 복지는 유일하고 단일한 진리의 기준이다.

— 토마스 만 —

항공

의료

업무



김 광 수

◇ 차 례 ◇

I. 총론

II. 비행의무 활동

1. 신체검사 및 적성관리
2. 공중근무 효율
3. 비행안전

III. 기지 보건관리

1. 역학
2. 환경 위생공학

3. 신체적성 및 정신건강

4. 보건교육
5. 연구 및 정보

IV. 산업의료 지원

1. 직업성 질환예방
2. 건강 작업환경 유지
3. 보건 및 안전지도 상담

V. 결론

I. 총론

항공의학이란 현대 군사항공기의 발달로 인간으로서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여러분야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금후의 항공기의 특성인 보다 고속, 보다 고공, 보다 긴 항속거리, 그리고 증가일로의 복잡성 등으로 복잡된

비행조건에 인간이 적응 조종할 수 있도록 인구 개발함으로써 인간이 우주여행을 가능케 하는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또한 항공의학은 한 전문적 의학의 분과로 비행시 인체보호에 요구되는 방법, 기술 및 기타 대책을 취급하는 임상 및 예방의학적 학문이며, 인간이 대기층을 벗어나 인간생존과 효율적 기능

에 필수적인 생리적 요구 및 조력이 전
무한 우주공간으로 탐험하는데 필요한
연구, 개발 및 실험에 있어 의학적 과
제가 확대됨에 따라 비행의학(Aviation
Medicine)에서 공간의학(Aerospace
Medicine) 또는 우주의학(Space Me-
dicine)으로 발전되어 왔다. 여러 과학
자들이 항공장비 및 항공운영 절차상의
난제를 탐구 개발함으로써 공중근무자

(Aircrew)들이 성공적으로 달성한 항
공학적 발전과 작전 개선에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항공의학에 종사하는 과
학자들은 또한 우주공간 비행시 수반되
는 가속도, 무중력, 열, 소음 및 진동,
억류감, 방사능 등의 부하(Stress)에
노출되는 인간의 안전과 효율을 개선하
도록 하는데 공극의 목적을 두고 연구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권의 항공의학적 주요고도

표 1

고도(km)	의의
2	지상의학 범위(Global Medicine)
3	생리권 한계(Physiological Zone)
4	저 산소증의 시작(Subcritical Hypoxia)
7	임계 저산소증(Critical Hypoxia)
15	대기성 무산소증(Atmospheric Anoxia, Functional Limit I)
20	체액비등(Ebullism, Armstrong Line, Functional Limit II)
25	밀폐선실(Necessity of Sealed Cabin, Functional Limit III)
60~80	기체역학적 항공한계(Von Karman Line)
100	대기권과 우주공간의 공식경계(Federation International Aeronautique, Geneva, 1964)
150~200	기계학적 효능 대기권의 한계(Kepler Regime)

따라서 항공의학의 발전에 의한 가치
있는 결실은 비행군의관에 의한 전문적
연구결과의 실지 이용평가에 좌우되는
것이며, 항공의학의 실천과 구현, 또한
일선 비행군의관의 모든 학술적 지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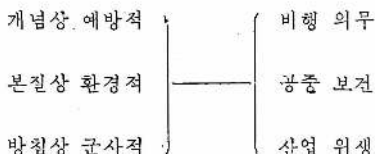
동원 노력하는데서 비로소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의 주목표는 공중근무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가능한 한
최상의 효율적 상태를 계속 유지토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 항공의료업무(Aerospace Medicine Program)의 범위는 비행이란 환경에 수반되는 의학적 고리 즉 비행의학(Flight Medicine) 외 공중군무자가 생활하며 임무수행하는 집단 즉 군조직 단위 전체에 대한 예방적 집단보건관리를

위한 공중의학(Community Medicine) 과 군사적 지원산업에 요구되는 위생관리의 방법인 산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 등 예방의학적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하며 공군작전 특수의 환경적 개념의 본질에 군사적 방침으로 예방적 실정이 필수적이다.

표 2

항공 의료 특성



이러한 요구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 시행계획은 특수한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며 능률적인 항공의료 업무 실천은 다음의 3대 기능에 집약되며 보편적이고도 특수한 지식을 근실히 적용함으로써 결실을 볼 수 있다. 3대 기능이란 비행의 무활동(Flight Medicine Program), 기지보건관리(Community Medicine Program) 및 산업의료지원(Occupational Medicine Program)이다. 즉 상기 3대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군 요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항공의료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군의관은 공중군무자와 그 소속부대 단위를 동시에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하에서 각 보조요원의 역할을 지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충분히 이용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항공의료 업무는 폭 넓게 착상되어야 하고 여러 전문적 분야에 걸친 학술적인 적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행군의관이 본 의료업무 수행을 통제하지만 임상전문의, 치의, 수의, 환경위생관, 항공생리 훈련관, 항공의료관, 예방의료관 등 기타 의료업무에 필요한 요원들의 노력도 전체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용될 기술과 장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후방지원 능력을 격려하고 감독함도 대

단히 중요한 것이다.

II. 비행의무 활동

비행의무활동은 공중군무에 따른 의학적 문제를 예견하고 인식하며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야기되는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강요하는 관점에서 공중군무자와 공중군부의 효율성과 관련된 광의의 범주를 열거하고, 이의 해결방법을 지적함에 가치가 있다.

표 3

비행의무 활동 요약

1. 공중군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의학검사 및 분류.
2. 공중군무자의 정신건강 및 신체적성 유지.
3. 비행안전을 위한 의학적 계몽 및 연구.
4. 공군요원 근무효율의 의학적 향상.
5. 비행에 의한 또는 승무원의 손상예방과 치료.
6. 항공기 및 관련장비 항공의학적 조언 및 개발.
7. 공중구출, 생환 및 환자공수에 관련된 의학적 책임.
8. 공중작전에 수반되는 비행부하에 대비한 보호.
9. 비행생리 및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지식 전파.
10. 항공관계 요원들의 근무에 대한 의학적 감독.

1. 신체검사 및 적성관리

본 활동은 공중군무자에 대한 최초 신체검사부터 시작되며 임무수행에 신체적으로 지능적 및 감정적으로 가장 적합한 요원을 선택하는데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제통적인 평가 및 재평가가 계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공중군무자 건강을 유지 내지 향상토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항공작전에 수반되는 비행안전 및 복지향상을 의도한

연구와 활동은 지상 및 공중환경에 관련된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중군무자의 의학적 신체 및 정신적 선발은 항공의학의 기본임무 중의 하나이며 이는 초음속 항공기와 확대되는 항공작전의 발전에 따라 더욱 더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다. 비행군의관의 공중군무자 선발에 대한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공중군무자에 필수적인 의학적 기준을 전문적으로 적용하는데 그

가지성이 좌우되며 최대의 혜택과 효율을 군복무와 개인을 동시에 확신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내용 또한 다양하여 통상적이든 특수검사이든 신체생리 면에서 인체계측, 임상검토, 생리기능 시험이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인성 및 동기부여도 측정, 지능 및 학력검토와 정신운동 활동 시험 등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질차에 있어서도 합격여부를 위한 집단선발검사 적성 판정을 위한 개인 정밀검사가 있으며 군사적 요구기준에 따른 합격기준과 적성등급의 설정이 학술적이면서도 이상과 현실의 조정이 극히 예민하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비행으로 야기된 이상 및 의학적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이 공중군무 자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정밀한 진단적 능력과 가장 최상의 의학적 판단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비행부하로 해서 급성 또는 만성으로 야기되며 때로는 만원인이 있을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정확히 판단되고 적절히 치료된 후 개인적인 공중 군무 자격을 고려한 의학적 적성자문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비행군의 관은 또한 부적합한 비행으로 야기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군무

자의 충분하고 적절한 행정적 처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진료, 개인적인 관찰 및 적합한 정기 신체검사의 시행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2. 공중군무효율(Aircrew Effectiveness)

가장 중요시하여야 할 문제점들은 비행의 위험 및 부하에 대한 공중 군무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서 야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복잡성은 현대 작전용 항공기의 군무자들에 부담되는 많은 위험과 부하를 생각하면 쉽게 인식되는 것이다. 고공에 처했을 때 위험은 저산소증, 저압증, 극심한 온도변화, 우주방사선, 그리고 시력장애들이라 하겠다. 고속비행은 각종 가속도, 즉 선가속도, 각가속도 및 원심 가속도의 작용과 극심한 고온의 발생으로 부담이 야기될 뿐 아니라 대단한 시력제한을 주는 것이다. 공중 군무자가 비행 중에 가끔 1의 항공기를 포기해야 할 때는 고속과 고공의 문제와 더불어 항공기로부터의 탈출에도 허다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피치 못할 비상착륙이나 착수시 충격적인 감속력에 의한 문제나 이러한 충격에서 개체의 보호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지형적 환경이나

주위상황의 조건하에서도 생활과 구조를 성공키 위하여서도 의학적인 문제가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그 외 다양하고 특수한 부담들이 공중군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즉 항공기 운영과 비재래식 전쟁상황과 관련되는 각종 독성물질에의 노출, 진동, 소음 및 초음속, 여러 형의 발사물에 의한 위험, 화재의 위험과 비행에

있어서의 감각 이상, 착각들을 유발하는 비행환경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활 및 탈출, 개인 보호장구의 훈련, 항공 생리훈련 및 공중 군무자의 항공의학 지식교육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비행군의관은 이러한 중요 업무 완동을 성공시키는 핵심 요원인 것이다.

표 4 공중군무자의 항공의학 교육 훈련 내용

1. 대기의 물리적 특성과 우주생리
2. 호흡생리 및 산소장구
3. 변압증 및 가압장치
4. 급격강압 및 저압실 훈련
5. 비행과 시력
6. 비행착각
7. 가속도 진동 및 충격생리
8. 비상탈출 및 생명과학
9. 항공독성물질
10. 항공영양 및 급식

다른 범주에 속하는 문제는 장기간의 신체적, 생리적 및 정신적인 부하의 영향에 의한 결과들로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들 문제해결의 노력으로 공중군무 장기 효율화 계획이 다각도로 분석 개선되고 있다.

첫째가 임무피로(Mission Fatigue)로서 한 가지 임무에 장기간 근무시 발

생하며 일시적인 근무능력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한 휴식으로서 곧 회복된다.

둘째가 흔히 말하는 비행피로(Flying Fatigue)로서 일정기간 동안에 지나치게 많은 비행시간에 의한 축적영향으로 비행의 민첩성 상실과 허탈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때로는 비특정적인 일상생활

의 부담으로 가중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로는 보통 상당기간의 연장된 휴식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다. 세제는 전투 또는 작전피로(Combat or Operational Fatigue)로서 공중군무자는 전투비행의 부하에 노출된 결과로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이는 중대한 비행임무, 비이상적인 생활환경, 가족격리, 중단 혹은 변경된 비행계획 그리고 능숙한 비행을 해야 하겠다는 강박감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행 군의관은 세밀한 관찰, 감독 및 특수치료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이보다 더 열성적이고 긴밀한 개인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때는 없다 하겠다. 모든 공중 군무자의 고도의 신체적성을 유지키 위해서도 비행군의관은 특별히 경주되어야 하며 일정한 신체적성 향상방안(예: 공군의 요기운동)에 의한 비행군의관의 조력이 군조직의 근무효율에 무한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저다. 영양학적인 문제도 자주 야기되는데 공중 군무자의 비행 중 충분한 급식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통상 섭생계몽, 식단작성, 급식위생에 관하여서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흔히 비행 군의관과 급식요원간의 효율적인 조직활동으로 해결된다.

3. 비행안전(Flying Safety)

비행안전에 있어서의 의학적인 관심은 중요하며 비상착륙 처리절차 및 대량 환자 구호활동에는 적절한 계획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 항공기 사고의 조사 분석에 있어서 첫째로 비행안전 연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조사 분석에 있어서의 비행 군의관의 역할은 사고원인 중 인적요소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비행안전 실천 계획에도 비행 군의관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요구된다. 항공기 및 부수장비에 관련된 문제들이 전투효율이란 관점에서 비행 군의관의 관심사로서 제반 문제들을 인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비행군의관은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실지 체험적 비행관찰이 필요하다. 더우기 비행군의관은 항공기와 이의 장비설계시 안전성, 안락성, 완전성 및 효율성을 고려토록 정신과학적, 생리학적, 그리고 해부학적인 전문적 조언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함에는 비행 군의관은 해결과 미결을 뚜렷이 하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불만족 보고(Unsatisfactory Report)" "작전장해 보고(Operational Hazard Report)"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속한 반응이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동시에 적당한 연구기관에 특별한 관찰사항을 보고하여 끝내는 귀중한 발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중 근무자에 관련된 여러 범주의 문제와 이의 예방 및 해결방법의 인식과 적용이 공중근무자 근무효율을 지향하는 비행의무 활동의 특징이며 이러한 활동이 작전 지원업무에 있어서의 비행 군의관의 좋은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완수키 위한 필수적인 전문적 지식인 항공(우주)의학은 또한 기지보전관리 및 산업의료 지원에 관하여도 연구되어야 한다.

Ⅲ. 기지 보건관리

공군의 기지 보건관리는 산업의료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임상 및 예방의학적 개념과 실천으로 공군 장병 및 근무요원과 장병 가족의 건강의 향상, 보호 및 개선을 이룩하고 질병과 손상에 의한 유희율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합목적적인 모든 활동과 방법이 계획, 통제되고 협조하에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항공 의료 업무의 일부로서 일차적인 책임은 의무요원 즉 비행 군의관에 있으며 담당요원 뿐만 아니라 이런 효율적 계획에 관여하는 타분야 요원들 즉 각 단위집단 보건관리관(예: 대대보건장교)을 교육 감독하

여야 한다.

물론 예방의료관이 기지보전 관리 활동의 계획 수행 및 평가에 절대로 도와야 하지만 임상전문의(예: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치무관, 수의관, 간호원, 의정장교 기타 의무기술 요원의 조력을 청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기지 보건관리를 위하여는 광범위한 활동 분야가 포함된다(표 5).

1. 역학(Epidemiology)

이는 모든 질환의 빈도 및 분포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와 조건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의학의 한 분야로서 현대의 의학적 기술과 방법은 급성 및 만성질환, 사고와 손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질병이나 전염에 대한 조사는 질환의 확대 및 전파에 관계하는 삼대 요소인 전염원, 전염경로, 감염성 개체 또는 집단에 관한 관찰과 자료에 기초하며 발생빈도 및 경향과 지역적 분포 및 고려사항 등 역학적 통계이용은 보건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므로 군집단의 공중 보건관리를 위하여 역학상의 용어 및 기술의 적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역학적 주요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건행정(Public Health Administration) :

1) 의학적인 유희원인의 통제 및

표 5

질병의 자연사와 예방

요인		사망	
		결손+불구	
		임상증세	
조기		회손	
일 차 예 방		이 차 예 방	삼 차 예 방
건강증진	특별보호	사례 발굴 조치	불 구 역 제 재활 및 재교육 제한 고용
보건교육	면역접종	집단 검진 선택 검사	
영양개선	개인위생	조기진단 및 즉각치료	
가옥개량	환경위생	1. 치유 및 진행방지	
오락시설		2. 전염병 예방	
작업환경	산재통제	3. 합병증 결손 및 불구예방	
개성개발	사고예방	4. 이환기간 단축	
결혼상담			
성 교육	특수자양		
정기검사			

제거를 위한 계획의 작성 및 감독.

2) 손상 및 질병의 예방을 지향한 의학적 및 공학적 활동의 협조.

3) 의무통제, 기록 및 보고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요원의 건강평가.

4) 기지 보건관리활동에 관심있고 책임있는 군 및 민간 보건기구와의 협동

5) 일반 및 특수 보건관리계획에 관한 정책, 방침의 해석 및 적용.

6) 기지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물자의 준비 및 확보.

나. 전염병 통제(Communicable & Preventive Disease Control) :

1) 전염성 질환의 발생률 및 전염율에 관한 통계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질병발생의 역학적 조사와 통제 예방을 위한 적절한 행동의 개시.

3) 개인 및 집단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과 방침에 의한 면역계획의 실천 감독.

다. 손상 예방(Accident & Injury Prevention) :

1) 지상 및 작업사고에 의한 손상의 원인 조사 분석.

2) 사고 및 손상에 대한 의학적 사항의 조언.

3) 장비의 사용, 근무요원의 신체 조건과 안전을 도모하는 조건 및 실천에 관련된 의학적 면에서 운동 및 복지 담당관과의 소통유지.

2. 환경위생공학(Rio-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위생 공학이란 인간환경간 규제에 대한 공학의 적용으로써 한국 공군에도 개발되어야 할 분야로 수질오염, 공기오염, 강도소음, 이온방사능, 독성 화학물에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한 사례가 탐지되고 자세한 조사에 의한 위험 기준의 평가 및 통제체계의 계획의 수립 실천 고리고 시설물의 건축 및 변경에 관련된 계획의 검토 등 환경오염규제 활동들이다.

환경 위생 공학관은 모든 환경적 요소에 공학적 원리를 적용 평가하며 환경적 부하가 건강의 향상과 보호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게 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기능 및 임무를

약술할 수 있다.

1) 공군 의무 지원 활동인 공중보건, 비행의무 및 산업위생에 공학적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군의관을 조력 권고.

2) 환경유해, 통제방법, 인간적응과 효율의 향상책에 대한 지휘관 참모 및 운영관에 대한 위생 공학적 자문.

3) 작업환경에 있어서 독성화학물, 소음 및 진동, 방사능 및 조명, 온도 압력의 이상을 포함한 잠재적 건강 유해조건의 발견, 측정 및 평가조사.

4) 오락 및 생활공동시설(예:가옥, 수영장, 상수도 및 오물처리 등)의 환경공학적 조사시행.

5) 환경유해 방지와 인간효율 향상을 위한 개발과 설계.

6) 오염제거, 보호장구, 유해탐지 수단 및 위생적 작업조건에 관한 조언.

7) 지상, 항공기, 유도탄 및 핵사고 조사에 협조.

8) 질병발생에 대한 역학적 평가에 참여.

9) 건설당국의 의무연락 역할로서 건설계획 및 설계의 건강영향에 관한 검토, 위생시설, 환기, 조명, 난방 방장치 및 보호대책의 보건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건설계획위원회의 의무 대표.

10) 화생방전에 대비한 환경면에 있어서 위생공학적 자문역할.

11) 기술지시서 등 각종 지시문에 있어서의 건강 주의사항 및 보호수단에 대한 충분성의 확인 검토.

가. 환경오염통제(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 인간이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에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이며 국내에서 이를 위한 방안수립이 적극적인 바 오염방지에 관련된 타기관과의 협조로 공군요원의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과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 연구활동이 요구된다.

나. 집단환경 위생관리(Community Environmental Control) : 공군요원의 건강은 광범위한 위생적 처리 즉 안전한 수도시설, 적당한 오물처리, 해충 및 서류구제, 식품위생과 충분하고 안락한 내부환경에 의존될뿐 아니라 강병가족의 생활권이 군시설과 밀접 내지 동일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방의무담당관은 때로는 환경위생관리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조, 감독, 조사,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수적인 업무에 대한 의학적 관심의 필요성은 부적합한 보건수준으로 인한 비위생적 조건에서 야기되는 전염병 발생 위

험이란 관점에서는 자명하다.

다. 화생방 : 방어(Nuclear, Biological & Chemical Defence) :

각 기지는 자체 방위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화생방 공격에 의한 재난 통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물론 의무지원은 화생방전에 의한 손상 및 질환의 예방, 탐지 및 평가를 위한 방침의 설정, 계획의 편찬과 의무사항의 협조 등이 기지보건 관리업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각종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훈련은 기지내 전군요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체적성 및 정신건강(Physical Fitness & Mental Health) :

체력단련방안은 공군요원 신체적성을 이상적 상태로 유지하고 가족보건향상에 필수적이며 이 방안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기술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신체단련 방안은 경쟁적인 운동의 형태로, 오락적 활동에서, 지침에 따른 개인훈련과정 그리고 이상체중 유지를 위한 체중 조절책 등으로서 성공된다.

특히 과다 체중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환기되어 체중조절 처방에 따른 실천 감독과 개인적 적용 방법을 모색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공군 요원의 동기 부여도와 사

기는 가장 고조된 수준으로 향진시키고 보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에 관한 것과 더불어 정보수집, 연구개발에 의한 교육 계몽이 절실하다. 군집단의 신체적성과 정신 건강의 평가는 보건 관리상 여러가지 좋은 상태와 나쁜 영향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바, 비만증, 중독증, 기피증, 사고 및 성병 발생의 경향은 신체 정신건강 치료에 관한 한 심각한 사실들이다.

4. 보건교육(Health Education):

기저 보건관리 및 산업의료지원 업무 중 중요한 활동으로서 보다 좋은 건강의 향상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인식 및 태도를 개선토록 하는 기저전체의 공중보건 교육활동이 계획되고 전개되어 시행됨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의무지원의 보조수단으로서 개인, 가족 및 집단의 건강의 향상과 보호를 위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모든 기술과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이 활동은 비행안전회의상에서 토론, 가정통신의 전파, 초빙강사에 의한 계몽, 공보를 위한 정보제공, 일반집회의 앞선(적십자사) 등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요원과 단위부서와의 빈번한 접촉이 교육의 기회를 쉽게 한다.

더우기 모든 보건활동의 평가 및 협

동이 교육 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 교육에는 필요로 하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즉 영화, 소책자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가족진료소를 통한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과 취학 학생을 위한 학교 보건의 계몽 관여가 필수적이다.

5. 연구 및 정보(Research & Intelligence):

유휴병력의 원인과 상해 및 질병의 제거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 조사의 계획, 의료감독 및 성취는 기저보건 관리 업무가 구현하는 의의있고 적절하고 가치있는 연구로 기저에 있는 열성적이고 호기심 있는 군의관이나 위생관에 의해서 자극 시작되다가 이루어진다. 또한 특히 전시에는 필요한 의무정보사항을 얻음이 또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비행군의관의 임무이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획득하여 필요한 지식을 정리함으로써 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V. 산업의료 지원

새로운 공업, 특히 화학, 전자 및 기계분야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발달하는 산업의 다분화에 수반된 환경 오염의 통제란 문제는 이런 과학문명의 첨단을 개척하는 공군에서는 중대한 해결

의 과제로, 공군작전에서 발생되는 잠재적인 건강위험으로부터 기지내 요원 및 집단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필수적으로 예방 의학적 방법이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적은 공군시설이라도 산업의 분업작업이 있는 바 실제적 또는 잠정적 유해의 성상 그리고 의학

적 또는 공학적 통제의 필요성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우수한 판단이 필수적이며 의무의 목표는 인원, 물자 및 자료의 최소한 손실이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완수하는데 조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계획의 바람직한 산물은 보다 좋은 작업조건, 건강,

표 6

산업의료 지원의 효력

문	제	감 소 (%)
보	상	50
재	고	30~40
결	근	30~40
사	고	45
직	업	63
낭	비	80

사기 및 작업의 생산성이 공군 및 그 요원에 공히 유익하여야 함이다 표(6).

비행군의관은 공군기지 산업보건 탐구에 가장 적합한 요원이며 작업장 및 비행선에 존재하는 통상 독성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비행중 독성물질에 관한 문제도 쉽게 평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군의 산업의료지원원은 공군 요원들을 작업환경에서 오는 직업적 건강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요원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고려한 능률적이며 위험

성 없는 근무배당을 조치하는데 조력하여 요원의 건강보지를 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공군은 군 및 민간요원의 직업성 건강위험(Occupational Health Hazards)의 노출에서 충분한 보호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작업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 또는 손상 즉 직업병 또는 직업손상(Occupational Illness or Injury)이 이완된 요원에 대해서 외래 및 입원가

료가 법률 및 규정이 정하는 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1. 직업성 질환 예방(Control of Occupational Disease)

입대 또는 채용전 배속 그리고 정기 신체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절차 및 기준은 규정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이나 양식에 의거한 기입, 보관 및 정보 제공은 요원의 배치 및 효율적 운영에 중요한 고려요소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원의 건강유지와 손상 및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보상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인 것이며 이에 의학적 전문적 지식의 적극적인 개발과 참여가 요구된다.

산업재해의 용어 사용에 주의할 요하는 바 유해 물질로 야기된 조건의 진단에 있어서 경험이 적으면 독성물질 취급작업의 병역만으로 단순히 직업성 질환이라 오진한 수 있는 바 이런 서둘러진 진단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타 임상분야와 같이 원인에 대한 정보, 즉 독물학의 지식이 진단상 도움이 큰 바, 필요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옳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오진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바 한번 기록된 오진은 불공평한 보상의 사례가 되고 때로는 보상정신병(신경증)

까지 유발함으로 정확한 자료와 신중한 검토에 따른 규약에 의한 진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직업성 질환의 진단 기준의 일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노출된 물질이 반드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증상발현까지 허용량 및 시간 한계를 넘은 타당한 노출시간이 있어야 한다.

다. 타 원인에 의한 것이 감별 진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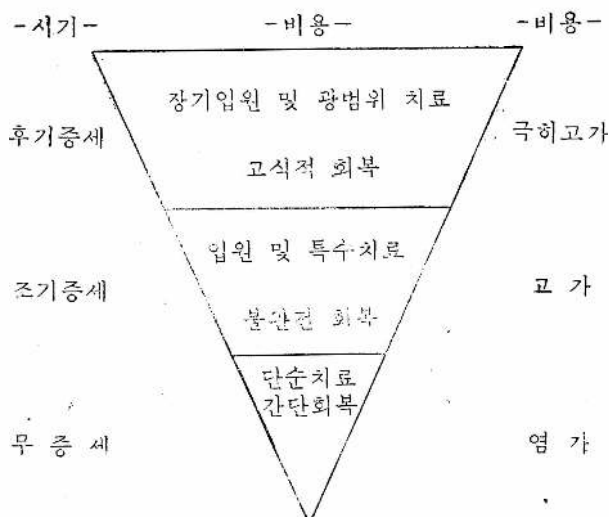
따라서 타 임상전문 분야와 같이 산업의학에서도 체계적인 자료과정의 형성이 재강조되어야 한다. 직업성 질환 및 손상에 대한 진단 및 가료는 규정에 따라 최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실천되어야 하며 비직업성 질환 및 손상은 산업의 로지원의 대상은 아니나 요원의 신분 및 규정지시에 따라 가료될 것이나 최소한 응급처치와 해당 의료시설에서 가료되기까지의 증상요법 등은 취해져야 한다.

직업성 유해에 대한 과다 노출에 의한 질환 및 손상에 대한 치료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바 근무 요원들은 응급처치 안전수칙 즉

- (1) 노출의 즉각제거
- (2) 자가 및 구명조치
- (3) 의무요원의 호출을 준수할 것,

표 7

산업의학의 예방가치



이며 의무 요원은 발생시간, 손상정도, 노출기간 등 가장 정확한 병력을 기록 유지함으로써 보다 개발된 의료혜택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수진을 청한 근무자에게 소극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로 현증이 없다 해서 급성 노출된 자를 "이상 없음" 식으로 가려 조치함은 근무자의 희생을 예방할 수 없다. 노출 후 잠복기간 등 병이론적인 지식이 동원되어 성실하고 집착된 진료 태도를 가져야 한다(표 7).

2. 건강 작업환경 유지(Maintenance of Health Work Environment)

산업독성물질 및 물리적 유해의 통제는 건전한 과학적 기반 위에서 건강 유해를 예견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의 복합된 노력에 좌우되며 허용한계치(Threshold Limit Values; TLVS)를 설정하고 이 허용 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근무 요원이나 인근 주민의 노출을 규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유해물질이나 공정폐물의 대기 및 생물학적 농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공학적 통제수단을 지닌 기구의 상설이 요구되며 보통 군기구에는 비행군의관, 환경위생, 공학관 및 지상안전관들이 포함되어야 한

다. 산업 위생에 경험이 풍부한 요원이 근무 요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 구역의 주기적 조사가 시행되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건강유해를 탐지하고 감정하기 위한 작업환경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조사와 감정은 공정과 물자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서 작업환경의 건강조건 및 영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 및 정보는 예방과 시정방안에 대한 적절한 추천의 기초역할을 할 것이다.

가. 허용한계치의 개념 (Concept of Threshold Limit Value) :

인체건강을 해치는 대부분의 산업자재는 화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노출된 근무자에게 잠재적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작용물의 농도를 결정하는데 여러 개인 및 정부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 연구 노력하고 있으며 허용 한계치는 일차적으로 시간기준, 평균농도에 기초를 둔 바, 전형적인 근무자가 주 5일간 1일 8시간 노출로 그의 생산적 생활에 건강상 장애를 초래치 않는 한도를 말한다. 작용물간의 독성은 각각의 허용 한계치의 수치로서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만성독성을 주는 요인은 그 치가 상당히 낮고, 급성독성시는 높다 하나 인체 유해도는 각 작

용제의 허용 한계치는 문제 아니다.

허용 한계치를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각 물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서 고려되어야 한다.

- 1) 증기압과 농도
- 2) 용해도
- 3) 입자크기
- 4) 흡수방법
- 5) 급성영향
- 6) 만성영향
- 7) 대사 및 배설기전

산업의료지원을 수행할 때 실험실 검사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성음성”의 결과나 오염된 가검물의 검사결과에 신뢰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검물의 오염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양성”결과에 대한 재검사 확인이 필요하다. 공군내 검사능력으로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근무요원의 생리이상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 근무자의 생리이상성이 독성의 지시제가 될 수 없으며 적절한 환경의 가검물 검사의 추적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화학구조식에 기초한 독성의 결정은 불확실한 것이며 경험상 구조식이 독성이 있다고 사료된 것이 유해치 않고 도리어 무해하다고 한 것이 심한 증상을 나타낼 경우가 있다. 의학적 문헌상 전문

적 가치 및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바 산업의학 분야에서 극히 과학적인 업적이 있는가 하면 한편 신빙할 수 없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문헌 이용시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공군작업과 노출(Exposure to Air Force Operations) :

공군 전 노력의 대부분이 공군활동을 위한 지상지원에 소모되며 공군 운영에 사용하던 독성물질은 50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독성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되어야 하는 바 공군 작업중 야기되기 쉬운 건강유해 통제를 위하여 작업 환경조사가 잠재적인 위험요소의 양적 측정의 지속적 추적으로 추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기술지시서가 작업 과정상 군사적 특성이 고려된 안전과 건강사항을 기술하고 작업중 유해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있어 또한 가치가 있다.

산업위생 진단조사는 훈련된 전문요원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신빙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충분히 훈련되지 못하면 기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오류를 범할 결과와 터무니 없는 해석을 야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의된 정확한 공학적 통제방법이 불충분하든가 지나칠 수가 있어 모든 대기 또는 생물학적 조사결과는 효율적인 규제

방법에 대한 철저한 해석이 요구된다.

3. 보건 및 안전지도 상담(Health & Safety Counseling)

산업보건요원은 개인위생과 건강유지에 대해서 근무자를 교육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건교육의 가장 좋은 기회는 근무자가 의료시설을 방문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보건교육은 안전교육과 적절히 동행해야 하며 따라서 산업보건요원과 안전요원은 근무자에 적절한 보건 및 안전지식을 전달하는 근무자가 속해 있는 감독요원과 협동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교육은 청결, 정돈 및 안전의 습관을 권장하고, 안전작업법, 유용한 보호와 장비의 사용 및 유지, 이용할 보건기구 및 시설의 활용을 가르쳐야 한다. 보건교육은 소속장이 자신의 신중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부하근무자의 건강에 있다고 설명이 되고 부하근무자가 보건교육활동의 계획 및 실천에 참여되도록 권장될 때 가장 효율적이라 하겠다.

V. 결 론

항공의학의 개발에 수반된 군 항공의료업무에 관하여 원칙적인 사항을 요약하고 공군 의무지원의 특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본 항공 의료업무는 환경적인 본질을 지닌 비행의무활동, 예

방적 개념의 기지보건관리와 군사적 지향인 산업의료지원의 3대업무로 구성되어 실지 광범위한 과학적 착상에서 상호 연관된 계획을 수립하고, 전과목적 의학적 지시 즉 임상, 기초 및 각 전문분야를 동원 활용한 꾸준하고 철저한 노력의 실천으로서만이 본 항공의학이란 젊은 학문의 가치가 빛나며 발전하

고, 종사하며 연구하는 공군 의무요원의 중추인 비행군외관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본 항공의료업무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비행환경과 인체생리, 신체적성과 임상의학, 그리고 집단보건과 산업의학의 범주로 후술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Randel, H.W. : Aerospace Medicine (2nd Ed.)

Williams & Wilkins Co, Baltimore. 1971.

AFM 161-1 : Elight Surgeor's Manual, USAF. 1962.

AFM 161-2 : Conducting Aerospace Medicine Program, USAF. 1962.

AFM 160-5 : Physiological Technician's Training Manual, USAF. 1969.

AFM 160-25 : Prenentive Medicine and Occupational Health Program, USAF. 1957.

AFP 161-16 : Physiology of Flight, USAF. 1968.

AFP 161-18 : Flight Surgeon's Guide USAF. 1968.

ST 1-105-8 : Army, Flight Surgeon's Manual, USA. 1970.



2차대전 전의 항공발전

<1>

심 사 수

차 례

1. 서 론
2. 「베르사이유」체제의 붕괴
 - 가. 정치적 원인
 - 나. 군비조항의 무효화
 - 다. 배상조항의 무효화
 - 라. 경제공황의 영향
3. 독일의 비밀군비와 공군력의 성장



1. 서 론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은 독일·폴란드 불가침조약(1934년 1월)을 무시하고,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중탱크부대(관짜) 6개 사단을 포함한 지상군 60개 사단은 1,400대의 항공기의 지원 아래, 면적 38만 평방킬로미터의 폴란드를 1개월 미만에 석권해버리고 말았다.

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하여 단 한 대의 군용 항공기조차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

었던 것이다. 이러한 독일이 베르사이유조약의 제약 하에서 불과 20년 만에 4,000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독일의 재군비 과정은 흥미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흔히 독일의 군사적 발전을 그들의 「비밀」 군비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베르사이유조약체제 하에서 독일의 군사력, 특히 그 공군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다각적인 국제적 상황에다 놓고 고찰해 보려고 한

다. 또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공군을 무력화시키고 유럽의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미국 공군이 대전의 중간기에 있어서 여하히 발전해 나왔는가 함도 아울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기초작업 위에서만이 비로소 2차대전의 항공작전을 원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서장을 엮어 보기로 하였다.

2. 「베르사이유」체제의 붕괴

가. 정치적 원인

베르사이유조약 체제는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여 그 조약에서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파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그것이 체결되던 당초부터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1차대전의 승전국들, 특히 미·영·불 3대 강국이 각각 독일에 대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각국의 정책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조약파기의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독일이 비밀리에 군비확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베르사이유조약 체제는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 그 이유를 든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산주의 소련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중심부를 차지한 독일이 결코 문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영국의 정책이며, 둘째는 1929년부터 시작되어 1932년에 절정에 달했던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윌슨의 주창 하에 만들어진 국제연맹의 유대가 무너짐으로써, 독일 국수주의의 팽창을 견제할 국제기구가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9년 6월 28일에 조인된 베르사이유조약은 프랑스의 이익을 주로 반영시킨 내용으로서, 독일국가로 하여금 영구히 지상에서 소생할 수 없는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인상을 씻을 수 없는 보복적인 조약이었다. 특히 이 조약의 조인 때까지 결말을 보지 못하고 결정을 안기시킨 배상조항(賠償條項)은, 1921년 5월에 가서야 비로소 그 액수가 1,320억 마르크로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독일국민이 50년 이상이 걸려도 갚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것이다.

베르사이유조약의 체결을 위해 파리로 모여든 승전국들은 각기 요구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영국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게 있어서는 휴전조약 성립 당시의 상황으로서도 전쟁의 목적이 거의 달성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의 입

장은, 전쟁 이전의 번영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하는 바 번영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는 독일의 압박이 휴전조약의 성립으로서 충분히 제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1918년 11월 11일 새벽 다섯시, 에베르트(Ebert) 임시정부의 휴전 대표 2명은 쾰른에 누 숲 속 식당 열차에서 연합군사령관 포쉬(Roch)장군 앞에서 휴전조약에 서명하였다. 그 휴전조약의 내용은, 월슨의 14개조항을 수락하되, 월슨 14개조 중 제2조인 「전평시의 항해의 자유」는 독일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아는 독립시키기로 수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이 이외에도 독일의 중요 군용장비를 즉각 연합국에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장비품목을 보면, 대포 5,000문, 기관총 25,000정, 박격포 3,000문, 항공기 1,700대, 기관차 5,000량, 철도차량 15만량, 트럭 5,000대 등이었다. 따라서 영국의 입장은 이 이상 독일을 더 압박하지 않더라도 다년간 세계시장 개척의 경쟁 상대였던 독일 군국주의는 이미 소멸하고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베르사이유회담에 임하는 영국대표 로이드·조오지는, 영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입장보다 제국간의 이익대립을 조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로이드·

조오지는, 패전국 독일이 너무 약체화되어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혁명의 싹이 불고 있으며,……독일에 대하여 가혹한 조건을 부과시키는 것은 독일을 러시아 공산주의의 품속으로 던져주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가 제출한 영국의 각서에는, 「평화조건 그 자체가 장래 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독일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넘겨가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영국의 입장과는 달리 프랑스 대표 클레망소의 주장은 강경하였다. 그는 영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였으며, 「평화조약은 일체의 과거를 청산함과 동시에 장래의 위험도 예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로서는 독일의 군비가 제한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군국주의자가 몰락하지 않는 한, 독일은 여전히 프랑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도덕적인 입장에 서서 프랑스의 강경론을 견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프랑스의 이익을 주로 반영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20년 간의 휴전」에 불과한 평화조약이 되고 말았다.

나. 군비조항의 무효화

다음으로 이 조약의 군비조항과, 그

중의 항공기에 관한 제한 조건을 보기도 한다.

베르사이유조약은 총 440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내용 상으로 분류하면 15편이 된다. 조약내용은, 국제연맹 규약, 독일의 국경, 유럽의 정치사항, 독일의 해외이권, 육해군 및 항공, 포로, 제재(制裁), 배상, 재정, 경제, 항공사용, 항만 및 철도, 노동, 보장, 잡칙 등 15편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고찰하려는 주제는 제5편(제 159조~제 213조)에 해당되는 육해군 및 항공에 관한 군비조항 편이다.

베르사이유조약의 내용이 그 어느 것이나를 막론하고 독일에게 가혹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중에서도, 영토조항, 군비조항 및 배상조항은 특별하였다. 독일 육군력은 병력이 10만명 이하로 제약되므로써 180만명의 상비군을 가졌던 육군국 독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군수품의 생산은 엄격히 제한되고, 전쟁물자의 수입은 금지되었다. 전쟁지도를 담당하던 일반 참모부는 폐지되고, 국민개병제도도 폐지되었으며, 지원제도가 강요되었다. 일체의 군용항공기 및 군용비행선은 보유를 금지당했다. 해군의 군비는 병력 15,000명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전함 및 순양함이 각각 6척, 구축함 및 어뢰정이 각각

12척으로 한정되고, 전쟁 중 연합국의 군함과 상선을 포획한 잠수함은 일체 보유를 금지하였고 건조 중이던 잠수함은 파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가혹한 군비조항에서도 가장 큰 것은 항공기에 관한 규제였다. 쾰른에뉴 휴전조약에서 1,700대의 항공기를 연합국에 인도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은 앞으로 영구히 군용항공기의 생산 및 보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휴전조약에서 연합국에 인도하도록 규정된 것은 군용항공기에 국한되었던 것이었으므로, 항공기 공장에서 군용 비행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휴전을 맞게 되었던 일부 폭격기들은 폭탄가를 제거해서 민간수송기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르사이유조약 제 198조~202조의 항공조항에서는 일체의 육상 항공기의 보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장비는 파괴하도록 규제했다. 이 군비조항이 군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가혹한 금지를 강요했으나, 민간 항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이므로, 2차대전 이전에 일찌기 독일공군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 공군력 발전의 온상이 될 수 있었던 민간 항공의 발전도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베르사이유조약의 이행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연합국

의 감시위원단이 파견되었고, 그 감시가 철저했던 4년간(1923년까지)에 있어서는 민간항공의 발전에도 큰 제약을 받았다. 1921년 5월 4일 연합국은 독일에 통침을 발하고, 6월 1일부터 6개월간 모든 항공기의 생산을 중단할 것과, 건조 중인 항공기는 연합국에 인도하도록 요구했으며, 모든 민간 항공기 중에서도 4발수송기는 폭파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부가적인 조치로 인하여, 독일 민간 항공은 출발 당초부터 좌절당하였다. 연합국은 이 조치를 다시 6개월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1922년 4월 14일에는, 소위 연합국의 「신원칙」(新原則)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독일에 강요하였다. 이 신원칙이란, 항공기의 생산을 제한한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라 하더라도 그 성능이 시속 170킬로미터, 엔진출력 60마력, 상승능력 4,000미터, 적재용량 600킬로그램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감시와 제약은 사실상 1924년 이후에는 완화되었으며, 1925년부터는 연합국의 감시위원단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독일의 「비밀」 재군비의 기간은 1924년 이전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일을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고립되는 국민한 채무국으로 하라시켜 놓음으로서 유럽의 평화를 보장하려고 하는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1917년에 시작된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1차대전 후의 혼란과 빈곤을 틈타, 헝가리, 독일, 이태리 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일부 정치가들은 공산주의의 팽창보다는 차라리 독일의 부흥을 더 바라게 되었다. 이리하여 1925년 10월 27일에 체결된 로카르노(Locarno)조약에서 독일은 프랑스와 벨기에에 인접한 서부국경을 침범치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공산주의 소련에 대립하는 서구진영의 한 멤버로 승격할 수가 있었으며, 이듬해(1926년) 9월에는 독일이 국제연맹의 회원국가로 가입되어 곧 상임이사국이 되므로써 베르사이유의 굴욕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라인란드 비무장지대에 15년간 주둔하기로 되어 있던 연합국 군대는 예정기일을 3년간 앞당겨, 1930년 6월에 그 지역으로부터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이로써 독일에 대한 불신감과 감시는 제거된 셈이다.

다. 배상조항의 무효화

한편 독일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전승국의 노력도 경주되어, 독일은 베르사이유조약 체결 후 수년 내에 정치적으로 병행하여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1921년에 결정을 보게 된 배상금액 1,320억 마르크는 독일의 지불능력을 초과했던 것이었으며, 그 해 여름 독일은 10억마르크를 처음으로 지불하게 되자 마르크의 폭락을 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프랑스와 벨기에 양국은 독일의 배상지불 품질이 불량하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1923년 초에 독일공업의 중심지인 루우르(Ruhr)를 점령하였다. 이에 독일의 인플레이는 격화되어 마르크 값은 종전의 1조분의 1로 하락하였고, 독일경제는 파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경제혼란과 공황은 공산당과 극수주의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의 루우르점령으로 인한 독일의 파멸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양국은 독일의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되었다.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1924년 4월에 만들어진 도오즈(Dawes)안이다. 도오즈안의 내용은, 독일이 배상금 지불 때문에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자본투자를 하여 독일경제를 회복시켜서 독일로 하여금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불케 하며, 영·불 양국은 그 배상금으로써, 전쟁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빌려 쓴 전비를 갚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도오즈안은 독일의 배상금 지

불액을 연차적으로 정하여 1924년에는 10억마르크로 하고, 점차 증액하여, 1929년에는 25억마르크로 하며, 그 이후의 지불액은 독일경제의 부흥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독일의 부흥자금을 투자하는 대신에 독일의 배상금지불을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해 독일의 철도, 국립은행 및 정부기관에는 연합국의 관리자를 파견 배치하기로 규정되었다.

독일의 배상금 지불과 영·불의 대미전채금 상환이 확실하게 되자 미국은 상환받은 자본을 재투자하였으므로 독일경제는 회복되어 1926년이 되자 독일의 공업은 1913년의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독일의 경제안정은 자인히 독일과 서구제국과의 관계들 호전시켰으며, 또한 독일의 국제적 지위도 향상되어, 1926년에는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으로까지 승격하게 되었다.

비록 독일의 공업능력이 회복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의 지불은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며, 한편 강국들이 대독일무역경쟁은 배상금 지불의 부담과 상승작용을 하여, 독일국수주의자들의 대두를 촉진하였다. 1929년이 되자 도오즈안에서 규정한 표준배상금액 25억마르크는 독일의 경제능력으로서는

지불이 불가능함이 입증되었고, 또한 도
오즈안에서 규정한 배상지불의 감독기
관은 독일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국수주의자의 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
니라, 또한 이 안은 배상금의 총액과 지
불기한을 명백히 하지 않은 단점을 내
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모임
이 1929년 6월에 개최되었다. 무엇보다
도 독일의 파탄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변화된 국제정세의 추이였던 것
이다. 1930년 6월에 조인된 양(Young)
안에서는, 독일의 배상금 총액을 1,320
억마르크로부터 358억마르크로 대폭 감
소시키고, 배상문제를 정치문제에서 분
리하여 국제결재은행에 위임하였다. 만
약 독일이 지불능력을 가지지 못할 경
우에는 국제결재은행은 독일경제를 보
호할 임무까지를 맡도록 하였다.

1929년 2월에 기안된 이 양(Young)
안은 독일에 대해 지극히 관대한 조치
였지만, 마침 이 때부터 불어닥친 세계
적인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독일경제도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었
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은 베르사이유체
제를 비롯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

라. 경제공황의 영향

이제 우리는 끝으로, 세계경제공황이

베르사이유체제의 붕괴에 미친 영향과,
독일의 군비확장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
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929년 10월 24일의 뉴욕 증권시장의
붕괴는 즉각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 1924
년 이후 미국자본의 대유럽투자는 급증
하여 유럽경제의 대미 의존도는 지대하
였다. 미국자본의 유입 없이는 전후 유
럽의 번영은 지탱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경제공황으로 인해 미국은행 및 자본가
는 유럽에 대한 융자를 중지하고 자금
을 회수했으므로, 유럽 제국 중에서도 대
미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의 자금 회수에
대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한 독일국립은
행은 1931년 7월 13일부로 업무를 중단
하였다.

1929년~1932년 사이에 세계무역을
70%가 감소되었으며, 강대국들은 자국
의 이익을 위해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국제연맹을 중심한 집단적 국제기구는
약화되었으며, 따라서 독일의 군국주
의적 성장을 견제할 국제감시 및 압박
체제도 약화되고 말았다. 한편에서는 유
럽의 경제혼란과 빈곤을 틈탄 공산주의
혁명운동은 격화되어 가고 있었다.

1930년 9월의 총선거에서 나치당은 양
(Young)안에 대한 반대를 구호로 하여

12석에서부터 일약 107석으로 도약하여 제2당이 되었고, 1932년 11월의 총선거에서는 사민당 121석, 공산당 100석을 훨씬 능가하는 196석을 획득하여 제1당으로 진출하였고, 뢰덴부르크 대통령은 1933년 1월 30일 나치의 당수 히틀러를 수상에 임명하였다.

수상에 임명된 히틀러는 그 해 10월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베르사이유조약의 파기를 선언하였으며, 1935년 3월 16일 독일의 재군비와 독일공군의 창설을 선포하였고, 3개월 후인 6월에는 영국해군협정을 체결하여, 영국은 독일이 영국해군력의 35%를 보유함을 인정함으로써 베르사이유조약의 군비조항은 완전히 무효화 되고 말았다. 이 영국해군협정의 체결은 베르사이유체제를 영국이 스스로 무효화 함에 관동한 것이며, 이러한 영국의 조치는 유럽 중심부에서 소련공산주의의 진출을 견제할 세력으로 독일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1919년의 영국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국의 보장을 받은 히틀러는 다음 해(1936년) 3월 라인란트 비무장지대에 진주함으로써 베르사이유조약과 로카르노조약을 배지화시켰다. 이로써 독일의 굴욕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베르사이유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3. 독일의 비밀군비와 공군력의 성장

이상의 고찰로써 우리는 독일이 베르사이유조약의 제약 하에서 1935년의 재군비선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국제적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가 함을 알아 보았다. 따라서 독일의 재군비는 순수한 「비밀」이었다기보다는 독일의 재군비를 묵인하고 허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르사이유조약은 1935년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유효한 것으로서 독일을 견제하고 있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앞에서 1925년의 로카르노조약을 계기로 하여 독일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 조약으로 독일은 소련을 견제하는 서구진영의 한 구성원이 되었으며, 이 때부터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감시와 경계심이 완화되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독일국방군의 실질적인 「비밀군비」기간을 1919년부터 1924년 경까지로 한정시킴이 타당할 것이다.

1935년 3월, 독일이 재군비를 선언하고, 독일 공군의 창설을 공포할 때, 독일 공군은 이미 상당한 군사력으로 발전되어 있었으므로, 1935년을 독일국방군이 발족한 때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 독일 공군은 2,000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일 육군은 55만명의 장병으로 성장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공군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차대전 직후부터 1924년까지 그 기간에 이미 발전을 위한 바탕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베르사이유조약의 제약과 연합국의 감시가 계속되었던 기간에 있어서 독일 공군이 여하히 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패전 독일의 국방군사령관으로 등용된 사람은 한스 폰 제크트(Hans Von Seeckt) 장군이다. 그는 1920년부터 1926년까지 6년간의 재임기간에 독일국방군이 거대한 군사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1차대전에서 그는 야전군 지휘관으로 활약한 경력이 없이, 주로 참모부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았다. 그의 성품은 야전군 지휘관과는 대조적이었다. 프로이센 출신의 귀족인 그는 고매한 품격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데다가,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도 했으며, 세상 일에도 능통하여 「스핑크스」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다.

제크트가 국방군사령관으로서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베르사이유조약에서, 장교 4,000명, 병 96,000명으로 규정된 독일 국방군을 여하히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숫적 제약을 질적 정예화로

써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약에 의해 완전히 금지된 항공병력과 탱크를 비롯한 중화기의 건조와 훈련은 정예화만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28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 「한 군인의 사상」에는, 베르사이유조약의 제약 하에서 국방군이 나아가야 할 발전의 방향이 피력되어 있다. 그는 「정예군」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규모의 군대는 기동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므로 승리하기가 힘들다. 고로 많은 인적 자원을 평시에 군대로 동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평시에 있어서는 남자들의 노동력을 생산부분에 활용함이 좋다. 실용적인 군대란 가능한 전문 직업군이어서야 하며, 장기훈련을 받은 지원병이어야 한다. 모든 청년에게 단기적인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은 군사훈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육체적 및 정신적 단련을 목적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전쟁은 기동성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될 것이며, 지상군의 기동력은 적 공군력을 파괴할 공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즉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보장된다는 것이다.

제크트는 항공력과 탱크부대와 독개스전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는 모두 베르사이유조약이 금지하는

박였으며, 또한 그의 재임기간에는 연합국의 감시가 엄격하였기 때문에, 이런 무기의 개발 및 금지된 기술훈련은 부득이 연합국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군비제한의 제약 하에서 고민하는 제코트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소련이 군사적 면에서의 협력을 제의해 온 것이다. 1917년 소련은 공산혁명정부를 수립한 후 1차대전이 끝나기 전에 연합국의 공동전선에서 탈퇴하였고, 그 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소련은 폴란드와 더불어서의 독·파전쟁(1919.4~1920.10)에서 패배하자 적군(赤軍)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적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군사공학과 기술교리를 독일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했다.

트로츠키는 1920년까지도 독일정부의 전복을 꾀하고 있었으나, 1921년이 되자 독일정부와 독일국방군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밝힘으로써, 독·소 양국의 협조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소련측의 제의는 연합국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땅을 회구하던 제코트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이보다 앞서, 이미 제코트는 1920년 말에, 국방군본부에다 「러시아 특별국」(Special Branch R)이라는 비밀기구

를 설치하여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차에 소련은 1921년 봄에 라데크(Radek), 크라신(Krassin) 등 고위 인사를 베르린에 파견해서, 독일의 군사적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독·소 두 나라의 제휴는 본격화 되었다.

1921년 5월, 독·소 양국은 「잠정적 경제협정」을 맺으므로써 정식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끝내었다. 이어서 독일은 폰·니더마이어(Von Niedereimer) 중령을 단장으로 하는 비밀사절단을 보내어 소련의 군사적 상황을 조사토록 하였다. 1921년 가을에는 독·소 군사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상이 논의되었으며, 폰 슈라이히어(Kurt Von Schleicher)대령의 저택에서 열린 이 비밀회담에서 앞으로 실현될 독·소군사협정의 윤곽이 결정되었다.

이 회담에서 독일측은, 소련이 관여되는 어떤 국제분쟁에도 개입하지 않고 우호적인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련군의 무기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비밀회담의 성과로서 1921년 말에는 두 가지 기관이 설립되는데, 하나는 「공업진흥공사」(GEFU)이며, 또 하나는 「베르솔 주식회사」(Bersol-Aktien-Gesell-

schaft)였다.

공업진흥공사(Gesellschaft Zur Förderung Gewerblicher Unternehmungen)는 독·소 간의 군사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독일인 츠нке(Tschunke)의 지도 하에 모스크와 베르린에 각각 사무실을 두었다. 이 공업진흥공사의 설치에 따라 모스크 근교 필리(Fili)에는 융커스(Junkers) 항공기공장이 창설되었고, 베르솔주식회사는 트로츠크(Trotsk)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독개스 공장이었다. 또한 툴라(Tula)와 레닌그라드에는 병기공장이 설립되었고 이들 공장에는 독일인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지도, 감독을 담당하였다. 또한 공업진흥공사의 주관하에 카산(Kasan)에는 탱크학교가 개설되고, 하르코프(Kharkov)와 리페츠크(Lipetsk)에는 항공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독일인 조종사는 이 항공학교의 비행장에서 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스킨 훈련본부도 설립되어 독·소 양군이 키예프와 리페츠크에서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업진흥공사의 업무 중에서도 독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의 지원 하에 러시아에서 세워진 모든 공장에서 생산되는 무기를 일정분량씩

제공 받기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독일군은 보유와 제조를 금지 당했던 무기, 특히 탱크와 항공기를 러시아 영토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기술자와 전투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군은 독일의 선진 공학기술과 전술을 받아들였으며, 1925년에는 독일군의 전술교리를 모방한 야전교범을 완성하였다.

독·소 군사협력 중 항공력의 발전을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융커스(Junkers) 교수의 공헌이다. 그는 라인란트 출신의 과학자였으며, 1차대전 전에 이미 많은 발명을 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쟁이 끝나자 항공계에 투신하였다. 항공기야 발로 세제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평화적 산업이라고 생각한 융커스 교수는 그의 천재적인 공학 능력을 가지고 항공기의 설계와 생산을 착수했다. 1919년 베르린 서남 뎃사우(Dessau)에 융커스 항공기공장을 설립하여, 1921년에는 종업원 900명과 함께 여객수송기를 제작하고 있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난방장치가 가능한 밀폐식 객실을 가진 여객기(F-13)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1921년 5월, 연합국의 제한조처(런던 최후통첩)로 인하여, 대형여객기의 제작을 금지 당하여, 1년간의 생산중단 끝에 도산의 경지에 이르

게 되었다. 마침 이 무렵 독일국방군본부는 그를 호출하였다. 그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약속 받고 필리(Fili)에 항공기 공장을 설립키로 승락하였다. 그는 러시아 이외에도 스위스, 스페인, 핀란드, 이태리 등지에 항공회사 본점을 설립하여 유럽의 항공운수계를 지배하였다.

이 무렵 그가 생산한 G-24 3발 여객기는 2차대전 때 독일공군의 수송기로 활약하게 될 JU-52의 원형이 되었다.

1923년이 되자, 필리 하르코프(Kharikov) 등 비행장에서는 전술항공훈련을 마친 독일군 조종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제 독일인 조종사는 독일인이 설계, 제작한 항공기를 조종하여 유럽의 하늘을 다시금 날 수 있게 되었다.

1922년 4월 16일에 체결된 라팔로(Rapallo)조약으로 인하여 독·소 군사협력은 더욱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을 계기로 하여 독·소 협력은 공개적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24년 이후 독일의 정책이 서쪽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리의 용커스공장에 대한 관심도 흐려지기 시작했고, 용커스교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단되었다.

1925년 12월 1일, 로카르노조약이 체결되고, 1926년 9월,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자, 독일의 조약이행을 감시

하던 연합국의 감시단도 철수하였으며, 베르사이유체제의 제한조건은 완화되었다.

독·소 군사협력은 1차대전 직후 수년간의 엄격했던 제약 하에서, 장차 독일군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정치적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할 때는 그것은 과도기에 있어서의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이며, 마치 비밀군비 그것이 2차대전의 원인인 것인양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1922년에 미국의 에이스 리켄바커(Rickenbacker)대위가 독일을 방문하여 괴링(Goering)을 만났을 때, 괴링은 독일이 베르사이유조약의 제약 하에서 여하히 공군력을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말하였다. 그는, 우선 글라이더를 독일 청년들의 스포츠로 보급하고, 민간항공운수회사를 발전시키는 한편, 군 항공의 골격만을 이루어 놓는다면, 유사시에 어 3자를 결합시키므로써 독일공군은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바로 당시의 독일공군의 발전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경향을 암시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독일에 대한 연합국의 감시가 해제되자 독일군의 확장은 본격화되었으며,

1926년 1월 6일, 독일의 모든 항공회사는 폐합되어 국립항공회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로 발족하였다. 이것은 민간항공의 전력화를 위한 국유화 조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융커스 교수는 뢰사우의 자기 공장에서 추방되어 1935년 2월 뮌헨 부근 가우팅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루프트한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1928년에는 대형 여객기 JU-G31을 430대나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이 회사는 1926년 7월~8월 사이에 베르린의 템펠호프(Tempelhof)비행장에서부터 시베리아, 몽고, 만주를 거쳐 북경비행장에 이르는 1만킬로미터의 아시아 항로를 개척하였고, 1938년에는 베르린에서 토오코까지, 1939년에는 베르린에서 방콕에 이르는 항공수송로를 개척하였다.

1933년 1월 30일, 수상직에 취임한 히틀러는, 괴팅을 항공장관 겸 공군사령관에 임명하였다. 또한 항공기 기술에 능통한 에어하르트 밀히(Erhard Milch)를 항공차관에 임명함으로써 항공기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밀히는 독일의 항공기 생산능력을 곧 10배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받아, 밀히는 군용항공기 생산공장을 신설하였으며, 밀히의 노력

으로 1934년에는 HE-51전투기, DO-23 폭격기, JU-52 수송폭격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1935년 3월 16일, 독일공군의 창설이 선포될 때, 독일은 이미 1900년의 군용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6년이 되자 독일공군은 2차대전에서 활약하게 될 ME-109 전투기, ME-110 장거리 호위전투기, DO-17 폭격기, JU-87 급강하폭격기 등을 보유하게 되었고, 1936년 7월,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자 히틀러는 프랑스의 완전무장한 군대 1만명을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공수해 줌으로써 독일공군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밀히의 주도 하에 신설된 항공기공장들에는 평균 2~3만명의 종업원이 24시간 조업을 계속하였다. 독일공군은 나치스 히틀러의 세력 확장과 비례하여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1939년월 9일 1일,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써 2차대전이 발발한 때에 있어서 독일공군은 일선항공기 3,650대와 훈련용 항공기 3천대를 합치면 무려 6,650대에 달하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발전해 있었으며, 이 공군력을 주축으로 하여 독일 국방군은 2차대전의 신흥인 전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관리기법(管理技法)

서 봉 철

제 3 장 과학적 관리기법

자주국방의 이상적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관리의 과학화를 중심으로 하여 자주국방체제 확립에 따른 이념과 당위성, 그리고 몇 가지 과제는 물론 국방관리의 과학화를 이룩하기 위한 과학의 일반적인 개념과 환경, 그리고 과학화의 전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곁하여 전호에 게재한 바 있다.

따라서 본호에는, 자주국방체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는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과학적 관리기법으로서의 계획예산제도와 「시스템」분석 및 OR 그리고 자동자료처리 제도 등의 일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자 한다.

제 1 절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개관

가.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1) 개념정의

계획예산제도, 즉 P.P.B.S란 본래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의 약자로서 설정된 방침이나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Alternatives)을 작성하고, 각 방안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를 전자계산기에 의한 과학적 분석으로 기획(Planning)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정책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Programming)의 수립과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Budgeting) 과정이며 장기적인 계획기능과 단기적인 예산편성과를 단계적이며 상호 유기적인 결합으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예산제도인 것이다.

(2) 과거의 예산제도

1961년까지 미국의 국방예산 편성은 국방성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능동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각급별로 자기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 이에 의거 예산을 요구하면 국방성은 이에 따라 예산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균형된 조정 역할을 하여 왔다. 따라서 각군은 서로 예산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자기 자군의 우위만을 주장, 독자적인 임무만을 치중한 나머지 매력적인 신무기체계(New Weapon System)개발에 집중하여 장래에 예산 팽창의 소지를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비능률적인 현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예컨대 공군은 전략요복용의 폭격기와 미사일에 최우선권을 주고 육군의 지상 작전지원에 필요한 전술항공부대나 국지전투부대를 신속히 이동케 하는 공수부대를 경시했으며, 해군은 자기의 핵공격부대,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에 압

도적인 우위를 주는 반면에 대잠수함 능력과 호위능력을 축소시켰다. 더욱이 육군은 기존의 사단수를 유지하는데만 급급하여 2~3주 이상을 전투장비와 보급품마저 마련할 재원도 부족하였다. 이처럼 각 군은 육·해·공군 독자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진 양 각기 새로운 무기개발에 주력하여 국가 전체의 군사력 유지에 있어서 불균형상태를 초래함과 동시에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또한 예산편성과 각 군별 군사계획수립이 완전히 유리된 상태에 있었다. 즉 군사 계획은 재원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각 군별로 계획되고 예산의 편성은 재정상의 제한을 중시하는 국방장관과 재무관리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3) 계획예산제도의 활용

계획예산제도(P. P. B. S)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 정책 및 여러가지 목표의 추구를 명확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P. P. B. S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가 여러가지 행동 방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있다.

정부의 자원 제약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데 정부는 자체의 여

러 행정 방침 중에서 선택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사업과 민간경제부분과의 사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의 임무는 정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민간경제의 장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이한 일은 아니다.

P.P.B.S의 첫째의 목적은 어려운 선택 작업을 쉽게 만드는데 있다. 또한 P.P.B.S는 비교와 조정과정이 중심이며 다음의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다양한 정부 활동이 국가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 평가한다.

(나) 주어진 여러가지 목표를 최소의 예산지출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준다.

(다) 정부활동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라) 정부와 민간의 각 활동이 국가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비교한다.

(마) 목표, 계획 및 예산을 새로운 경험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수정해 나간다.

이러한 운영 사항은 P.P.B.S의 과정에 고유한 것이며 종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선택행위가 최종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인간의 판단을 돕는 새로운 분석 수법을 적용

한 것이 바로 P.P.B.S라 하겠다.

(4) 예산시스템의 성격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예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 예산구조는 확정된 여러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 비용을 측정하기에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나) 예산「시스템」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대체수단을 비교하는 데 용이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예산은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재정상의 지출을 수반함으로 모든 비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 예산구조는 단일 업무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관리기관에 의하여 통괄되는 경우 투입요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출물로서의 목적달성 상황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마) 예산구조는 비용효과분석이 행하여지는 경우 개개의 사업의 목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예산구조는 광범위한 정부 행정 기구에 있어서 여러 부문의 관련지출을 총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종전의 여러 예산제도는 위의 제조건을 만족시켜 출탄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5) 계획예산제도의 특징

계획예산제도(P.P.B.S)가 타 예산 제도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편성 방법상의 특수성예산이라 함은 정부 및 기타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이나 계획 및 정책을 구체적인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종전의 사업 및 품목별 예산에서는 주로 투입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의 중요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정책목적 또는 수단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전환시켜 정책결정 및 계획수립에 공헌하는 예산제도이다.

둘째, P.P.B.S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기본 방침이나 정책을 검토하는 이외에도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도출하여, 이들 각 방안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수량화하여 과학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화 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과정(Feed Back System)이며 수량적인 표현이란 각 사업의 효과도를 수량으로 표시하여 그 효과도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비교함으로써 적극적인 통제를 가능케 하는 사고방식이다.

세째, 현대의 관리는 최고 관리자가 종전의 수동적인 통제방법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행하고 정책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하부 관리층에 일임하는 방법으로서 최고 관리자 뿐만 아니라 그 하부에 있어서도 철저한 책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네째, P.P.B.S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종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하나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문제의 배경과 상황을 파악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각 방안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함과 아울러 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계획예산제도의 이념

(1) 능률성

계획예산제도(P.P.B.S)는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대전제하에 실시될 것이 심각히 요망되고 있다. 국민의 신임하에 영위되는 행정부로서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약과 능률을 예산제도의 기본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 사기업체는 그 경제적 성질로부터 절약과 능률이라는 이념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절약과 능률이란 일정한 양의 자원을 가지고 가급적 많은 산출

물을 내야 하거나 일정량의 산출물을 내기 위하여 가급적 적은 양의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투입을 산출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이며 계획적이고, 잘 정비된 제도가 요구됨과 동시에 투입이나 산출이 정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효과성

효과성이란 바로 달성하려는 목표물 일정기간 내에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며 P. P. B. S에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의 방안이 비교 검토되는 과정에는 이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러가지의 방안들 가운데서 하나의 적절한 방안이 선정된다면 정책결정기관은 합목적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후에 소개될 비용효과 분석과 「시스템」분석은 중요한 수법으로 활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경제적 합리성

종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에 따른 결정은 정치적 흥정을 통해서 기존 예산의 내용과 규모로부터 부분적이나, 점차적인 조정을 가하는 주먹 구구식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같이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자원의 배분은 다분히 정치적 합리성의 추구의

소산이지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의 소산은 아니다. 즉 예산 결정은 어느 기관이 예산을 요구했으며 어느 실력자가 이를 지지 또는 반대했는가에 달려 있다.

P. P. B. S에 있어서 예산 결정이란 오직 정책목적의 실현이라 하겠다. 문제 해결의 기여도에 따라서 예산사업의 여러 방안들을 분석 평가하여 선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예산자원의 배분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타협이란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어느 예산사업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찾아 내어 그것을 채택하는 과정이 합리적인 절차인 것이며 따라서 P. P. B. S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ity)이 예산자원 배분의 근거 기준이다.

(4) 합목적성

P. P. B. S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국가 목표에 부합되도록 수립될 것이며 또한 국가 목표의 효율적인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파악된다. 말하자면 국가 또는 조직의 목적 및 성결과 관련있는 주위의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사업목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5) 과학적 객관성

P.P.B.S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과학적 객관성인 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체계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급적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다. 계획예산제도의 과정

P.P.B.S는 글자 그대로 세 개의 과정 즉 장기적인 계획수립(Planning), 계획작성(Programming) 및 예산편성(Budgeting)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수립의 단계와 계획작성의 단계 및 예산편성의 단계로 계획예산제도의 3단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제1단계

P.P.B.S 단계인 계획 책정은 조직체의 장기간에 걸친 목적의 명확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의 평가 및 선택으로 된 과정이다.

조직체가 갖고 있는 필요량은 거의 무한한데 대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체는 여러가지의 목적중에서 우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같은 대체적 목표의 선택은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의 비용과 효과가 비교 평가됨으로써 결정

되는 것이다. 고로 목표의 분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분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체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며 그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방안이 개발되고 그 개개의 방안에 대한 장기에 걸친 모든 비용과 효과가 고려된다.

계획책정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은 조직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책 및 사업의 방안으로서의 계획인 것이다. 즉 계획책정이란 바로 시책 및 사업의 안을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선택된 프로그램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 국방성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이 과정은 군사계획 및 병력 소요결정의 단계로서 군사계획과 병력소요는 광범위한 국가안건 보장정책 목표 및 장래의 적국의 가상병력 예측 등을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이것은 합동참모본부 및 3군의 계획 수립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들의 합동노력의 산물이 합동전략목표 계획인 것이다.

계획은 기존 여건 검토, 새로운 자료의 수집, 새로운 정보의 이용, 대안의 실험 결과로 도달된 새로운 방안선택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수

정되는 것이다.

병력소요는 국방성의 주요 군사 임무에 직접 관련되어 장차 수년에 걸쳐 계획된다. 합동전략목표 계획은 정책 결정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국방장관에게 제출되고 또한 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3군 장관에게 보고된다.

군사계획 및 소요계획 또는 합동전략목표 계획에 있어서는 체계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합동전략목표 계획은 미 국방성 전체의 군사전략과 병력수급을 취급하는 한편 원자력 항공모함, 장거리방공 전투기 등과 같은 특수문제 영역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포함한다.

(2) 제2단계

P. P. B. S의 제2단계인 「프로그램」 작성은 계획측정 과정에서 선택된 개개의 업무에 관하여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연차적으로 배당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 단계에서는 선택된 여러가지 업무가 다년도에 걸쳐 달성되어야만 하는 목표의 수준으로서의 투입이 시간적으로 할당된다. 또한 투입된 자원이 조직체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산출물을 위해서 그 비용을 철저히 분석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장래를 비교적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5개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각 업무의 활동 수준과 그것을 실행함에 필요한 자원을 명세화 함에 따라 선택된 각 계획 요소들이 현실에 비추어 실현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말하자면 장기 계획과 연도 예산요구서 작성을 연결하는 작업의 단계라 하겠다.

(3) 제3단계

P. P. B. S의 제3단계인 예산편성단계는 「프로그램」 작성의 과정에 의하여 작성된 다년도에 걸친 사업의 조년도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직적으로 보완해 가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것을 개개의 비용면에서 평가하고 조직체가 초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필요자금의 총액을 제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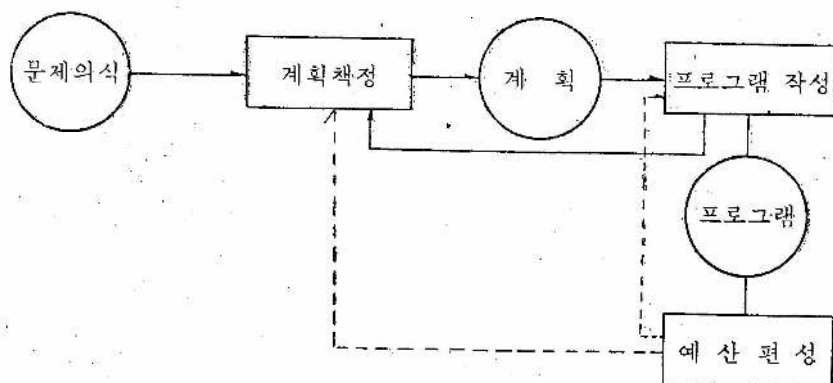
이상의 3개의 과정은 실제의 작업에서는 일체화되어 있고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정책과 「프로그램」 작성은 대안으로서의 업무의 선택을 통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계획정책 과정의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업의 전 비용과 효과가 고려되는 것이나 그것은 종종 불확실한 미래를 취급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찰의 대상기간을 5개년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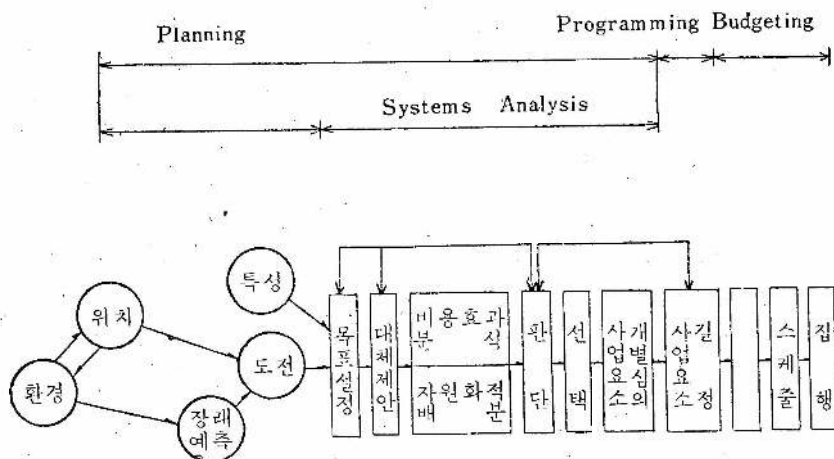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비용과 효과의 시간적 분포가 명시되는 「프로그램」 작성 단계에서 보다 정밀한 계산을 한 후에 다시 계획책정의 결과를 수정해야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획책정 「프로그램」 작성 및 예산 편성의 세 가지 과정은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통일적인 Feed-Back 과정을 이루고 있다.

P. P. B. S의 과정 (1)



P. P. B. S의 과정 (2)



2. 계획예산제도의 적용절차

계획예산제도(P. P. B. S)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바, 그 첫째의 접근 방법은 P. P. B. S의 특성상 내포된 요소면에서 보는 방법이며, 두번째로는 P. P. B. S 과정의 흐름면에서 포착하는 방법인 것이다.

첫째, 요소면에서 본 구조는 계획책정의 단계, 「프로그램」작성의 단계, 예산편성의 단계로 구분되며

둘째, 과정의 흐름면에서 보는 구조는 계획(Plan), 집행(Do), 통제(See)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이다.

P. P. B. S는 장기에 걸쳐 실시되는 제도이며, 항시 동태적으로 처리되는 제도임으로 그 순기의 종말이나 중간에서 계획을 변경하든가 수정하든가 또는 실시결과를 다음 순기(Cycle)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계획 실시단계에서 산출물의 결과를 보고 계획자체를 변경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Feed-Back 작용이며 이러한 것을 이론 바 계획변경제도라고 한다.

가. 계획책정의 단계(Planning Step)

(1) 목적의 분석

계획책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조직체의 목적, 즉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를 분석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조직체는 정부이거나 민간기업이든간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완전고용, 의무교육의 완전무상 등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목표는 충분한 자원이나 수단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목적의 분석은 이 목표를 확인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상태를 목표와 비교하고 그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이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실업률이 4%이고, 학생 1인당의 교재 및 기타 자기 부담액이 월 평균 2,000원이라고 한다면 목표와의 차이는 각기 4%, 2,000 원이고, 정부의 목적은 1978년까지 실업률을 2%로 인하하고 자기 부담액을 1,000원으로 인하한다고 설정할 수 있다. 즉 목적이라는 말은 목표를 향한 노력을 수량적, 시간적으로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목표는 즉시 확인될 수 있으나 달성 가능한 목적을 설정하기에는 분석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조직체나 욕구는 거의 무한한데 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조직체는 수 많은 목적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 중요하지 않은 목적을 희생하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도 같이 자원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분석이야 말로 어떤 목적을 희생함으로써 타목적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결정자에게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국방력의 강화와 국민복지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목적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수준이 한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목적의 달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하나의 목적에 대한 달성도를 낮추는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분석자는 정책결정자에게 어느 목적을 어느 정도로 달성하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복지의 사업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 하며 그 희생의 결과로서 얻게되는 국방력강화의 유효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 일이다. 즉 국방력의 유효도 1단위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에 있어서 주택호수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인가를 수량적으로 표시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의 문제를 숫자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알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간에 대체적인 목적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전술한 예와도 같이 목적이 가급적 수량적으로 표현되고 그 달성도를 표시하는 척도가 확실히 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사실 조직체의 목적을 정확하게 표시한다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문제에 따라서는 공포된 「프로그램」의 목적이 정치적 신전에 불과하고, 내면적인 목적은 그것과는 다른 때가 간혹 있는 것이다. 우수한 분석은 이들의 표면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고 내면적인 목적까지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면 비로소 실시하여야 할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확화된 목적 체제는 조직체의 여러 활동과 이것에 소요되는 자원을

통일되고 효과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별도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체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계층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목적은 보다 높은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예로써 공격력이나 방어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목적이 되는 것이나 고차적으로 국방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국방 자체도 국가 전체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교 경제원조 등과 같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목적의 분석은 목적 수단 관계의 체계적 분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보다 좋은 방책의 개발에 있어 보다 좋은 목적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이 강조된다.

(2) 대체안의 개발

대체안의 개발단계는 목적의 분석에서 명확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방안(Alternatives)을 연구하는 일이 이루어 진다. 모든 「프로그램」은 어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체적 방안 중의 하나임으로

다른 대체안과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안은 제시하지 않으며, 기존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계획문서는 기존의 방안을 변호하고 합리화 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존의 대체안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대체안을 창의에 의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대상이 되는 문제를 선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관련 요소들을 확인하고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민 보건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안으로서는 「의학교육의 개선」, 「일반시민의 계몽」, 「의학연구의 확충」, 「진료소, 보건소의 충실」 등 분명한 대체안외에도 「빈민층의 유아사망률을 저하시키는 대책」, 「사고방지대책」, 「체력의 단련」, 「흡연억제운동」 등 넓은 시야에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다

각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관련된 대안들이 상호 비교되고 새로운 대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최선안의 선택

목적달성을 위한 대체안이 전부 안출되면, 다음 단계로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조직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제시된 대안들의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효과를 측정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모든 대안의 우열에 대한 순서를 정하게 된다. 이것을 비용, 효과분석 또는 비용 유효도 분석이라고 한다.

첫째, 비용은 대체안의 비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것이다. 즉 어떠한 기술적인 분석이나 현명한 판단도 비용에 관한 정보가 틀리거나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을 때에는 과오를 피할 수 없게 되며, 또한 효과에 관한 정보가 약간 미비하더라도 대안의 비용이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된다면 이것을 이용 판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비용과 일반적인 회계상의 비용과는 상이한 개념

이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회계상의 비용은 상이한 기간이나 상이한 조직체간의 형식적인 비교가능성이나 감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비용은 강태를 위한 대안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 비용은 여러가지 면에서 회계상의 비용과 상이한 것이나 중요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가) 기회비용의 개념

이것은 자원의 가치를 어느 용도에 사 용함으로써 희생되는 다른 용도 중에서 최적의 것으로 산출되는 가치(Value)로 측정하는 것이다. 원래 비용이라는 개념에는 이 희생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 있느냐 특히 여러가지 대안의 비교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그 조직이 지출하여야 할 실제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비용 이외의 것을 고려할 필요가 특히 많은 것으로는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 「프로그램」의 경우이다. 예로써 그 「프로그램」이 산출하는 편익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프로그램」의 실시주체와 상이한 수익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나 그 「프로그램」이 실시주체의 외부에 주는 반감지 않은 효과 등도 고려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실제비용 이외의 비용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는데 가령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대학생이 그 기간에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은 사회로서는 대학교육의 기회비용이나 또한 학생이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교통기관을 사용한다면 그 통학비는 대학교육의 부대비용이다. 그리고 초음속 항공기가 항로지역의 주민에 미치는 충격파는 초음속 항공기 개발「프로그램」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증분비용의 개념

한 기업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구입한 부속품을 자가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 일반 관리비의 변화가 없다면 이 확장비용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것 뿐이다. 원가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되는 일반관리비는 그「프로그램」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 부속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가에 대한 대체안의 검토에 고려할 사항은 확장에 사용되는 새로운 비용 즉 증분비용 뿐이다.

(다) 매몰비용의 개념

이것은 이미 과거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장래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변동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생산방법

에 혁신적인 신기술이 등장하여 종전의 생산방법을 계속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에 종전의 생산방법을 계속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종전의 생산방법에 투입된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서 과거의 생산 방법을 진 기술과 비교하는 경우 그 매몰비용을 과거의 생산방법에 의한 비용에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의 생산 방법을 계속하는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신기술의 비용과 편익에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 책정단계에서의 비용의 추정은 반드시 정밀하게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즉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미래에 관한 것으로 신기술의 가능성 상황의 변동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한 비용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여야 할 모든 대체안을 통일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예로써 한 가지 대안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으나 다른 대안에서는 이것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대안의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안의 효과는 목적 달성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측정되나 비용과 같이 단일한

기계적 척도로서 명확히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재까지는 시도한 바가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있어서는 효과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때도 있다. 인간의 사망손실은 사망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으나 사망수나 사망률에 대한 숫자는 「프로그램」이 달성한 것 또는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계획책정에 있어 이 단계에서 할 일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로 조직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목적 중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을 참작하여 추구할 목적과 그 수준을 결정하고 각 목적에 대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 「프로그램」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계획인 것이다.

나. 「프로그램」작성의 단계 (Programming Step)

(1) 「프로그램」작성과 사업 계획

「프로그램」작성은 계획 책정의 단계에서 선택된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교적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기간 즉 5개년간에 걸친 산출물과 이에 소요되

는 비용과를 시간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전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작성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을 사업계획이라 한다.

이와같은 「프로그램」작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계획 책정과 상이하다.

(가) 계획 책정에서는 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효과가 발생하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데 대하여 「프로그램」작성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5개년으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나) 계획 책정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상대적인 효과에도 관련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분석하는데 대하여 「프로그램」작성에서는 그 조직체가 실제로 지출하여야 할 필요자금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같이 고찰의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실제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약조건이 시간에 따라 명확히 되어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이 보다 확실히 점검되는 것이다. 즉 계획 책정의 단계에서는 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원제약하에서 「프로그램」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 기간에 걸친 제약조건이 분명해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계획 책

정의 단계에 소급하여 「프로그램」의 선택을 다시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같은 여러 기간에 걸친 집행 절차의 최적화를 분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작성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프로그램」결정이 장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는 전 「프로그램」에 대한 장래의 예산 부담액을 합계하여 장차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의 여유 또는 부족액을 명확히 하여 주며, 현시점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에 장기적인 시야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로그램」작성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은 예산과 감이 확정된 공약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의사결정을 위한 장차의 견적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작성된 사업계획을 지침으로 하여 다음 단계에서 신년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다. 예산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사업계획은 이에 따라 수정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은 조직체의 「프로그램」결정과 장차에 미치는 영향과를 한포에 수록한 기록문서로서 다음에 계획변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은 당초 예정한대로 반드시 진척되지 않을 것이며 필요성이나 여건 등

「프로그램」결정이 전제나 환경 조건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와같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단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획변경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관리순기(Management Cycle)의 집행 및 통제에서도 계획에 Feed-Back한다는 의미에서 P.-P.B.S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로 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의 작성방법

사업계획은 「프로그램」의 규모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표시하는 몇 개의 지표로 나열한 산출물의 표와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자금의 견적액을 표시한 자금표의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사업계획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산출물 지표는 계획책정시 「프로그램」분석에서 각 대체안의 목적에 대한 공헌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측정된 효과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프로그램」의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의 불가결의 부분으로서 조직체의 목적에 가능한 밀집하게 관련된 달성도의 척도가 구하여지고 그것에 의하여 각 대체안의 유효성이 평가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산출물 지표는 계획 책정에 정하여진 목표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은 매년 어느 정도의 활동 수준을 필요로 하는가 표시한 것으로 여기에서 중시되는 것은 최종 목적에 대한 접근도보다는 간단히 이해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로 표시된다는 편이성이다.

사업계획의 제1차적 목적은 계획을 진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금표에 표시된 개개의 계수는 너무 상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사업계획에서 취급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개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과거를 포함하나 이는 통상 1년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현재 연차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은 7개년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3) 「프로그램」작성의 의의

「프로그램」의 작성은 계획 책정과 예산편성을 결합하는 기능이다. 국가나 기업의 경우를 막론하고 계획 책정과 예산편성과는 각기 다른 부처나 담당관에 의하여 상이한 시점에서 상호 실질적인 협조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계획 책정의 산출물을 중심으로 하고 예산편성은 투입을 중심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간에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장기 계획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 되고 한편 매연도의 단계예산은 사전에 책정된 예산 「시이팅」에 의하여 장기 계획과 관련이 없는 비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작성은 사업의 산출물과 투입을 「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계획 책정과 예산편성과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 예산편성의 단계(Budgeting Step)

(1) 계획예산제도의 예산편성

P.P.B.S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은 계획책정 및 「프로그램」 작성 단계에서 채택된 「프로그램」(단년도분)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편성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 소요자금의 전적은 가끔적 상세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계획 책정단계에서 비용추정이 통계적 방법에 의하고 「프로그램」 작성단계에서 기술적인 비용 「모델」이 이용되는데 대하여 보다 상세한 소요자금을 평가하는 회계적 방법이 사용된다. 즉 「프로그램」별로 이에 소요되는 자료, 인원

및 가액의 총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P. P. B. S에서의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 진다. 이 경우에 다른 것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최종산물을 산출하는 활동에 대하여 상세하게 자원별로 원단위가 확립되고 계획 요소가 정밀한 비용계산을 위한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요망된다.

(2) 복수의 분류체계

예산은 계획면에서나 집행 및 통계의 단계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 관리의 도구로서 다각적인 정보의 제공이 요청된다: 즉 P. P. B. S 과정은 원래 관리 순기상으로는 계획단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목적 지향적인 「프로그램」별, 비용이나 집행이나 통계를 위하여는 이에 적합한 분류에 의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실시 주체를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별, 정보가 필요하고 집중구배 재고관리에 의하여 자원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비목별 정보가 불가결하게 된다.

예산의 분류체계를 (가) 목적별 (나) 조직별 (다) 비목별이라고 한다면 분류체계간의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전부 6개조로 된다.

(3) 예산의 「크로스 워크」

(Cross Walk)

미 연방정부에서는 의회가 세출예산 항목별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이는 비목별 분류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P. P. B. S에서 편성된 사업별의 예산을 비목별의 세출예산 항목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예산편성에 있어 불가결의 작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특히

상이한 분류체계간의 변경

부타 \ 로	목 적 별	조 직 별	비 목 별
목 적 별			
조 직 별			
비 목 별			

「크로스·워크」(Cross Walk)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집행 및 통제의 결과물 제회에 Feed-Back하기 위하여는 세출예산 항목에서 「프로그램」으로 반대의 「크로스·워크」가 필요한것이다.

3. 계획예산제도의 도입과 전망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방비가 미국의 군사원조에 크게 의존해 왔고 군원자원 관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 최고 관리자의 절대적인 영향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무상 군원 체제하에서 국방기획관리 기능이 완전한 자주 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자원관리의 합리화 및 효율화는 자주국방체제를 시급히 확립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의 지상과제로 생각되어 계획예산제도가 바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장치라고 확신된다.

한국 국방부의 계획예산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그 필요가 시급하다 하여 외국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알맞고 기존의 국방관리체제와 잘 조화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하여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단계

P.P.B.S 도입의 제1단계에서는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획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그 원리와 실태를 연구하여 계획 예산제도의 본질을 파악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방관리에의 적용 가능성의 여부가 분석 검토되었으며

나. 제2단계

P.P.B.S 도입의 제2단계에 있어서는 한국 국방부에 적용할 계획예산제도의 윤곽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 도입준비단계에서 발전시켜야 할 세부사업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데 주력하였고

다. 제3단계

P.P.B.S 도입의 제3단계에 있어서는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절차와 내규를 제정하는 한편 국방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등 P.P.B.S 제도 적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본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추진작업이 각 군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이를 총괄하여 멀리 않은 장래에 그 적용의 실효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좌옹(佐翁)

윤 치호(尹致昊)



— 군 목 김 종 호 —

□ 차 레 □

1. 윤 치호의 시발점
2. 윤 치호의 청년기
3. 독립협회와 윤 치호
4. 105인 사건 전후의 활동
5. 윤 치호의 말기

1. 윤 치호의 시발점

때는 대원군 말기였다.

정국은 친일(親日)과 친로(親露)로 갈라져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거듭되, 는 1865년 11월 20일에 충남 아산군 신창리에서 윤 웅렬(尹雄烈)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남달리 영특하고 총명해서 이웃에 칭찬이 대단했다.

그는 벌써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질을 선천적으로 타고 났다.

윤 치호는 소년기에 나라 살림을 걱정하였으며 또 벼슬을 해야 국민에게 슬기를 펼 수 있다고 생각하고 16세 때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최초로 나이 어린 몸으로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비서로서 기용되어 그의 청운의 뜻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그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점차 국가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다음해 1880년에는 박 영

효(朴泳孝), 김 옥균(金玉均), 민 영익과 함께 수신사(修身使) 김 흥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 다음 해에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어 윤중(魚允中)을 따라서 일본에 유학하면서 그 곳에서 자습 혹은 서양인을 따라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주조선(駐朝鮮)미국 특명전권대사 Z.H. Foote 의 통역관으로 발탁되게 되었다. 계속하여 1883년 4월에는 Z.H Foote 공사와 함께 귀국, 한미수호조약(韓美修好條約)의 비준교환(批准交換) 및 Z.H. Foote 공사의 선임장 증정의 통역을 맡아 보았다.

그 후 1884년 김 옥균이 이끄는 개화당(開化黨)의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실패하자 일본을 거쳐 박 영효, 서 광범, 서 재필 등이 미국에 망명하게 되었고 윤 치호는 그 이듬해 1월에 상해(上海)로 망명점 유학길에 올랐다. 도중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삭발을 하고 처음으로 양복을 몸에 걸치고 Z.H. Foote 공사의 주선으로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경영하던 중서학원(中西學院)에 입학하였다. 이때 Bonnel 교수로부터 세례를 받고(1887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감리교인이 되었다. 그는 다시 1888년에 중서학원의 주선으로 미국에 건너

가 유학(10월)하였는데 학교는 「벤더빌」과 「에모리」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 후 다시 상해에 있는 중서학원에 돌아와(1893) 영문법을 강의하였고 다음해 4월에는 「알렌」교장의 소개로 중국여인(미국 「맥티어」여학교 나옴) 「마노라」와 국제결혼을 하였다.

2. 윤 치호의 청년기

그는 점차 국운(國運)이 지천(至天)에 달하자 비로소 정치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그가 총리대신 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그리하여 차츰 능력을 인정받아 당시 내각총리 대신이었던 박 정양(朴定陽)은 고종 32년 조선개국 504년(1895년)에 총리대신 비서관 윤 치호를 학부협판(學部協辦)으로, 서 재필은 외무협판으로 함께 발령받게 되었으니 이제 윤 치호에게는 새로운 동운을 안고서 출항하게 되었다.

그 후 왕후시해사변이 있은 후 김 흥집의 친일정권이 들어서자 그는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 국왕(國王)을 손수 권외로 봉영이여(奉迎移御)케 하는 동시 김 흥집내각을 타도하는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이 10월 12일 미명에 임 최수(林最洙) 일파에 의하여 거사될 때에

당시 정동 외국공관에 피신중이던 윤 치호도 함께 뜻을 합하여 호응하였으나 비등하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 홍집의 탄발령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김 홍집내각의 붕괴로 다시 윤 치호는 특지사면(特旨敍免)되어 학부협판(學部協辦)으로 대신서리(大臣署理)를 겸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6년 5월 26일 「모스크바」의 크레블린」궁전에서 「러시아」제국 「니콜라이」 2세의 성대한 대관식(戴冠式)이 거행케 되어 정부에서는 전권공사로 민영환을 수석수행원으로는 외교지식과 영어에 능통한 윤 치호를, 노어(露語)통역에는 김 도일(金道一)을 임명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진심이 두터웠던가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일행은 약 3개월간의 「모스크바」 체재를 마치고 8월 하순에 전권 일행과 「프랑스」를 거쳐서 귀국하는 길에 윤 치호는 그곳에 머물러 다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1897년초에 귀국하였다.

3. 독립협회와 윤 치호

당시 외국세(外國勢)의 국내 진입과 정치적인 소용돌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점차 국운이 소진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개화 독립운동의 소수

선구자들과 그들에 의해 계몽된 청년, 지식층 및 이들을 지지하는 일부 민중들은 독립협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당시 아관(俄館)에 머물러 계시던 국왕께서 속히 환궁하시기를 요청하였으며 외세의 중간을 거부하고 독립 주권의 수호를 외쳐왔다.

그리하여 독립협회에 대한 민족의 신뢰와 지지는 드높아졌으며 반대로 정부의 고관대각이나 일부 간신배들은 독립협회를 시기하며 모략증상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이 완용같은 추세대신(追勢大臣)의 회원은 출회(黜會)되었는데 그 대신 전로사절(遣露使節)로 구미 제국을 다녀 시찰하고 돌아와 협회활동에 남달리 진력하게 된 윤 치호에게는 명실상부한 회장의 중책이 맡겨졌다.

그리고 고문인 서재필과 중간간부인 이 상재(李商在), 남궁억(南宮億), 이승만, 양 홍묵(梁弘默) 등과 더불어 좀더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고문인 서재필은 이미 미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였으나 정부는 증오와 시의(猜疑)로서 독립협회에 입하여서 이 운동을 약화시키고 거세하기 위해서 재필을 제거하고 다음에는 보부상(樑負商)패로 「황국협회

「皇國協會」라는 반 민족적 단체를 조직케 하여 독립협회에 반격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서재필이 운영하던 독립신문도 서재필이 망명하던 1898년 5월부터는 윤치호가 사장일까지 맡아보게 되었고 독립협회는 윤치호가 회장으로 들어서게 됨으로부터 이 상재, 이 승만, 남궁억, 양홍복 등 동지와 함께 가일층 활발히 추진되어 나아갔다.

이 해 10월에는 만민공동회사건(萬民公同會事件)으로 윤치호에 압살지령이 내려졌고 이것을 알아차린 윤치호는 정동의 구세병원으로 피신하여 미국인 의사 「쿠트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4. 105인 사건 전후의 활동

윤치호가 이끄는 독립협회는 최후에 붕괴되었으며 회원들은 뿔뿔히 헤어졌다.

그리하여 윤치호는 재출발의 기회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그는 관제(官界)를 떠나 주로 종교활동과 교육사업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이미 1897년 상해에서 선교차 찾아온 「리드」와 함께 고양읍에다가 제1남감리교회를 설립하였는가 하면 파주에는 제2남감리교회를 설립하였고 또한 서울에는

시구문 밖에 광희문(光熙門)교회를 설립하였으니, 벌써 그의 종교계(宗教界)업적은 대단하였다. 그리고 1905년 5월에는 기독교년회(Y. M. C. A) 이사로 피선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1906년 12월에는 부회장에 피선되었고 그 후 1916년에서 1920년까지는 총무로 있으면서 민간 교회운동에도 전력하였다.

1906년 9월에는 미국 남감리교회감독 「캔들러」의 사회로 제10회 연회가 열렸는데 이 때 「캔들러」 감독과 협의하여 개성에서 한미서원(韓美書院)을 설립하고 그는 스스로 원장이 되었다. 이 서원에서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며 후에 이 서원이 1916년에 숭도고등보통학교란 교명으로 바뀌어졌으며 윤치호는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약 4년 남짓이 학교 교장임을 맡아보았다.

또한 1908년 5월에는 세계주일학교(世界主日學校) 연합회 조선지회 국장을 맡아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윤치호는 본래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회의에도 여러 번 참석하였는데 특히 1910년 3월에는 미국 「애틀란타」사에서 열린 남감리교 평신도 협의회에 조선대표로 참석하였다. 또 이어서 「스코트랜드」로 건너가 5월에 「앤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업대회에 참가하고 조선

기독교의 활동을 소개하여서 많은 참석인을 흥분시키기도 하였다.

그 후 1910년 11월 5일 압록강 철교 낙성식에 참석코자 「테라우지」(寺內)총독이 선천택(宣川澤)에 잠시 하차하였을 때 선교사 「G.S. 맥컨」이 「테라우지」와 악수하는 것을 압력으로 암살하려 하였다는 구실로 한 뒤 해서지방에 유수(有數)한 교회관계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1911년 가을까지 체포된 자의 수는 일제의 발표에 의하면 157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중 기독교인 수는 105인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을 가리켜 소위 105인 사건이라 한다.

그리하여 이들을 고문으로 죄명까지 날조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목격자는 이렇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범죄인의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저질 인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교양과 인품의 고상으로 해서 그 생활이 한 있는 순도(順道)와 성실로 차 있을 뿐 아니라 신앙의 돈독과 경전의 깊이로 선교사들에게나 겨러에게 친숙히 알려진 사람들의 일군(一群) 밖에 없었다.

그 인사들 중에는 윤 치호, 양 기백, 안 태국, 이 승훈, 유 동열, 김 진형, 양

전백 등이었다.

그러나 여기 이 순후(淳厚)한 인사들에게 재판장은 이런 핑계 저런 구실로 남감리교인 윤 치호를 비롯해서 105인에게 10년 내지 5년의 형고를 내렸으니 윤 치호도 역시 형을 다 마지기까지 투옥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감형되어서 1915년 2월까지의는 다 풀려나왔으니 실로 한국인이 일제에 정신적으로 싸워온 최초의 시련이었다. 그리하여 윤 치호는 항일국민단체인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인연을 갖고 그가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다시 그는 신민회와도 손을 잡고 국권회복에 전념함으로써 일본 총독부에서는 윤 치호를 매일파의 두명으로 지목하여서 그를 감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05인 사건에도 그가 제일 먼저 체포되는 비운을 안겨 주었으나 105인 사건 이후에는 그에게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5. 윤 치호의 말기

윤 치호에게 있어서 105인 사건에서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던 것이다. 모진 고문과 회롱과 또한 회유책에 그는 견디어 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 정신적인 고충은 견디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05인 사건 이후로 그는 점차 친일경향을 띄게 되었으며 자기사업인

종교활동에 어떤 누(累)가 없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종교활동은 가일층 강화하게 되었으며 이 상재와 구 자옥과 함께 기독교청년회 활동에 전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 청년운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더하였다. 하지만 윤 치호는 계속 견디어 내면서 기독교청년운동만이 결코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을 믿고 몸담아서 열성을 다하여 그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역시 자기의 힘만으로는 견디어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동아전쟁을 유발시킨 일본은 이 전쟁이 성전(聖戰)이라 선전하고 한국인들을 뽑아서 징용제를 채택하고 거기 기독교를 끌어 들였다. 이 때 임진대첩 협의회와 조선임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에 윤 치호와 구 자옥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국가의 긴박하고 간절한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윤 치호에 대해서 그를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에게서는 큰 실망을 안겨다 주었을 뿐 아니라 친일파로 몰리어서 그는 신망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자기가 전념하는 종교활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는 더욱 어려운 고비를 넘기었는

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 과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되었고 기쁨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945년 12월 6일 조국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별세하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 윤 치호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파란 많은 격동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또 기독교 신앙적 기초 위에서 끈질긴 투쟁을 지속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이미 윤 치호 선생은 고인이 되었으나 그가 남기는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탐과 눈물의 자욱들은 이 땅의 여러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애국적인 집념과 투쟁력은 신앙적인 힘이 바탕이 될 때 더욱 끈질긴 지구력이 있었으며 가다가 좌절될 때는 자기 내적인 신앙의 힘이 새롭게 용기를 되찾게 해 주었다.

이로 보전대 인간 윤 치호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 민족관과 역사관을 지속시켜준 것은 오직 신앙심이었다.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어둠을 물리친 사람들



—군중신부 성 민 호—

옛부터 산 높고 물 맑은 나라로 자처하였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한국. 비록 넓은 땅도 아니었고 비옥한 토질도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먹고 사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았으며 태평세월을 구가하였다.

흐르는 세월 속에 인구는 늘어나고 사회의 질서가 세워졌다. 신라가 가고 고려가 지나 이제 조선이 된 것이다.

본래 아시아 동북 쪽에 자리잡은 이 반도는 육로길을 통해 대륙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륙을 통하여 앞서 있는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 성제는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함과 동시에 과거 천여년간을 두고 우월 민족의 정신생활을 지도하여 오던 불교를 탄압하고 주자학으로써 이에 대처하였다. 중국을 사대국으로 섬기려는 모화(慕華)사상으로 말미암아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굳어져 가는 사회제도와

함께 불변의 이념으로 세워졌다. 유학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의식을 강화하였고 그릇된 사회절차는 억압하는 것이 선정(善政)이 되고 악탈이 미덕으로 수식되는가 하면 굴욕을 달게 받는 것이 충절로 변하여 갔다. “인사를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盡人事待天命)라고 가르쳤지만 과연 무엇이 “천”이고 어떤 것이 천명인지 아리송하였다. 답답한 심정은 옛부터 내려오는 대로 굶을 올렸다. 점쟁이와 무당이 생긴 것이다.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기우제를 올렸다. 토속신앙이 발버둥치는 한편 인생무상을 외우는 염불소리가 메아리쳤다. 주역(周易)을 풀고 사주를 내세워 팔자론(八字論)이 나돌았다. 체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숙명론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만과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였다.

실상가상으로 내우외환으로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이 터졌다. 국운은 기울고 강산은 병화(兵火)에 그슬려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그뿐 아니라 위정자이던 양반계급은 계급차별을 엄히 하는 한편 그들의 혈통만을 중시한 나머지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당을 모으고 파를 형성하여 1575년에는 드디어 동인, 서인의 당쟁을 형성하고 동인은 다시 남인, 북인으로 다시 갈라져서 동족상살의 비극을 거듭 연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도 하루 아침에 무관하게 몰락하고 죽음 앞에 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당쟁은 그 후 더욱 악화되어 서인은 다시 노론, 소론으로 분파하여 이후 이 두 파가 주로 국정을 그르치게 되니 남인은 은퇴하여 때마침 북경으로부터 들어온 서양 학술서적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남인들에 의하여 현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역사, 지리, 경제, 종교 등을 연구하는 실험파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어둡고 막힌 사회 가운데서도 우주와 인생의 새로운 밝음을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구의 새로운 서적을 열심히 연구하던 중 우연히 삼라만상의 이치를 밝혀주는 신비스런 책을 발견하였다. 그 책은 중주국인 중국 왕에게 보냈던 조선왕의 사신(冬至使)들이 북경에서 가지고 온 천주교 서적이었다. 천주교의 기본교리

를 가르치는 이 책은 「마테오-디치」라는 예수회 선교사가 쓴 “천주실의(天主實義)였다. 남인학자들은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그들 중에서는 이를 신봉하는 학자도 나오게 되었다.

18세기도 거의 끝날 무렵에 그 당시 유명한 학자 이익(李翼)과 그의 제자 안정복, 이 가환, 정 약용들은 그들이 연구한 것보다 훨씬 탁월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금언(金言)들을 읽고 매우 탄복하여 천주교를 서학(西學)이라고 불려서 학문적으로 더 철저히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천주교는 차차 국민 사이에 퍼져가게 되어 조정에서도 이를 중시하고 엄금하자고 논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때에 이익(李翼)의 제자인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권일신, 권철신, 이덕조들은 정조원년(1777)에 한강가에 있는 어느 산사(山寺)에 모여서 천주교 교리 연구회를 열고 신앙운동을 이룩했다. 그리고 그들은 1783년에 그들의 동지인 이 승훈을 동지사(冬至使)편에 끼여 북경에 들어가게 하여 그곳 천주교 신자들과 교제를 맺고 그 교리에 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에 관한 자세한 책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 승훈은 그 다음 봄(1784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북경 성당에서 “베드루”라는 교명(敎名)으로 성세를

받고 많은 교회서적을 얻어가지고 귀국하였다. 귀국한 이 승훈은 곧 그 해에 동지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음 해(1785년)에는 서울 명례동(明洞)에 있는 중인역관(中人譯官) 김 범우의 집을 교회당으로 삼아서 수십명이 모여 이 덕조, 권 일신을 진부로 뽑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먼저 깨달은 광명의 진리를 누구나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사방으로 전교하기 시작하였다.

권 철진, 정 약전의 형제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삼았고 충청도 지방은 이 단원, 전라도는 유 함걸, 이렇게 지역별로 분담하여 전교하였다.

이리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의 전교함이 없이 오로지 학자들의 자발적인 연구로서 이룩되었으니 이것은 전 세계 종교 사상 우리 교회만이 가진 일대 특징이며 자랑이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는 탄생 후 몇달도 못되어 관헌에게 발각되고 김 범우는 중인(中人)인 탓으로 잡히어 죽었으며 북경으로부터 교회 서적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 당하는 등 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후 백년 동안 계속되는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는 그 기간으로 보나 혹독한 형벌로 보나 박해로 순교한 교인들의 수로 보나 참으로 엄청난 박

해였으며 세계 교회 사상 거의 획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참된 종교를 믿으려는 국민들의 움직임은 억제할 도리가 없어서 천주교는 서울로부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으로 쉽게 퍼져 갔다.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1791년에 다시 전라도 전산에 살던 양반 신자인 윤 지충과 권 상연을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였다.

홍 이섭은 <조선과학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은 새로운 신의 섭리를 전하는 천주교 안에서 참된 귀의(歸依)의 세계를, 교회에서 영생의 세계를, 죽음으로써 생명의 교향을 찾으려고 순수하게 진리를 추종했고 이를 위하여 피로써 싸웠던 것이다. 구두한 적폐(積弊)에 종압된 지식계급은 색로운 지식의 원천으로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누차의 엄금하에서는 순조로운 발달이 어려웠고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서구적 문물과 과학 사상은 그대로 짓밟히고 말았다.

교회와 관헌이 없는 학자의 이야기들 들어 보았다. 실로 「아시아」의 불모지대라 일컬어 온 한국 땅에 새로 전파된 천주교회는 비단 사상과 도의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한 마디

씩 거들지 않을 수 없을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주었고 신앙을 떠나서라도 서양문화의 전달자 또는 근대 과학의 선구자로서 피땀을 흘렸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업적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현양되지 않은 채 묻혀 있으며, 다만 순교자와 박해자로서의 기록만이 그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운동을 여전히 전개하여 1798년부터는 신자 윤유일(尹有一)로 하여금 서신을 북경천주교회 주교에게 전달하게 하여 조선 교회가 성립된 것을 알리는 한편 정식으로 신부를 보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탄복한 북경의 「구베아」주교는 1792년에 조선 교회의 신비로운 탄생사실을 로마 교황 비오 6세에게 보고하고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조선에 보냈다. 주문부는 한국 사람들의 안내로 삼엄한 국경선을 비밀히 넘어서 1795년 1월에 서울로 들어왔다. 이리하여 그는 중언역관 최 인길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때 4,000여명을 헤아리는 한국 신자들을 보살피게 되었다. 6년간의 활동으로 교세가 날로 발전하여 1800년에는 일만 명의 신자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을 안 조정에서는 1801년(辛酉年) 때 마침 정치적 분쟁과 당파싸움에 연유해서 신부를 비롯하여 교인 최 필공, 이 가환, 정 약종, 권 철신, 이 승훈, 황 사영 등을 반역죄로 몰아 사형에 처하였을 뿐 아니라 천주교신자인 몇몇 왕족들도 사형 또는 귀향을 보냈다. 이어서 토사 교문이라는 칙령을 전국에 배포하고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써서 철저히 천주교인들을 색출하여 처형시켰다. 천여명에 달하는 신자가 순교한 이 박해가 곧 한국 교회 사상 처음 보는 신유대교난(辛酉大教難)이었다.

이능화는 <조선기독교 금 외교사>에서 그들의 공적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이 가환, 이 승훈, 정 약용, 정 약전, 정 약종은 유학의 따분한 학설에 엄증을 느껴 서양의 신기한 학문을 받아들였으니 천문역산(天文曆算)의 학이며 농정수리(農政水利)의 서적과 측량실험의 법을 즐겨 받아들이니 가위 사상가요 개혁당이였다. 이들로 하여금 국정을 잡게 하고 슬기롭게 백성들을 이끌게 하였더라면 조선은 동양의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어늘 불행하게도 고루한 유교 배들이 배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니, 오 오! 조선의 불운이여! 라고

이 비극은 이로부터 줄곧 이조 말까

지 계속되었으니 100여년을 두고 한결 같이 짓밟힌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천주교인의 활동은 날로 활발하여 갔다. 누가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생기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일신의 안락과 일가친척의 복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꺾박과 모욕, 멸시의 천대, 추방과 학살, 집안의 멸망이 날이 갈수록 심하게 엄습하는데도 두려워 하지 않았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참된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박해에 반비례하여 모여 들었다. <순교자들의 피는 신자들의 씨>라는 격언대로 이 거룩한 죽음의 행진을 목격한 사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되어 입교하고 후에 순교까지 하였다.

그 후 정 하상(丁夏祥) 등 유명한 학자들의 노력으로 로마교황 「레오」 12세는 파라 외방전교회에 조선지구의 교회사업을 담당할 것을 명하였고 1831년 9월 9일에는 「그레고리오」 16세께서 조선교회를 북경교구로부터 분리시켜 조선에 독립된 교구를 설정하는 결정을 내리었다. 이처럼 로마교황이 조선교구를 독립시킨 것은 조선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적 사실이었던 것이니 청국을 종주국으로 섬기던

당시의 조선에 대하여서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주 문모신부의 순교 이후 30여년간을 두고 신부없이 기적적으로 발전하여 온 한국 천주교회는 비밀리에 입국한 몇몇 프랑스 선교 신부들의 지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다. 쇄국정책을 쓰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 아래서는 얼굴 모습이 다른 서양사람들이 입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한 몇몇 선교사들이 신자들의 기밀한 협조로 입국에 성공하여 물심양면으로 버림받은 양떼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다. 교육이란 서당밖에 없던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서구의 지식을 전달하고 구습을 타파하며 새로운 사회개조에 이바지한 공로는 컸다. 성직자의 양성을 위해 학교도 세우고 유학도 보내었으며 의료원을 세우고 양로원, 고아원을 설립하여 무지와 기아의 선상에 헤매는 무고한 백성을 건졌다.

외국인 선교사가 입국했다는 사실은 안 조정에서는 1839년 기해년을 기해척사유음을 전국에 돌리며 철저히 천주교인을 박해하게 하였다.

조선교구의 2대교구장으로 임명된 「앵베르」 범주교를 비롯하여 두 분의 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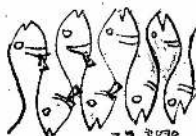
스 선교사와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 대진(金大建) 등 많은 신자들이 1839년의 기해교난(己亥敎難)과 1846년의 병오교난(丙午敎難)중 새남터를 비롯해서 곳곳의 형장에서 순교하였다.

그 후 철종이 즉위한 후 재위 14년간 천주교에 대하여 그리 큰 박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를 틈타서 1849년에는 한국인 최양업신부가 귀국하고 뒤이어 여러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입국하여 활동한 결과 교세는 날로 번성하여 수만명의 신자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철종이 아들없이 죽으니 먼 왕족되는 12세의 고종(高宗)이 즉위하여 그 실권을 부친인 흥선대원군에게 넘겨주었다.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 신자인 남 종삼(南鍾三)과 사귀어 그를 승지와 왕족 자녀들의 스승으로까지 삼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원군의 천주교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1865년에 발생한 노시아의 국제적 문제로 밀감암아 돌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은 남 종삼을 잡아 가두고 1866

년에는 「베르누」주교이하 9명의 프랑스 신부들을 비롯하여 수천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무참히 죽였다. 이것이 곧 한국에서 가장 무참했던 네번째의 병인년 대교난(大敎難)이었다. 이 박해는 이후 3년간을 두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불법으로 살해된 신자까지 합치면 8000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 후 대원군은 1872년 왕비인 민비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은퇴하였다. 이러한 사이에 점차 조정에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과의 수교조약을 맺고 드디어 1882년부터는 점차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00여년간 지하에서, 암흑에서 온갖 고생과 박해와 고초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천주교 신자들은 드디어 많은 피를 흘린 후 지상에서의 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동안의 순교역사를 생각할 때 감회가 크다. 4,000년 동안의 어둠을 물리치고 삼천리 강산에 빛을 가져 온 사람들!



이차돈의 순교



법사 이 인 수

1. 불교전래와 고유신앙과의 충돌

반도의 맑은 하늘 아래 양지를 찾아 농사를 짓거나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춘, 하, 추, 동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섬나라나 대륙과는 달리 천재지변에서 오는 위협이 적었으므로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을 지속해 왔다.

자연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자연도 인간도 중생도 있는 그 바탕에서 순응하면서 조상들은 살아 왔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무엇일까요(思惟)했고 어떻게 생활해 왔던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한 문제다.

한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자면 그 문화가 산출될 밑바탕으로서의 기초적 사상이 있는 법이다.

건축, 공예, 미술, 호국관 등 모든 문

화가 과연 어떠한 사상에서 발생하였을까.

우리의 문화란 삼국시대 불교의 문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이다.

당시 진진 나라로부터 “순도사문”을 시켜서 불상(佛像)과 경전(經典)을 보내온 데서 비롯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리하여 2년 뒤에 “아도(阿道)”가 또 고구려에 입국케 되었던 것이다.

불교에 귀의한 “소수림왕”은 “순도”를 위하여 성문사(省門寺)를 이룩하여 주었고 또 “아도”에게는 이불란사(伊佛蘭寺)를 지어주고 포교케 하였다.

이후 “담징”은 일본에 건너가불교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종이와 먹을 제조하여 그림 그리는 법을 전수하기도 하였다.

신라는 5세기 중엽 “눌지왕”때에 “북호자” 등이 몰래 경상도 선산에 들어와 비밀리 포교한 것이 불교 전래의 시초가 되었다.

흔히 좋은 일에는 굴곡이 있는 것과 같이 처음엔 불교도 탄탄한 대로로 순순히 전래한 것은 아니다.

씨족교류의 전통과 현실생활을 중히 여기던 신라에서 일월신(日月神)과 씨족신 등을 받드는 국가적 신앙이 성하고 또 민간에서는 「사마니즘」의 무속(巫俗)이 뿌리박고 있는 때이니만큼 내세(來世)생활을 신앙하는 새로운 불교가 환영받지 못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 하겠다.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여졌는데 신라에 와서 유독 수난을 당하게 된 까닭은 재래의 폐쇄된 토속신앙에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불교가 당시 중국을 거쳐 중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종교였지만 고유신앙에 호러버린 보수적 거울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로 비쳐졌던 것이다.

괴이한 옷차림과 머리까지 깎아버린 모습으로 이상한 교리를 포교하는 승려의 언동은 아무래도 일꾼 납득이 가지 않았다.

“눌지왕” 때부터 고구려와 접경되어

있는 지역에는 불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오는 승려들이 더러 있었다.

따라서 자연히 신라 북쪽 국경지대의 민간에는 불교가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고구려와의 국경지대에 선산군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선산군에는 “모례”라는 불교신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신라에 들어오는 불교 승려들로부터 불교의 감화를 받고 있었다.

국경선을 넘나드는 승려들에 의해 어느덧 “모례”의 집은 불교가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래되는 거점이 되고 말았다.

때때로 재래신앙의 광신자들에 의한 위협으로 승려들의 신변이 위태하게 되면 “모례”의 집은 그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다.

그 때에 “아도”라는 승려가 고구려로부터 월경해왔다.

“아도”는 “모례”의 집을 찾아가서 한 동안 숨었다가 신라 경주로 내려왔다.

신라왕조에 불교를 받아들이기를 청하자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배타성에 견디다 못해 다시 “모례”의 집으로 돌아가 숨었다. 그 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때마침 진 나라에서 사신이 와 신라왕에게 향(香)나무를 선물로 드렸다.

그런데 신하들은 아무도 그 향나무의 이름과 용도를 알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을 풀어 각각 향나무를 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이름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아도”가 마침 이것을 보더니 「이것은 “향”이라고 부르오」이것을 피우면 그 향기가 분분하므로 정성을 신성(神聖)에게 올리는 것이 된다고. 이론바 신성이란 불타(佛陀)와 달마(達磨)와 승가(僧伽)의 삼보(三寶)를 가리킴이요,

만약에 이 향을 피우면서 기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요 하였다.

그 무렵에 왕녀가 병을 앓았다.

왕이 “아도”로 하여금 향을 피워 빌게 했더니 왕녀의 병이 씻은듯이 나았다.

이에 매우 기뻐한 왕은 사원을 세워 불교를 일으키는 것을 허락했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흥륜사가 세워졌다.

“아도”는 흥륜사에 있으면서 불법을 강론하다가 다시 삼천기(三川岐)에 영흥사를 창건하고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그 왕이 세상을 떠나자 귀족 계급은 다시금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하였다.

“아도”는 신민의 위협을 알아차리고 몸을 피하여 “모례”의 골방에 숨은 다

음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도”의 이와같은 포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신라사회에 자리잡고 있던 보수적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나 백제의 정신문화를 개발시킨 불교의 흐름이 오랜 토속신앙의 벽 앞에서 그냥 멈춘대로 있을 리는 없었다.

마침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역사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건에는 반드시 피로 얼룩진 기록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와같은 피의 기록이 종교사에서는 거룩한 순교로 나타난다.

2. 창사에 얽힌 비화

“이차돈”의 성은 박씨요 자는 열축이라 했다. 삼국유사의 아도비문에는 그의 아버지는 “길승” 조부는 “공한” 증조부는 “홀해왕”으로 되어 있다.

그는 신라가 아직도 고대씨족국가로서의 통치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던 지증왕 7년(508)에 태어났다.

불교를 일찍부터 신봉하기 시작한 “이차돈”은 항상 신라에서 국법으로 불교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한탄하였다.

이웃나라 고구려나 백제는 이미 백여 년전에 정식으로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진작부터 불교 전래에 따른 선진국의 문화를 섭취해 오고 있었다.

당시 “이차돈”은 사인(舍人)이란 벼슬에 있었다.

일찍부터 그는 법흥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터였다.

인자하고 어진 임금인 법흥왕은 본래부터 불교에 관심을 보여 왔었다.

그는 항상 신라에서 불교를 크게 일으켜 놓으리라는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몸을 건지기 위해서나 이 나라의 흥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오직 이 나라에 불교를 퍼는 길 뿐이다」하고 굳게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차돈”은 이러한 법흥왕의 뜻을 일찍 알아차렸다. 그는 신라에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고 언제나 애썼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대궐에서 법흥왕을 뵈었을 때 불교 포교의 문제를 꼬집어 내었다.

「불교를 포교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원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소신으로 하여금 옛 성지인 천경림에 다 큰 사원을 하나 창건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을 우러러보는 “이차돈”의 표정에는 굳은 신념이 서려있었다.

이에 법흥왕으로서는 제대의 무속신앙과 일월신과 씨족신에만 집착하는 모든 신하의 반대를 어떻게 하면 억누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커다란 고민이었다.

그러나 왕은 일대 용단을 내려 천경림에 사원을 짓는 공사를 허락하였다.

천경림은 백여년전인 눌지왕 때에 고구려 승려 “아도”가 들어와 광명에 의해 처음으로 흥불사를 세웠던 곳이었다.

그리하여 오래토록 애타계 그리던 “이차돈”의 꿈은 이제 현실로 되어 가고 있었다.

“이차돈”은 오로지 불교를 일으킨다는 일념으로 그의 정열을 모두 불태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구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림자를 어찌할 수 없었다.

비록 이 공사가 왕의 윤허를 얻어서 현재 순조로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필시 어느 시기에 가서는 반대파의 좌절공작에 부딪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항상 임금의 뜻을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에 부딪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 이차돈으로서는 그것이

걱정이었다.

만약에 처음 짓는 사원의 공사가 도중에 군신의 반대로 좌절된다면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 던져서라도 이 공사만은 관철하리라고 결심했다.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로부터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만약 억만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란 그리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는 억만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서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가 있었다.

3. 거룩한 죽음

그 해에는 유달리도 가뭄과 장마가 심해서 한재와 수재 때문에 농사가 밭이 아니었다.

게다가 장마가 들면서부터는 온 나라 안에 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죽어갔다.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흉흉한 유언이 나돌기 시작했다.

평소에 불교 전례를 반대하던 군신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들은 상감이 불교를 가까이하고 요물이 궁중에 드나드는 까닭이라고 민심을 선동했다.

요물이란 물론 “이차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민심을 극도로 흥분하게 해놓은 다음 군신들은 사원 짓는 것이 과연 신라를 위해 온당한 처사인지를 군신회의에 붙이게 하자는 운동을 은연중에 일으켰다.

임금과 조정의 모든 신하가 한 자리에 모여 그 가부를 결판 짓자는 것이었다. 드디어 군신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궐 안은 심상치 않은 공기가 감돌았다.

회의는 온통 긴장과 흥분의 도가니였다. 회의 벽두에 왕은 거침 없이 소견을 밝혔다.

『이웃나라 고구려나 백제에서 백여년 전에 불교가 행하여진 뒤로 나라가 날로 융성해지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거늘 유독 우리 나라만이 불교를 행하지 아니함은 심히 유감된 일이에요. 나는 이제 우리 나라에도 불교를 행한 것을 이에 제의하는 바예요』

법흥왕의 말이 끝나자 당황한 군신들은 한때 동요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러나 군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완강한 반대의견을 올렸다.

그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바는 불교와 같은 해괴망측한 이교(異敎)들이 나라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죄를 입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명을 따를 수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만일이라도 지금 그와같은 고유 전통 신앙에 벗어난 교를 받아들인다면 이 나라를 위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회의장내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했다. 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이차돈”은 군신들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군신들은 마침내 결 짓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천경탑에 절을 짓는 공사를 벌인 책임자를 밝혀내어서 처단해야 하오』

이때 “이차돈”은 결연한 태도로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절은 이 몸이 단독으로 지으려 한 것이요. 상감마마께서도 이 일에는 아무런 아시는 바가 없으시오. 이 몸이 혼자 생각으로 일으킨 공사요. 책임은 이 몸 한 사람에게만 있소.

그리하여 그는 혼자 책임을 지고 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법흥왕 14년(527)에 일어난 일이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형을 받을 때 “이차돈”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부처님이 만약神通력이 있다면 내가 죽은 후 반드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다 한다.

목을 베었더니 젓같은 흰 피가 솟아났다고 한다.

이런 전설의 진실성 여부가 어떻든지 그가 순교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사는 부처님을 책망하는 일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의 순교는 신라 역사상 길이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차돈”의 거룩한 희생이 있은 이듬해인 528년에 법흥왕은 신라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국교로 승인할 것을 선포하였다.

흥륜사 창건 공사는 몇해 후인 법흥왕 21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마침내 진흥왕 5년에 완성을 보았다.

그 법당에 십성(十聖)을 모실 때 “이차돈”도 그 가운데 모셨다.

그의 거룩한 영상(影像)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 속에 역력히 살아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의 순교 장면을 상징하는 육면석당(六面石幢)이 현재 경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석당은 거룩한 그의 죽음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었다.

시대 — 20여년 전

장소 — 함북 어떤 농촌

1

삼돌이의 정신은 점점 현실과 멀어졌다. 흐릿한 기분에 싸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으쓱하기도 하고 그저 흰한 것 같기도 한데로 끌려갔다. 수수깡 울타리가 그의 눈앞을 지나고 꺼뚱한 창살이 꿈속같이 보이는 것은 자기집 같기도 하나 커다란 나무가 군데군데 어른거리고 퍼런 보리밭이 보이는 것은 이웃 최돌이네 집 사랑뜰 같기도 하고, 저편에 갔던 외갓집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떤 건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 때문에 기분이 불쾌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가 왔는지도 왔는지도 의식치 못하였으며 밤인지 낮인지도 몰랐다. 그의 눈은 그저 김오른 거울같이 모든 것을 멀경게 비칠 뿐이었다.

이때에 그의 정신을 혼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조금 전부터 저편에서 슬금슬금 기어오는 커다란 머리(頭)였다. 처음에는 저편에 수수깡 울타리 같기도 하고 짙더미 같기도 한 어두운 구석에서, 뭇곳이 내밀더니 점점 가까와질수록 흰 바탕에 누른 점이 어른거리는 목배대기며 검푸른 비늘이 번쩍거리는 머리며 뚝 빠진 둥그란 눈이며 끝이 두가

최
서
해

닥된 바늘같은 혀를 울썩울썩하는 것이
그리 빠르지도 않게 슬금슬금 배밑이해
오는 팔은 차마 볼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등에는 그도
모르게 찬땀이 흘렀다. 그는 뛰려고 하
였다. 다리는 누가 꼭 잡은듯이 쥔 수
없고 팔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무서운 기다란 짐승은 조금도 거
리낌 없이 슬금슬금 기어왔다. 이제 위
급이 한 찰나 새이다. 그의 몸과 그 짐
승의 입 사이는 겨우 자나 남았다.

그는 소름이 쭉 끼쳐왔다. 그는 악을
썼다. 사지는 여전히 마비된 듯하여 꼼
작할 수 없었다. 소리를 질렀다. 입만
썩썩 벌어질 뿐이지 목구멍이 카 막혀서
숨도 크게 쉴 수 없었다. 그의 숨결은
울렁거리는 가슴과 같이 급하고 잦았다.

온몸의 피를 끌어가면서 쓰는 애도
이제 모두 허사가 되었다. 그의 왼편
발뒤꿈치가 뜨겁하였다.

『으악……』

그는 온몸의 악을 다 내어 소리를 치
면서 날뛰었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었다. 징그럽게도 긴 그 짐승은 발
뒤꿈치를 꼭 문채 질질 끌었다.

『에구…… 이잉…… 아이구……』

그는 소리쳐 울었다. 뛰던 그는 귀를
짜르는 벽력같은 소리에 우뚝 섰다.

머리를 돌렸다.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고 사면을 돌아보았다.

『저게 미치지 않았는가?』

『히히히』

『야 이놈아! 아프다고 똥계를 대고
자빠졌다가 지랄이 무슨 지랄이야? 으
응 작 똥……』

마루 위에서 벽력같이 지르는 주인
김좌수의 호령소리가 두번 날 때, 삼돌
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눈앞에
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엄연하게 보
이고 마루 위에 거만스럽게 앉은 김 좌
수의 불그레한 낮이 보였다. 소나기 뒤
쟁쟁한 벌은 축은한 땅에 흘러서 눈이
부시고 서늘히 스쳐가는 바람결에 논
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별 세상에
선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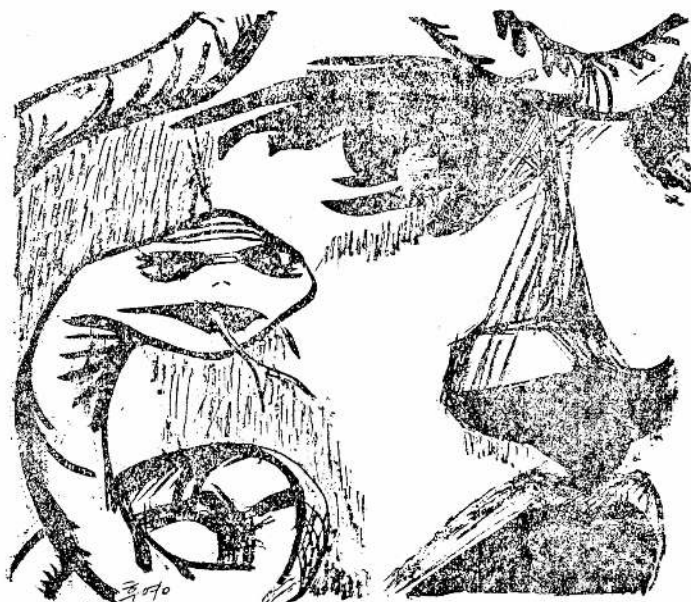
『야 이 머저리(바보)같은 놈아. 들
세 무슨 머저리 행세(바보짓)냐? 무시
기 어찌구 어찌? 뱀아페(한테) 물린게
아프구 어찌구? 뛰기만 잘 뛰더구나!』

김 좌수는 물었던 장축을 한 손에 뽑아
들고 노염이 충일해서 호령을 하였다.
뜰에 나다니는 여편네들은 입을 막고
돌아가면서 웃었다. 삼돌이는 죽은 듯
이 서 있었다.

『글세 이놈아 입이 붙었니? 어찌 대
답이 없니? 어찌 그랬니?』

김좌수는 또 소리를 질렀다.

『뱀이 와서 발뒤축을 물어서……』



삼돌이는 쥐구멍으로 들어갈듯이 겨우 대답하였다.

『뱀이? 저놈의 새끼 실루 미쳤구나! 뱀아페 물릴게 아프다구 허덕간에 한나절이나 자빠져 잤는데 무슨 뱀이 또 거기 있더라 말이나? 저놈이 필시 꿈을 꾸게로구나? 하하.』

김좌수는 마지막 말에 자기로도 우스운지 웃음을 못 참았다.

『참말 그래 내가 꿈을 꾸었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삼돌이도 픽 웃었다. 삼돌이의 웃는 것을 본 김 좌수는 다시 노염이 등등해서 호령을 날린다.

『제야 잘한제 웃음이 무슨 웃음이,

어서 또 가봐라. 비 오구 난 뒤끝이니 나왔을 거다……』

『이—구, 실루 머걸이(바보)네!』 병아리 다리를 노끈으로 붙잡아 매어가지고 마루 아래서 놀던 김 좌수 아들 만득의 소리가 더욱 듣기 괴로웠다.

자기보다도 썩 차가 있는 어린 것에게까지 비웃음을 받는 것이 알 수 없이 불쾌하고 낮이 붙어지면서 온몸이 땅속으로 잣아드는 것 같았다. 만득이는 연주창을 얹아 목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늘 머리를 원편으로 깨웃하였다.

뻗뻗이 말라서 허수아비에 옷을 입힌 듯한 만득의 해쓱한 낮을 볼 때, 삼돌

의 가슴에는 가증스런 생각도 치밀고 미운 생각도 치밀었다. 그것 때문에 밤 낮「배암」잡아들이라는 호령받은 것을 생각하던 어서 죽어버리고도 싶었다. 그리고 전번에 왔던 의사도 미웠다. 그놈이 아니었다면 배암잡으러 왜다녀?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산 배암에게 물리면 연주창에 큰 호파가 있다』

하고 의사가 가르친 뒤부터 삼돌이는 배암잡으러 다녔다.

그러다가 이틀 전에 배암에게 다리를 물리고 그것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드러누웠더니 그런 꿈을 꾸고 또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다.

『넌까지 그러고 있겠니? 빨리 가 잡아라!』

김 좌수의 호령에 멍하니 섰던 삼돌이는 왼편 다리를 절룩절룩 걸면서 사랑머슴방으로 나갔다. 쟁쟁한 벌은 그저 땅에 흘렀다.

2

삼돌이는 배암잡는 무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것은 낚싯대 끝에 달총 올가미를 붙잡아 맨 것이다. 배암의 목을 올가미질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삼돌이의 지혜로 나온 무기였다.

맘과 먼지가 엉키어서 절뚝절뚝한 적

삼 등골로 스며드는 삼복별은 유난스럽게 뜨거웠다. 무릎까지 오는 베고이에 코가 떨어진 짚신을 끌고 절룩절룩 걸을 때마다 몸에서 오르는 땀냄새는 시뚱하고 꾸리었다.

집 앞 재마밭을 지나서 눈이 모자라게 벌어진 논가 길에 나섰다. 찌지는 별 아래 빛나는 혼전한 눈물은 자 남짓이 큰 벼포기 그늘을 잡혔다. 그루를 박아 세운듯이 한결같은 키로 질펀히 이어선 벼는 율기나는 푸른 비단을 살짝 깔아 놓 것 같았다. 이따금 스치는 서늘한 바람에 가는 냇잎이 살금살금 물결치는 것은 빛나는 봄하늘 아래서 망망한 한 큰 바다를 보는 것 같았다. 삼돌이는 멍하니 서서 그것을 보았다. 시각이 옮겨갈수록 현실에 피로온 그의 의식은 점점 신선하고 빛나는 자연과 어울려서 그는 자기라는 존재까지 잊었다. 그에게는 빛나는 태양과 푸른 별관과 서늘한 바람이 있을 뿐이었다.

베고이 적삼에 샷갓을 쓰고 논기움에 등을 찌지던 농군들은 저편 방축 비드나무 그늘 아래서 담배도 피우고 장기도 두고 있다. 삼돌이는 그것을 볼 때 잠잠하던 마음이 다시 물결쳤다. '자기도 밭이나 논에서 기움델 때는 길가는 개까지 부럽더니 오늘은 그것이 도리어 부러웠다. 그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

서 방축 아래 좁은 길로 앞산을 향하였다.

『삼둥이, 자네 또 뱀잡으러 가는가?』

방축 위 서늘한 그늘 속에 누워서 담배 피는 늙은 농부가 소리를 쳤다. 삼둥이는 대답없이 그리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웃기는 개꽃 싸라간 놈처럼! 히히』

그 옆에서 고누를 두든 쇠뿔이라는 젊은 농꾼이 웃었다.

『에이구! 꼭꼭 뱀이를 그렇게두 잡니? 새나 다람쥐를 탈총알개미루 잡지 뱀을 올개미로 잡는 걸 어디서 왔니, 하하하』

『그리문 어떻게 잡니?』

힘없이 말하는 삼둥이는 서덕한 웃음을 억지로 웃었다.

『몽치로 때려 붙들어야지 이놈아.

뱀이 죽었다구 올개미에 들겠니?』

『응, 때리곤 죽어두…… 산뱀이래야 쓴단다』

누군지 기다리고 있는듯이 받아쳤다.

『응, 산 뱀은?』

『김좌수 아들이 엔쥐쟁 있는데 손가락 물기문 낫는대네』

이런 말을 듣다가 삼둥이는 다시 걸음을 걸었다. 머리 뒤에서 수군거리고 웃는 것은 모두 자기를 비웃고 멸시하는 듯이 불쾌하였다. 걸음까지 넉넉거

렀다.

모래땅은 물기운이 벌써 빠져서 삭삭 마르고 굳고 오목한데는 그저 빗물이 과이어서 반짝거렸다.

구불구불하고 축축한 산길을 휘돌아 오른 삼둥이는 쓰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앉았다. 등에는 땀이 흘린 내배고 전신에서 후끈후끈 오르는 땀냄새는 김갈이 뜨겁고 시뻘하였다. 그는 이마의 땀을 씻으면서 가슴을 풀어헤쳤다. 가슴은 다구 뛰었다.

크고 작은 소나무가 뿔뿔히 들어서서 으스스한 속에 가지 사이로 흘러드는 쟁쟁한 빛은 우거진 풀잎에 아롱아롱 흘렀다. 이따금 울울한 소나무 끝을 스치는 바람소리는 시원히 들리나 숲속은 고요하였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스쳐서 어른어른 푸른 벌이 내려다 보이고 그 한쪽으로 벌에 눈이 부실듯한 마을 집이 보였다. 이렇게 사면을 돌아보면서 한참 앉았으니 몸이 점점 식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한숨 자고 싶었다. 그러나 주인 영감의 시뻘건 눈썹이 눈앞에 언뜻할 제 그는 정신이 반짝 들고 차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다시 터덕터덕 산마루턱 감자밭가에 이르렀다. 우중충한 숲속을 벗어나오니 환한 것이 줄지에 탄 세상이나 밝는 것 같았다. 그는 감자밭

과 숲 사이에 난 좁은 길로 돌아다니면서 끼웃끼웃 하였다. 돌을 모아 놓은 각 담에도 뒤져보고 쓰러진 나무등걸 위도 보았다. 소나기 지난 뒤요 따라서 벌이 쟁쟁하니 배암이가 나오리라는 자신도 없지 않았다. 그는 어둔 벼랑길을 더듬는 소경처럼 조심조심스럽게 걸다가는 서고 서서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였다. 이름도 모를 풀이 우거진 속을 들여다보고 풀잎이 다리에 스르럭 스르럭 스릴 때면 그는 공연히 몸이 오싹오싹하고 옮기면 발이 저절로 멈추어졌다. 어디서 바람소리 새소리만 들려도 그의 가슴은 두근두근 하였다. 이렇게 어침어침 하다가 갑자기 맨끝 커다란 나무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그는 우뚝 서면서 입을 벌렸다.

그는 금방 뒤로 자빠질듯이 궁둥이를 뒤로 내밀고 서서 어쩔 출을 몰랐다.

그의 눈은 유리알을 박은듯이 꼼작 않고 쓰러진 나무 위만 쏘고 있다.

크고 작은 풀이 우거진 새에 흉악한 짐승같이 쓰러진 것인지 꺾질은 썩어 벗겨지고 살빛이 거뭇하게 되었다. 군데 군데 쪽쪽 트기도 하고 감탕물 속에 거머리 지나간 자취 모양으로 아롱아롱 좀먹은 자리도 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뜨거운 벌에 송진이 끓어서 번지르하고 켜득켄득하게 되었다. 그 나무 환복판에 길이가 발이 남고 굵기가 어린이 팔뚝만한 것이 고요히 붙어 있다. 퍼런 등갈은 햇빛에 윤기가 번뜩거리고 회색한 뱃살에 누른 점이 얼룩얼룩하였다. 그리고 둥그스름하고 넓죽한 머리에 불끈



배진 눈은 때북때북하였다. 그 생김새
김이 자기를 물던 늑갈기도 하였다. 그
늑에게 물려서 이틀밤이나 신고를 하고
아직도 낫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그늑을
꼭 깨물어 잘근 잘근 씹어삼키고 싶으
나 때북때북한 눈썹이나 얼룩얼룩 징
그럽게 늘어진 꿀은 금방 몸에, 와서 말
리고 서리는 듯해서 점점 뒷걸음만 났
다. 그러다가도 주인 영감에게 서리갈
은 호령을 들을 것을 생각하니 그저 물
러갈 수도 없었다.

우우 하는 소리와 같이 수수 흔들리
는 소리가 들렸다. 배암만 보고 무시무
시하게 서 있는 삼들이는 깜짝 놀라 뒤
를 보고 발을 굽어보았다. 그것은 바람
지나는 소리였다. 그는 긴 한숨을 쉬던
서 가만가만 나무등걸 걸으로 갔다.

손에 잡은 낚싯대가 자랄만한 곳에
가서 엉거주춤 섰다.

『척-척.』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고요한 벌 아
래 누웠던 배암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머리를 들어 자로 구부리고 눈을 때북
때북 하였다. 그때 그늑을 꼭 때렸으면
담박 잡을 듯하나 그래서 죽으면 힘은
힘대로 들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늑을 실 다루어서는 땡소니를
칠 것이다. 삼들이는 이렇게 생각은 하
면서도 어쩔줄을 몰랐다.

그는 낚싯대를 뺄쳐서 올라미를 배암
머리편에 주었다. 배암은 머리를 기웃
기웃 하더니 늘씬한 몸을 늘였다 줄이
면서 그 나무등걸 밑으로 머리를 수그
렸다. 푸른 바탕에 누른 점 흰 점이 별
에 얼른얼른 빛났다. 그것이 징글 징글
기어 풀 속으로 내리는 것은 정신이 아
찔하도록 무서웠다. 그것이 풀포기 밑
으로 스르르 나와서 바짓가랑이 속으로
금박 들 듯이 신경이 찌긋찌긋 하였다.
그는 등끝에 찬 땀을 흘리면서 소름을
쳤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안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낚싯대로 등걸
에 겨우 남은 꼬리를 쳤다. 꼬리는 꾸
불하더니 쓴살같이 풀속에 숨어버렸다.
그때 그는 바른편 넓적다리가 뜨끔하였
다. 그것은 배암의 꼬리를 칠 때 낚싯
대가 잘못 넓적다리에 찔린 것이었다.
신경이 예민해진 그는 그것이 배암의
이빨이 박히는 줄 믿었다.

『으악……』

삼들이는 낚싯대를 버리고 뜨끔한 넓
적다리를 붙잡으면서 뛰었다. 잠자포기,
풀포기, 나무등걸, 가시밭—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뛰었다. 발에
걸렸던 짚신은 어디로 갔는가?

발끝과 아랫다리는 나무 그루와 가시
에 찢겨서 새빨간 피가 스치는 풀잎을
물들였다. 그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삼들은 그저 허둥지둥 뛰었다.

한참 뛰는 삼들이는 짜끈—소리와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일면서 정신이 아찔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 바위 밑에 쓰러진 삼들의 이마에서는 걸디 건 피가 느리게 흘렀다.

바람은 때때로 숲끝을 우수수 지났다. 서천에 좀 기운 별은 여전히 가지 사이로 흘러들었다.

멀리 눈밭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논길 노래가 새소리, 빌레소리와 같이 숲속으로 흘렀다.

3

삼들이는 등골이 선뜩선뜩함을 느끼면서 흐릿한 눈을 비비었다. 우중충한 가지와 가지가 머리를 덮은 사이로 흰 하늘이 엿보였다. 그는 일어나 앉아서 앞뒤를 보았다. 자기 몸은 뜻하지도 않은 풀 속에 있다. 지금이 아침인가? 저녁인가? 또는 밤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는 피물은 자기 손이 언뜻 눈에 피자 두 눈이 뚱그려졌다.

손을 펴서 들고 뒤쳐보고 젖혀보다가 적삼 앞과 속곳에 검붉은 피가 발린 것을 보고 그는 눈은 더 뚱그려졌다. 그는 비로소 앵한 이마가 깨릿깨릿함을 느꼈다. 그는 이마에 손을 대었다.

손이 닿을 때 이마가 쓰리고 손에 찰은 한 것이 발렸다. 그는 손을 떼어 보았다. 언제 흐른 피던가 엉기어 걸어져서 흐르지는 않고 그 빛은 검붉다. 이마는 점점 쓰리고 아렸다. 그는 주그리고 우두커니 앉아서 두 손을 엇걸은 채 피뺏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였다. 그의 눈은 옛기억을 쫓는듯이 흐릿한 속에 의심이 들어갔다.

피가 웬 필까? 어찌하여 예까지 왔나? 집에서 떠나서 배암잡다가 뛰던... 이렇게 아까 일이 오랜 일같이 슬금슬금 떠왔다. 그러나 어찌다가 이마가 터진 기억이 얼른 나지 않았다.

누구에게 맞았나? 아니 맞았으면 모를 리 없다. 배암에게 물렸나. 배암이 이렇게 물리는 없고..... 이렇게 생각 생각 끝에 허둥지둥 뛰다가 이마가 찢은 부딪치던 일까지 생각났다. 그러나 그 뒷일은 잠시 떠오르지 않았다.

『오오 그래 어디 부딪친 게로구나』

그는 무슨 수수께끼나 풀은듯이 이렇게 혼자 부르짖었다. 동시에 그는 넓적다리를 급히 만져보았다. 아까 뜨거하던 기억이 오론 까닭이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볼 때 그는 혼자 께 웃으면서 한숨을 지었다.

삼들이는 모든 기억이 또렷이 나설 수록 이마가 몹시 제렸다. 그는 풀잎을

따서 피를 씻었다. 풀잎에 달을 떠던
바늘로 머꿈 찌르는 듯도 하고 딱지 뽀
현대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온몸이
송구러들었다. 피를 씻은 뒤 허리끈을
풀어서 이마를 동였다. 그리고 바지춤
을 움켜잡고 숲속을 어슬렁 어슬렁 나
왔다.

감자밭에 나선 그는 조심스럽게 아까
배암 나왔던 등걸 앞으로 갔다. 풀대가
바람에 일흔하여도 배암 같아서 가슴이
드끔하였다. 그는 저편 풀 위에 던져져
서 풀이 바람에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
는 낚싯대를 집어 들고 마을로 향하였다.

숲속에 흐르는 빛은 자취를 감추고
죽죽한 그늘이 숲을 덮었다. 바람이 스
치는 때마다 잎들은 우쭐우쭐 춤을 췄
다. 어디선지 새소리가 울렸다. 나무
사이를 스쳐서 빌리 파란 벌판 끝에
저녁별이 빨갛게 타들었다. 그는 더듬더
듬 내려오다가 길옆에 서리서리 늘어진
췌녕쿨을 찢어서 허리를 잡아매었다.

우중충한 숲을 벗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온 그는 별에 나눴다. 아까 지났던
방축 아랫길로 발을 옮겼다. 방축에 모
여 앉았던 일꾼들도 강그리 논으로 내
려가고 머리에 석양을 받은 수양버들
만이 실바람에 흐느적거렸다.

앞으로 끝없이 잇닿던 푸른 논판에
붉은 저녁별이 비껴 흐르고 또 바람이

흐르는 것은 더욱 아름다웠다. 온 세상
의 모든 행복은 기쁨이 흐르듯이 윤기
돌아 먹음직하게 연연히 자란 푸른 포
기가 벼바람에 물결쳐 넘는듯 하였다.
온 몸을 벼포기 속에 숨기고 오직 샷샷
꼭대기와 땀배인 등만 드러내고 기어가
면서 김매는 농군들은 신선같이 보였
다. 그는 그것을 보고 맞추어 부르는
격양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자기도 배암잡이만 아니었다
면, 아니 그놈의 만득의 연주창만 아니
었다면 지금 저 속에서 저들과 같이 노
래를 부를 것이다. 이슬에 배잡방이를
적시고 불벌에 등골을 찌지면서 김매는
것이 더 말할 수도 없는 설움이요 피로
움인 줄 알았더니 이제와서는 세상에
그처럼 즐거운 일은 없을 것 같다. 지
금 신선같이 느껴지는 저 푸른 벼바다
속에서 김매고 노래부르는 그네가 모
두 자기와 같은 사람이요. 또 자기 친구
이요, 또 같은 사람이요, 또 친척이요,
또 같은 일꾼이요, 배냐배냐 지내왔는
데 지금은 그네가 별로 높아진 듯이 느
껴졌다. 그렇게 느껴질수록 그는 두 어
께가 축 늘어지는 것 같고 온 몸이 땅
에 자지러드는듯 하였다. 스쳐가는 바
람, 흔들리는 풀조차 자기를 비웃는 듯
이 자취마다 설움이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 구석으

로 다니면서 쫓이나 배고 소나 먹이겨
 김 배면서 나이 삼십이 되도록 장가
 도 못들고— 그것도 부족하여 팔자에
 없는 배암잡이로 다리병신 되고 이마까
 지 피터진 것을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가슴이 데어지고 눈에 눈물이 핑돌았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목이
 메어 소리는 나오지 않고 눈물만 짹짹
 흐르고 가슴이 콕콕 막혀서 주먹으로
 가슴만 팽팡 쳤다.

논판에 흐르는 석양은 점점 자리를
 옮겨서 멀터 멀터 붉어가고 서늘한 실
 바람은 끊임없이 수양버들 가지를 흔들
 었다.

한참 애통해 울던 삼돌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일어섰다. 방축 아매 벼잎
 에 진주같은 별이 흐르는 논가 좁은 길
 을 지나 집 가까이 왔다. 타박타박한
 그의 걸음은 더 느리어졌다. 그의 발은
 마음과 같이 무거웠다. 만일 그의 손에
 꿈틀거리는 산 배암만 잡혔다면 그는
 이마가 제리고 다리 아픈 것까지 잊어
 버리고 집으로 달려들어 갔을 것이다.
 주인 영감의 독살 오른 눈과 고수불같
 이 붙어서 불룩불룩하는 두 뺨이 눈앞
 을 언뜻 지날 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면
 서 머리를 힘없이 가슴에 댈어뜨렸다.
 그는 발을 돌렸다. 그만 어디라 없이
 끝없이 끝없이 가버리고 싶었다. 이꼴

저꼴 다 안 봤으면 살이 쪼갤 것 같았다.

『에키 가자! 그만 달아나자!』

이렇게 생각은 하였으나 가면 어디로
 가며 간들 무슨 수가 있으랴—하는 생
 각이 또 머리를 울렸다. 뒤따라 너털너
 털한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이집 저집
 들어가도 밥한술 주지 않고 일까지 시
 켜주지 않아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
 술을 마시면서 밤을 지내는 옛날의 자
 기 그림자가 눈앞에 떠오를 때 그는 그
 것을 보지 않으려는 듯이 머리를 흔들
 면서 획 돌아서 집으로 빨리빨리 걸
 었다.

삼돌이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 앞
 채마밭에 나신 주인 영감의 그림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여 눈앞이 흐리
 고 다리가 떨렸다. 마치 침침 산야에
 무서운 짐승있는 굴로 들어가는듯 하
 였다.

『응, 오늘은 잡았지?』

삼돌이를 본 김 좌수는 「네까짓 놈이
 그렇지 무얼 잡겠나?」하는 눈초리로
 물었다. 삼돌이에게는 그 소리가 벽력 같
 았다. 그는 머리를 수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다.

『어째서 대답이 없니?』

김 좌수의 소리는 점점 커졌다.

『못잡았오……』

무서운 힘 앞에 마주 선 잔약한 생명

의 '소리같이 삼들의 가는 소리는 뿔렸다.

『응 무시기 어쩌구 어째? 아까운 쌀의 뱃등이 터지도록 먹구 그거 하나도 못잡는단 말이야? 응 글썽!』

주인영감은 삼들이를 쥐어나 박을 뜻이 벌벌 떨면서 눈이 빨개져 삼들이들 노려보았다.

『이태(額)는 왜 그 꼴이냐?』

『털아페(털한테) 쫓기와서(쫓겨서) 얹어져서(넘어져서) 그렸음베!』

그는 겨우 울듯울듯이 대답하였다.

주인영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는 가족신 신은 반로 삼들의 가슴을 찼다.

『헛』

삼들이는 기운없이 자빠졌다.

『이놈아!』

주인영감은 또 쥐어박을 뜻이 주먹을 부르쥐고 앞으로 몸을 쏠리면서

『이 못생긴 놈아! 응? 뽕잡기 싫으니 일부터 이따들 터쳐가지구 와서…… 부순 개소리를 친단 말이나? 그깟놈의 핑계 때문, 뉘키 공이나 듣니? 응 이놈아(거꾸러져 소리없는 삼들이의 등을 막 밟으면서) 가가라, 저런 쌍놈의 세끼를 밥을 먹이다니……』

분이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펄펄 뛰었다.

『애고! 이게 영감이사… 이게 워전 일이요, 그만두오!』

결에 있던 주인마누라가 주인의 팔을 끌어당겼다.

『노덕(마누라)이는 아무것도 모르구서 가만 있오! 저놈아를 죽이든지 내 죽든지 해야지!』

주인은 또 발을 들었다. 주인마누라는 주인의 발을 집싸게 안으면서

『영감! 이저 그만두오……』

울듯이 말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채마밭 머리에 죽 모였다.

삼들이는 땅에 꺼꾸러진 채 아무 소리도 없었다.

무심한 저녁 연기는 점점 퍼져서 마을을 싸고 먼 산허리까지 밀렸다. 피피거리고 발머리를 해매는 닭들도 꽤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4

반부터 내리는 실비는 아침에도 졸졸 내렸다. 김 작주는 아침 뒤에 샷갯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배추밭에 오줌똥을 주었다. 거뭇하고 부들부들한 흙에 비가 퍼어서 더닐 때마다 발이 찌죽 찌죽 들어갔다. 샷갯에 떨어진 비는 샷갯의 귀로 낙숫물처럼 흘러내렸다. 후줄근한 고의 적삼 소매끝과 가랑이 끝에도 물이 뚝뚝 흘렀다. 그는 팔을 불끈 건어붙이고

바가지로 똥을 끌어는 것을 퍼서는 한 쪽 손으로 배추포기를 비스듬 밀면서 밑등에 부었다. 큰 항아리 통같이 비대한 몸이 쿵쿵하면서 둥그둥그 수그렸다 일어났다 하다가는 한숨을 쉬고 턱에 흘러내린 땀물을 씻으면서 땀뺀이 서서 이리저리 돌아보았다.

바람없는 가는 땀발이 푸른 잎에 소리를 내는 것은 먼 바람 소리같기도 하고 온온한 물소리 같기도 하였다. 붉은 물과 먼산은 푸른 빛속에 고요히 잠자는 것 같다.

어디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

병아리 데린 암탉은 저편 울타리 밑에서 꼬록꼬록 하면서 목을 늘어 끼웃 끼웃한다.

『여키 망한 놈으 세개 자빠져서 늪은 게 이 고생이로구나』

김 좌수는 혼자 분개한 소리로 보이면서 둥그둥그 오줌을 나른다. 삼돌이가 이마와 다리가 저러서 머칠 드러누워 있게 된 뒤로 집터 밭을 김 좌수가 돌아 고르게 되었다. 그는 비오는 때를 타서 거름을 한다고 식전에도 삼돌이를 죽으라고 호령하고 아침 뒤에 배추밭으로 나왔다.

김 좌수는 삼대 좌수이다. 그 까닭에 여기에는 지금도 읍으로 들어가나 시골 집으로 나오나 세력이 등등하였다. 누

구나 그 앞에서 기지 않으면 호령이요 분기였다. 그것은 무조건이다. 그러나 그의 집은 펴 소조하다. 그의 마누라, 아들, 버느리, 버슴, 그, 그리고 먼 일 가되는 늪은 여편네가 와서 밭짓고 팔려나 거들어주고 얻어먹는다. 그의 아들 만득은 금년 열여섯이 된다. 열두살 때에 장가보내서 버느리를 삼았는데 만득이가 어려서부터 목에 돌린 연주창이 장가든 뒤로는 더 심해서 약이란 약은, 의원이란 의원은 다 들여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작년에 죽은 큰마누라에게 자식이 없어서 처녀 장가 들여서 맛은 첩에게서 늦게야 얻은 것이 만득이었다. 그러한 자식의 병이니 간호가 여간 크지 않았다. 일전에는 다도 의원을 모셔다가 보였는데 그 의원은 이리 한 말을 하였다.

『태암 산 것을 잡아서 병자의 손가락을 물리시오. 그놈이 연주창 있는 사람은 잘 물지 않으니 그리 알아서 단단히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거든 사람의 모가지 고기를 병자가 모르게 얻어 턱이시오. 그밖에는 약이 없읍니다.』

이 뒤부터 김 좌수는 여러 군데 산 배암을 잡아들이라는 영을 놓고 머슴 삼돌이까지 배암잡이에 내놓았다.

『아, 좌수영감은 이 비오는데 어떤 알

이오니까?』

하고 등 뒤에서 외치는 소리에 김 좌수는 머리를 돌렸다.

『응 자네 오는가? 이 비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가?』

김 좌수는 일어섰다. 그 사람은 김 좌수 동리에서 이십리나 떨어져 사는 사람인데 최 유사라고 부른다.

『여겨지 온 길 이외다』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고 부대를 등에 걸친 최 유사도 샅샅이 썼다. 가늘고 힘겨운 다리에 구슬구슬한 검은 털이 나고 푸른 힘줄이 아른아른 한 것은 농토에 어울리지 않는 살빛이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저 한결같이 내리는 비는 두 사람의 샅샅을 치고 연두빛 윤기 흐르는 배추잎을 살랑살랑 건드렸다.

『좌쉴님 무슨 뱀이를 쓰신다구해서...』

최 유사는 황송스럽게 말하면서 김 좌수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은 무슨 큰 자랑거리나 감춘듯 하였다.

『응! 그래...』

땀땀이 섰던 김 좌수는 무슨 수나 난 듯이 들었던 바가지를 던지고 최 유사 곁에 다가섰다.

『응 그래 어찌했는가? 전번 휘구편에 자네게두 부탁을 했지? 그래 구했는가?』

『여기 잡았는데...』

하면서 최 유사는 왼손에 들었던 칩늘어진 배주머니를 내들었다.

『응 그건가?』

김 좌수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텅비면서 손을 내밀어 받으려다가 비에 젖은 주머니가 꿈틀꿈틀 물결치는 것을 보더니 그만 손을 움추렸다. 움추려 들인 손이 스스로도 안 되었는데

『하어간 들어가세! 이 비오는데 큰 고생을 했네?』

하고 앞장을 섰다.

『별랄숨을 다하심메!』

최 유사는 회색이 만연해서 뒤따랐다. 『노덕이집 최 유사(有司) 뱀이를 잡아왔구마!』

헤벌헤벌 마당에 들어선 김 좌수는 소리를 질렀다. 방문이 열리면서 주인마누라가 나왔다.

온 집안은 끓었다. 닭을 잡네, 찰박을 짓네 하여 최 유사 점심 준비에 여편뱀들은 수군거렸다.

『여보! 노덕이(마누라) 저 건넯집 선동아비를 오라구 하오..... 그놈 삼들인지 셋들인지 앓아 지빠누었으니.....』

김 좌수는 분주히 들락날락 하면서 떠들었다. 김 좌수가 부른 선동아비가 왔다. 그는 김 좌수의 아우다. 이웃집 늑은이 두어분도 왔다.

어수선 들썩하던 집안이 점심상이 방에 들게 된 뒤로 조용하였다. 한참만에 우루루 흠어진 머리에 감투를 눌러쓴 선동아비가 이웃집으로 가더니 한자 남짓한 왕대(王竹)를 가져왔다. 방안에 모여 앉은 여러 사람은 우우 나왔다.

뒷마루에 나선 김 좌수는 『삼돌아!』

높이 불렀다.

『삼돌아! 저놈이 죽었어?』

더 높이 불렀다.

『네……』

하는 겹고 쪽꾸리운 듯한 대답이 들리더니 이윽하여 사랑으로 어청어청 들오는 삼돌의 머리는 누구에게 चेप्민 것처럼 더부룩하게 되었다. 겹나게 두 뺨은 좀 빠졌고 이마는 꺼먼 수건으로 동였으며 이맛살은 조금 찌푸렸다.

『네 이놈아. 남은 이 빗오는데 뺨이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너는 꼭 들어 백혀서 대가리도 안내빈단 말이나?』

주인영감의 소리는 나직하나 위엄이 등등하였다. 삼돌이는 아무 대답없이 마루에 수긋이 서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삼돌을 보았으나 그런 인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태도였다.

『어서 참대통에 넣어라』

김 좌수의 소리가 끝나자 선동아비는 배암 든 폐주머니를 집어서 삼돌에게 주었다. 삼돌이는 서먹서먹해서 주저거

리다가 겨우 받았다.

『야 이놈아 얼른 채내라!』

김 좌수는 눈을 부릅뜨고 입을 비죽거렸다.

『채 내다니, 산 뺨을 어떻게 채요?』

선동아비는 왕대를 손 새에 넣고 쓱쓱 훑으면서 혼잣말처럼 뇌었다.

삼돌이는 배 주머니 아가리를 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열고 들여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면서 머리를 돌렸다.

『그대루는 안 되리라. 꼬리를 뺐으니, 그 노끈을 내게!』

문턱 앞에 앉았던 최 유사가 가르치더니 그만 자기가 들어서 그 끈을 집어냈다. 배가 회고 등이 거뭇한 것이 끈을 쫓아 꿈틀하면서 달려나왔다. 길이가 자가 되나마나하고 통은 엄지 손가락만한 독사였다. 노끈에 꼬리가 달려서 대롱대롱 드리운 배암은 꾸깃꾸깃 몸을 틀다가도 머리를 뺏뺏이 하고 허리를 휘어서 사람의 손을 향하고 치올렸다. 기우 겨우 꼬리끝 가까이 오다가는 그만 힘이 모자라는지 축 늘어져 비란다.

그렇게 사오차나 하더니 그 담에는 죽은 듯이 축 늘어졌다. 마치 짐승의 뺨을 늘린 듯하나 이따금 꿈틀꿈틀 할 때면 삼돌이는 등골이 근질근질 하였다. 선동아비는 왕대 구멍을 요리조리 뺨소니치는 배암 머리에 대더니 한참만

데 댕속에 배암을 집어넣었다. 댕속에 스스로 든 배암의 머리가 손 감은 쪽 대구멍으로 거칠거칠 나오게 된 때에 치을 머리 넣은 구멍 밖에 뺨이나 남은 꼬리를 쭉 휘여다가 대에 꼭 잡아 매었다.

이때 방으로 들어간 김 좌수는 엉엉우는 만득이를 붙잡고 나왔다.

『흥—흥 싫소—으응』

만득이는 문턱에 발을 버티고 뒤로 몸을 젖히면서 고함을 쳤다. 뚱뚱한 김 좌수는 만득이 겨드랑이를 들어 내어밀었다.

『이놈의 새끼야. 죽기보담은 단 낫더냐?』

그러나 만득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왕대를 쥐고 섰던 선동아비까지 대는 삼들에게 주고 만득이를 끄집어 내기에 힘썼다.

『만득야 아프지 않다. 눈을 질끈 감고 견데라』

선동아비는 순탄스럽게 말하였다.

『이런 개새끼 같은 놈으새끼—야이 쌍놈으 새끼야』

김 좌수는 솔뚜껑 같은 손으로 만득이의 머리를 쳤다.

『예구 제마이잉 예구 내죽슴메?』

마루로 끌려나오는 만득이는 짐이 떠나가게 통곡한다.

『예구! 그거 무슨 때림메? 칠없는 거 얼리지 때릴게 무에오』

명감 곁에 섰던 주인 마누라는 가슴이 아프다는 듯이 엇감을 흘끗 보았다.

마루에 보였던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어 서 만득이를 붙잡았다. 만득이는 그저 섭게섭게 통곡했다. 삼들이는 왕대를 가로 들었다. 여러 사람들은 만득이의 바른편 장손가락운 배암의 머리가 있는 대구멍에 넣었다.

『예구 제마』

만득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오장이 뒤집히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만득의 손가락을 뽑아보았다.

그러나 배암은 붙지 않았다. 이번에는 만득의 손가락을 배암의 입에다 꺾대고 바늘로 배암의 꼬리를 쭉쭉 찢었다.

엉엉 울던 만득이는 갑자기 몸을 종그리고 울면서 낮이 파래서 큰 소리를 질렀다. 여럿이 뽑은 만득의 손가락에서는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됐다! 우지 말아. 이제는 그만 뒤라』

김 좌수는 큰 성공이나 한 듯이 회색이 만면해서 만득이를 달래었다

『응 이거 먹어라. 우지 말아』

주인 마누라는 꺼먼 엇몽치를 만득의 가슴에 안겼다.

『으응 흥…… 예구……』

만득이는 모두 귀찮다는 듯이 발버둥

을 치면서 그걸 울었다.

『어—이저는 낫겠군…… 그러나 그 뱀을 불에 태우오. 그 놈이 살아나면 아무 효험두 없는 걸!』

어떤 늙은이가 점잖게 말했다.

5

그럭저럭하는 세에 중북이 지나고 말복이 지났다.

배암이 문 덕이든지 만득의 병은 좀 차도가 있었다. 목으로 돌아가면서 두 뉘를 돌아서는 물이 번지르하게 터지던 연주창이 더 돌지 않았었다. 지르르하던 물도 차츰 거두었다. 일심 정력을 다 들어서 구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웃음이 흘렀다.

그러던 연주창이 말복이 지나서부터 다시 명을명울한 알이 치면서 뿌옇고 찌득한 군물이 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어깨에까지 떠들떠들한 것이 놀리 보면 알렸다.

김 좌수 내외는 낮빛이 좋지 못하였다. 금년 스물 셋되는 며느리(만득의 아내)도 말은 안 하나 매일 상을 쟁그리고 지내었다. 만득이는 굴방에도 가지 않았다. 낮이 해썩한 것이 목을 한쪽으로 끼우시고 늘 늙은 어미 궁둥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엇과 먹으로 날을 보내었다. 밤이면 아버지 곁에서 자고 젊은

아내는 뒷방을 홀로 지켰다. 만득이는 장가가서 삼년 동안 아내와 잤으나 병이 심하면서부터는 아버지 김 좌수가 별거를 시켰다. 그러나 만득이는 어떤 때면 남 자는 밤에 술그머니 아내 방에 갔다가는 바지춤을 움겨쥐고 와서 몰래 아버지 곁에 누웠다. 그가 열두살 나서 장가들제 지금 스물 셋되는 아내가 열아홉살이었다. 그것도 김 좌수가 권력으로 뺏아오다시피 삼은 며느리였다. 만득이는 장가 든 첫날밤에 오줌을 싸고 울었다.

『과년한 처녀 색시가 못견디게 굳게 지?』

만득이가 울었던 말 듣고 이웃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그 말이 색시 귀에 들어갔는지? 색시는 한참동안 밖에 못나왔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뒤 우물가 대추나무에 목까지 맨 일이 있었다.

『어리게(만득) 무스거 알겠오! 색시는 이것 저것 다 알텐데 잘 ○○○못하니 죽자 한 게지?』

색시가 목매었다는 소문이 나자 이웃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다.

그러다가 작년 봄— 만득이가 열다섯 나서부터 각 자리를 하게 되었다. 각 자리를 한 뒤 일곱달만에 색시는 몸을 풀었는데 딸이었다. 그 딸은 남지 첫이

레가 겨우 지나서 죽어 버렸다. 어떤 때 뒷방에서 소리없이 우는 만득이 아내의 꼴이 시어머니와 주인엄마 눈에 띄었다.

『사내가 그리운가? 사내 병이 걱정되는가?』

시어미 시아비는 며느리의 울음에 이러한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나날이 심하여가는 만득이의 병에 모든 정신이 쏠려서 그 밖에 것을 돌아볼 여가가 없었다.

오늘도 아침부터 만득이의 병을 생각하고 출에서 거닐던 김 작수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저녁 뒤에는 방에 드러누웠다.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파란 기름을 보았다.

『여보 노댁(마누라)이 거기 있오?』 드러누웠던 김 작수는 벌떡 일어나 앉아 재떨이에 대를 얹어 꼭 누르면서 불렀다.

『네에』

방 사이 문이 열리면서 낮이 불그베한 아직 사십이 된 막말막한 주인 마누라가 들어왔다.

『만득이는 어디에 있오?』

작수는 마누라를 힐끗 보았다.

『저 정제(부엌방) 잇슴메!』

마누라는 입으로 부엌방 쪽을 가리켰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영감과 아직 입

술이 붉은 마누라가 마주 앉은 사이는 따뜻한 기운이 없이 쌀쌀하였다.

『자아 병을 어떻게 하문 좋겠오!』

『글쎄 내들 암메(허를 차면서) 죽어두어서 죽구 살아두 살구!』

마누라는 너무도 지칠하다는 어조였다. 김 작수는 물었던 대를 뽑고 이마를 찡그렸다.

『또 방정 뎡다. 죽다니?』

『예구! 어떤 앤데 죽기를 소원하겠오? 너무두 시진하니 나온 소리지비』

마누라 소리는 좀 화순하였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근체야 안하겠오?』

영감의 소리도 의논 좋게 나왔다.

『글쎄 뻔이게 물에두 그러니! 인저는 사람의 고……』

마누라는 말을 딱 끊더니 누구를 꺼리는 듯이 작수를 돌아보았다. 불빛이 흐릿한 방에는 연기가 휘돌아 열어놓은 문으로 흘러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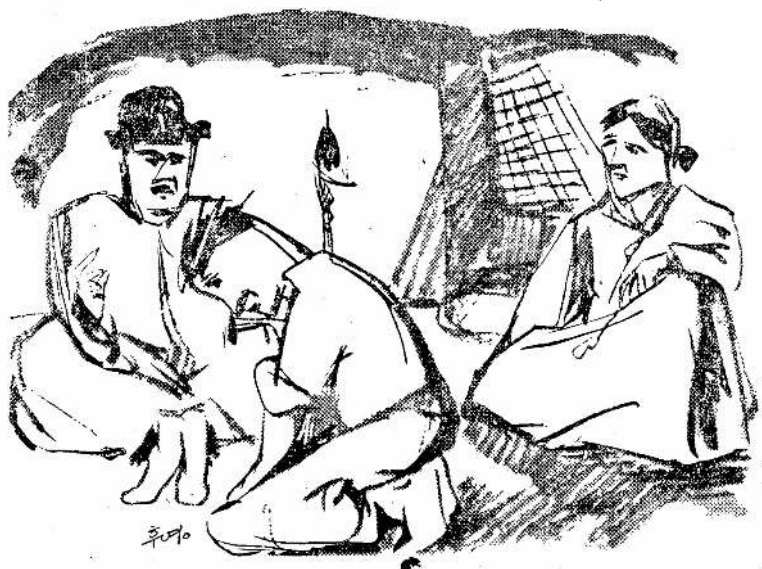
『쉬! 조심하오! 조심해…… 아이 들소?』

영감도 주의를 시키더니 마누라 곁에 다가 앉으며

『사람의 고기나 맥여볼까?』

입속말로 소근거렸다.

『글쎄 그레스든 오죽 좋겠오마는 어디서 얻겠오』



마누라 역시 나직한 소리였다. 영감은 머리를 숙이고 한참 주저거리더니 마누라 귀에다 입을 대고 소근소근 하였다.

눈이 둥그랴지던 마누라는 영감의 말이 끝나자.

『그눔이 들을까?』

어색하게 물었다.

『잘 얼리면 안듣구 발겠오, 제게두 좋지미』

영감은 자신있게 말했다.

『좋기야 그렇게만 하면……만 하면이 아니라 꼭 해주지 무슨……』

마누라도 뱃심을 뒤했다.

『암 해주구 말구!』

영감은 다시 담배를 담았다.

그 이튿날 저녁이었다. 김 좌수는 텃밭에서 밭을 파고 있는 삼둥이를 불러들였다. 삼둥이는 삼을 땅에 박아놓고 아랫다리를 붙인 걸은 채 마루 아래에 와 섰다. 어느새 선동야비도 왔다.

『응 네 왔니? 저 뒤 구름물(井)에 가서 손발을 씻구 오라구!』

대를 물고 문턱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김 좌수는 어린 아들이나 대한다는 듯이 다정스럽게 말하였다. 삼둥이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서 섰다가 시키는대로 우물에 손발을 씻고 왔다.

『응, 마쳤니? 들어오나라』

주인영감의 명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사람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고
주인영감은 화순하게 말하는 것을 보
니 삼돌이는 기꺼우면서도 공연히 가슴
이 두근두근하였다. 그는 한 무릎을 깔
고 한 무릎을 세우고 공손히 앉았다.

『얼매나 왔오?』

선동아비는 빙그레 웃으면서 삼돌이
를 보았다.

『얼매 못과습겐—넌 아츨까지나 파야
다 파겠오』

머리를 감히 못드는 삼돌이는 조심스
럽게 대답하였다.

『넌 아츨까지 파구말구, 그게 그래
비두 네짐(四百匹)이라 그렇게 잘걸』
트릿한 하늘을 쳐다보면 김 좌수는 동정
을 하였다.

삼돌이는 기꺼웠다. 이 집에 들은 뒤
로 일이면 일마다 잘했다 소리를 못들
었더니 오늘은 자기 일을 옳다고 한다.
어제 주인영감의 태도가 그리 쉽게 변
하는가 생각하니 안갯속을 들여다 보는
듯이 의심스럽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런데 삼돌이두 이저는 서방(장가)
가야하지!』

주인영감은 삼돌이를 흘끗 보면서 싱
긋 웃었다. 삼돌이도 빙긋 웃었다.

언젠가 일만 잘하면 장가도 보낸단

주인의 말도 희미하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떠오? 서방잔 생각이 없오?』

옆에 앉았던 선동아비도 한몫 끼었다
『모르겠오. 흥!』

삼돌이는 선동아비의 시선을 피하여
낮을 돌리면서 또 웃었다. 그의 입은
아까부터 빙긋빙긋 웃음이 흐를 듯 하
면서도 차마 내놓고 못웃는 것이 완연
히 보였다. 나이 삼십이 되도록 여윈배
절에도 못앉아 보았건마는 장가라고 하
니 어찌 마음이 들먹들먹 움직였다.

『모르기는 어찌 몰라? 그 자식이?
너두 잠깨를 어서 가서 아들 딸 낳고
소나 뵈이고 하문 조챙이겠니?』

김 좌수는 빙그레 웃었다. 옆에 앉은
주인 영감 마누라와 선동아비는 하하
웃었다. 그 웃음은 놀리는 것처럼 가볍
게 흘렀다.

『어찌 대답이 없는가? 서방 안 가겠
는가?』

주인 마누라는 웃음을 그치고 물었다.
『제 팔재 무슨 장가를 다 가겠음메』
삼돌이는 그저 빙긋거리면서도 모든
것은 단념이라는듯도 하고 또는 한줄기
희망이나마 붙이는 듯이 말하였다.

『그늘아 별소리를 다한다. 어더 장개
가지 탈라는 팔재를 걸머지고 나온 늙
이 있다더냐? 내 말만 잘 들으려무나

그러문야 장개만 가? 쇠(牛)도 있구
밭두 있구 무시건들 없으리!』

주인 영감은 담배를 피면서 삼뿔이를
마주 앉았다.

『어떠냐 네 생각에? 너두 생각해 봐
라. 이저는 고만하면 아들은 들쭉으로 손
자붙텐데 하하하. 내 하는 말을 듣겠니.
그러문 장개두 보내구 또 쇠 밭까지 출
췌 흥』

주인 영감은 농 비슷하면서도 정색하
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요?』

『응, 그래 무슨 말이든지 할께 꼭 듣
지?』

주인 영감은 다짐을 두라는듯이 말했
다. 삼뿔이는 대답이 없었다.

『응, 너더러 거저 들으라는 말은 아
니다. 이봐라 내 말을 들으면 장개 가
구 집 한채 쇠 한필이, 밭 다섯감이를
당장에 주마! 그만하면 네 한뉘는 열
러없을게구나. 또 너두 늘 이러구 있어
서야 쓰겠니!』

처음은 웃음엿 장난으로 믿지 않았었
으나 점점 부르늑아가는 주인의 타령에
삼뿔의 마음은 솔깃하였다. 간단히 그
의 머리를 치는 조그마한 집, 세간 그
것이 금방 눈앞에서 실현이나 될 것 같
이 기쁘기도 하였다. 이런 생각과 같이
낮모를 여자의 낮, 아담하고 깨끗한 작

은 집, 들판한 황소—이런 그림자가 눈
앞에 어른거리면서 그는 스스로도 억제
치 못할 웃음을 빙긋하였다.

『무스게오?』

『글쎄 꼭 들지?』

『네!』

『오! 그러문 내 말하마!』

『그래 이 말은 꼭 들어야 한다. 그리
구 아꾸게 하구두 밭을 말아야 한다』

주인 영감은 다지고 다지었다. 삼뿔
이는 그저 간단하게

『네!』

하였다. 그의 낮에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기쁨이 흐르는 속에 두 눈은 의심
의 빛이 돌았다.

『내게 무슨 심(힘)이 있겠음메마는
거저 제 심만 자란다문사……』

말끝을 맺지 못하는 삼뿔의 소리는
떨렸다. 그것이 서두가 없고 조리가 없
으나 그 말하는 그의 낮에는

(어떠한 괴물이든지 만득의 병을 위
한다면 받겠읍니다.)

하는 표정이 불그레 올랐다. 그 태도
그 소리에 방안의 공기까지 스프르 알
수 없는 기분에 움직거리리는듯 길 짝수
내의 선동아미까지 부드럽고 따스한 애
수에 잠기는 듯이 한참 말이 없었다.

희미하게 뜬 서천 구름 사이로 붉은
햇살이 먼 들에 흘렀다. 훈훈하고 축축

한 바람이 풀향을 싣고 방으로 불어 들었다.

『으음! 그런데 이거 봐라, 네가 조금 아픈대 전디면 반죽의 병두 낫고 또 너두 장가보내고 쇠 한판이와 밭을 즐대나……』

한참만에 입을 연 김 좌수는 말 뒤를 끌었다.

『무슨 일이요?』

삼돌이는 그저 머리물 숙이고 있었다

『응! 이거 봐라』

하고 김 좌수는 역시 말하기 어려운 듯이 주저주저하다가 다시 목에 가래를 떼고 삼돌이 앞에 다가앉아 수긋하고 삼돌이를 보면서

『이거 봐라, 너도 들었는지, 재(반죽) 병에 뱀이 약이라구 해서 너무 술한 고생을 했구나! 한테 그놈으께 어디 낫더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는 꼭 나르(낫는)단다…… 저…… 사…… 사람으 피기를 먹으면 낫는단데 어디서 알겠니…… 참 너무 말해두 이저는…… 벌써』

하더니 손가락을 폈다 꺾었다 하다가

『삼년이나 우리 집에 있으니 그저 참 우리 식구나 다름에 없는 처지요, 또 우리도 아물겅 먹이든 완이니 아픈대로 네목 피기를 조금만 제자……응』

김 좌수는 말이 끝나자 숨이 찬 듯이

한숨을 휴 쉬었다.

『이 사람 자네 동생을 살리는 셈치고 한번 들어주게, 제발…… 응…… 자네게 우리 아이 목숨이 달렸네』

주인 마누라가 애원스럽게 뒤를 미었다. 삼돌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목피기 할 때 가슴이 꿈틀하고 울렁울렁하였다.

『에 어때요, 뭐 크게 별 것도 없고 요란하게(자기 목을 엄지와 검지로 쥐어잡아 당기면서) 거저 골때죽만하게 떠졌으니……』

선동아비도 말하였다. 세 사람의 시선은 다같이 무엇을 바라는 듯이 흐릿하게 삼돌이의 수그린 머리에 떨어졌다.

『아파서 어떻게……』

삼돌이는 쥐구멍이나 들어갈 듯이 울듯울듯 한 마디 응했다.

『하하. 야 이 사람아 그양 선득할 뿐이지 무슨 그리 아프단 말인가?』

조금 도려내고 이내(금방) 약을 척 붙이면 그까짓 거 뭐 담박 낫을겄』 김 좌수는 호그맽게 말하였다.

『그때두 아파서』

삼돌이는 금방 잘리는 듯이 상을 짊그리고 목을 어루만졌다.

『이거 봐라, 그러기만 하면 네가 우리집에 진 돈두 그만 탐강해버리구, 그리고 너를 서방(장가)두 보내구 또 밭

과 쇠두 춘단 발이다. 내 이제 이렇게 늙은게 네게 거짓말을 하겠니?』『우리 집에 진 돈』이라는 것은 진달 장마 때 삼돌이가 소를 갯가에 매었는데 그만 소가 물에 빠져 죽었다. 주인 영감은 삼돌이가 잘못해서 죽었다 하고 그 소값을 일백오십량이라 하여 삼돌이에게서 표를 받았다. 삼돌이의 한해 앓은 오십량이었다.

『…………』

『어제 대답이 없니? 만일 정 솔호면 그만 두란 말이다』라는 쇠값을 내놓고 널이라도 나가거라』

영감은 배를 뒹겼다.

『아파 영감두 삼돌이가 어련히 들을 라구!』

마누라는 고삿을 늦추었다. 그에게는 장가, 소, 밭, 집, 그것보다도 쇠값—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에 마음이 썩었다. 이때까지 자나깨나 그 돈 일백오십량이 가슴에 체증처럼 걸렸더니 갑작 잊은 이 순간에 또 그것이 신경을 흔들었다. 그만 얼른 모가지 고기를 더 밀고라도 그것을 벗고 싶었다. 그 돈을 벗고 장가들어, 소 한필이, 밭, 집 한 채…… 뒤따라 이러한 생각과 환영이 그의 눈 앞에 얼른얼른 하였다. 그는 기뻐다. 바로 그런데나 지금 들었고 있는 듯 하였다.

그러나 다시 모가지 고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꺼림하여졌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밭, 장가, 밭, 소, 집이란 이상한 큰 힘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문 어떻게……』

그는 겨우 말번지는 어린애처럼 머리 숙인채 말했다.

『홍, 그백…… 그저 삼돌이야!』

주인은 능켰다.

『그러문 저 방으로 들어가지?』

선동아비는 일어서서 옷방 문을 열었다.

『노백이는 여기서 누기 들어붓오게 하오! 어서 저 방으로 들어가자』

김 좌수는 벼룻집 서랍에서 형짚으로 들쭉잡은 것을 집어 내더니 삼돌이를 재촉하였다. 주인 영감의 손에 잡힌 기름한 것(형짚에 잡은 것)을 볼 때 삼돌이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것은 상투 밑 치는 것이었다. 삼돌이도 그것으로 머리털을 쳤다. 그의 가슴은 울렁울렁 걸잡을 수 없고 몸이 우루루 떨었다.

이가 덜덜 쫓겼다. 차마 일어서지 못했다.

『야 빨리하자! 맛을 때는 얼른 맛아야 시원하리라!』

주인 영감은 순탄하게 재촉하였다. 삼돌이는 일어섰다. 머리까지 울렁거리



고 다리는 마비된 듯이 뻣뻣하였다.
그는 뿌리칠까? 들어갈까 하면서 끌
렸다.

세 사람은 앉았다. 삼돌이는 누었다.
주인 영감은 선동아비를 보고 눈짓을
하였다. 선동아비는 삼돌의 머리를 잡

았다. 굵고 억센 주인 영감의 엄지와
검지에 삼돌의 목고기는 잡혀서 죽 늘
어났다. 삼돌이는 온 신경이 송그리들
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쳤다
『예구 예구 예구!』

그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다. 빛, 장

가, 집—다 그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다만 고기, 피, 죽음 이것만이 그의 모든 정신을 지배하였다.

『취— 이게 무슨 소리냐? 소리를 내지 마라!』

주인 영감은 손을 멈추면서 삼돌에게 주의시켰다. 삼돌이는 소리를 그쳤다. 칼이 닿았다. 목이 선뜻하였다.

『에구……살소!』

삼돌이는 장에 갇힌 개처럼 마구 울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주인 영감은 손을 펴고 빈적 일어나 삼돌의 가슴을 짚었다.

『머리를 꼭 붙들어라!』

주인 영감은 선동아비에게 주의를 시켰다.

『에구! 으윽』

목을 눌러서 꺾끼하는 삼돌이는 몸을 모으고 뒤치면서 머리를 들었다. 주인 영감은 급한 김에 두 손으로 목을 눌렀다. 오르는 힘! 내리는 힘! 두 힘 속에 꼭 박혔다.

피는 여전히 흘렀다. 삼돌이가 배를 펴고 숨을 들이 쉴 때면 흐르던 피가 그르르 끌어이다가도 으윽—하고 숨을 내쉬게 되면 뜨거운 선지피가 김 좌수의 손가락 사이와 손바닥 밑으로 주루룩 콧—솟았다. 세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누웠한 샷자리에 줄줄이 흐르

는 피는 구름발같이 피기도 하고 생감이 흐르기도 하였다.

『야 장가제오나라, 장(醬)—』

어쩔줄 모르고 섰던 선동아비는 아랫방으로 뛰어갔다. 기속하여 선동아비와 주인 마누라가 들어왔다. 주인 마누라는

『어마!』

‘하더니 그냥 콧 주저앉아서 부들부들 떨었다. 선동아비는 장을 삼돌이 목에 철썩 붙였다.

때는 흐른다. 초초분분히 숨을 빼앗긴 목숨은 흐르는 배와 같이 시들었다. 장을 붙였을 때는 삼돌의 역세던 사지에 기운이 빠지고 두 눈은 무엇을 노리는 듯이 뜨고 못잡을 때였다. 끊어 들었다. 솟아나오던 그 뜨거운 피도 이제 는 김없이 줄줄 흘러 엉키었다.

피투성이가 된 김 좌수 형제와 마주앉은 마누라는 그제 멍하니 식어가는 삼돌의 몸에 눈을 던졌다. 방안은 점점 총총하였다.

우중충한 하늘이 저녁 뒤부터 비를 몹시 뿌렸다.

썩— 우— 바람소리 빗소리가 어우러져서 먼 바닷소리 같았다. 기왓골로 울려 주루룩 날리는 낙숫물 소리는 썩 여울소리처럼 급하였다. 삼경이 넘어서었다. 김 좌수집 웃방에서 장정 둘이 밖으로 나왔다. 베고의 적삼에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앉아서 마루에 나서는 것은 뚱뚱한 김 좌수다. 뒤따라 역시 단출하게 차리고 발 벗고 등에 기름하고 큼직한 것을 검은 보에 싸지고 나서는 것은 선동아비였다. 두 사람은 방으로 흘러 나오는 불빛까지 거리진다는 듯이 비쭈 문을 피하여 어둠 속에 섰다.

『예구 어드메루 감메!』

나중에 이어 나온 마누라는 어둠 속을 향하여 수근거렸다.

『쉬— 아무테루 가든지 어서 문을 탈소!』

역시 입속말로 하면서 뚱뚱한 그림자부터 마루 아래로 내려섰다.

『아즈마니 들어가요, 저 앞 갠(川)으로 감메!』

큼직한 것을 짙어진 그림자가 뒤따라 내려가면서 수근거렸다.

두 그림자는 마루 아래서 어른거리더니 침침한 어둠 속 시끄러운 빛속에 자취와 몸을 감췄다. 썩— 내리는 비는 그저 이따금 바람에 우— 불려서 마루에까지 뿌렸다.

두 사람이 빠져나간 뒤 창문만 불빛에 흰색 커다란 점불이 비바람 속에 잠겨서 가만히 놓인 것은 무슨 큰 비밀을 감춘 듯도 하고 무슨 큰 설움을 말하는 듯도 하였다.

삼돌이의 그림자가 김 좌수 집에서 사람지던 날부터 김 좌수 집에 드나드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김 좌수뿐이었다. 그 마누라와 선동아비도 희미하게 느끼나 김 좌수처럼은 느끼고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어둔 밤, 고요한 밤, 깊은 밤, 비오는 밤이면 어두운 구석에서 술근히 나타났다. 낮에도 언뜻 언뜻 김좌수 눈에 띄었다.

조그마한 일에도 현령을 서릿발같이 내리는 김 좌수의 위엄으로도 그것을 쫓아낼 수는 없었다. 쫓아내기는 고사하고 그것이 뭇것이 보이면 그는 간담이 썩늘하여지고 머리끝이 쭈뼛하였다. 날이 점점 지날수록 그것의 출입은 더 잦았다. 어떤 때는 밖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옷방으로부터 나타났다. 그것이 드나들게 된 뒤로부터 김 좌수는 날만 저물면 뒷간이나 허덕간으로 나가기를 싫어하였다. 옷방으로는 더욱 드나들기를 꺼렸다.

김 좌수의 마누라도 말치는 얌으나 낮에도 우중충 호리고 비나 줄줄 내리던 뒷간이나 옷방으로 드나들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따라서 만득이와 그 며느리까지도 공연히 무시무시한 기분에 싸인 듯 싶었다. 아직 조가울이건만 김 좌수 집에는 늦은 가을처럼 쓸쓸한 기분이

스스로 돌아왔다.

그래서 김 좌수는 농군을¹ 어서 두려고 구하였으나 아직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랑방에 바둑 장기를 갖다 놓고 밤이면 이웃집 젊은사람들을 청하였다.

『어쩐지 그 집으로 가기싫네』

『글쎄 무슨 귀신이 있는 것처럼 늘 무시무시 해서』

『난 삼돌이 달아난 뒤엔 못가봤오』

이웃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였다. 그런 소리가 여편네들 입으로 김좌수에게 도전하였다. 이런 말을 들을 적마다 김 좌수는

『별놈덜 별소리를 다한다. 어느 놈이 그래, 응, 어느 놈이? 귀신 무슨 귀신 있단 말인가?』

하고 혼자 툄닥거리를 놓았다. 그러나 그 말대꾸하는 사람은 없었다. 김 좌수의 마누라가 일전에 몸살로 들어누웠을 때 어떤 부당이 와서 집을 치고 원귀(怨鬼)가 있다고 한 뒤로는 김 좌수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거니와 이웃에서도

『오오 그래서 만족이가 앓는게로군—그래서야 뺨이 아니라 볼로촌들 소용있겠오?』하고 수근거렸다. 그럴수록 사람의 자취는 더욱 끊어질 뿐이었다.

이렇게 될수록 김 좌수의 이맛살은 나날이 심하였다. 불그레하던 낮빛은 한달이 못되어 푸르고 회며 축 처지다시피 살렸던 두 뺨은 빠졌다. 늘 무엇을

멍하니 보고 있는 그의 가느스름한 눈에는 집과 두려운 빛이 흘렀다. 그는 매일 술로 빚을 삼았다. 그것도 처음에는 빛이 되었으나 지금은 소용없었다.

김 좌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따라 뒤숭숭한 것이 또 안질부절을 못하게 되었다. 어둑한 밤 저편 허덕간 침침한 어둠 속으로 목을 쭉 늘이고 뭉겼한 것이 어청어청 나왔다. 그는 눈을 돌렸다. 불빛이 그물그물 비치인 옷방문이 번쩍 열리면서 싹뻗진 피뭉치가 나왔다. 그는 애써 모든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뜨면서 시선은 마루로 옮겨졌다. 시키면 그림자가 그의 앞에 섰다. 그의 가슴에서 돌덩어리가 쿵 내려왔다. 그것은 피물은 그림자였다. 모두 착각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부르쥐었다. 용기를 가다듬었다. 담배를 펴먹 빨면서 물에 내려서서 어둑한 곳마다 자세 자세 들여다 보았다. 아무 짓도 없었다. 없으리라 믿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무에 있는 듯하고 알 수 없는 커다란 손이 뒤로 슬금슬금 와서 모가지를 잡는 듯이 뒤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돌렸던 머리를 다시 돌이킬 때가 더 괴롭고 무서웠다. 그는 무엇이 쫓는듯이 얼른 방으로 들어왔다.

『노력이(마누라) 자잔이겠오?』

그는 부엌방을 향하여 떨리는 소리를 진정해 졌다.

『네, 자지비.』

하는 소리가 나서 한참만에 사잇문이 열리면서 마누라가 썩썩자는 만득이를 짹짹 안고 들어왔다.

『엇잡히 야를 안고 여기서 자오. 나는 머느리 혼자 자기 무섭다니 같이 자겠오!』

하고 마누라는 부엌방으로 나가버렸다. 마누라가 나간 뒤에 김 좌수는 손수 자리를 피고 만득이를 뉘었다. 다음 그는 벽에 걸어놓은 기단 환도를 끄집어 내려서 머리맡에 놓았다. 이것은 대대로 전해오는 환도였다. 몸이 몹시 아프다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한 때면 이것을 머리맡이나 베개 밑에 넣고 잔다. 그러면 원귀가 들지 못하여 꿈자리도 뒤숭숭치 않고 몸살 간은 것도 물리간다고 믿는 까닭이었다. 요새 그놈의 이상 야릇한 그림자가 꿈에까지 김 좌수를 못견디게 들어서 이 환도를 머리맡에 놓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눈 앞에 그 그림자가 보이면 환도로 그것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늘 그림자는 맞지않고 방바닥이나 문턱이 맞았다.

무거운 어둠이 흐르는 방에 창문만이 밝은 밤빛에 희스름하였다. 사면은 피피한데 이따금 바람이 지나는 소린가?

미당에서 부시럭 소리가 들렸다. 김 좌수에게는 그것도 저벅저벅하는 자취소리 같았다. 그는 눈을 애써 감으나 자주 웃방문을 향하여 피어졌다. 그는 또 눈을 감았다. 자리라 하였다. 몸살이 나고 미열이 났다. 그는 두발을 이불 밖으로 내밀면서 눈을 썼다. 커다란 그림자가 그의 눈 앞에 섰다. 그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번쩍 일어나 앉았다. 그림자는 점점 확실히 보였다. 그것은 뺨대에 걸친 두루마기였다. 그는 가슴에 손을 대면서 다시 누웠다. 돌아누웠다가는 번듯이 눕고, 번듯이 누웠다가는 돌아눕고, 눈을 감았다가는 뜨고, 떴다가는 감고, 이불을 차밀었다가는 도로 덮고, 덮었다가는 활짝 차밀고하여 신고하던 끝에 김 좌수는 느른하여 비몽사몽간에 들었다.

그림자는 꺼먼 배고의 적삼을 입었다. 다리는 불신 같았다. 푸른 힘줄이 툭툭 빠진 다리! 손뽕 같은 손! 더부룩한 머리는 산산이 흩어졌다. 꺼멓고 뚱뚱한 낮은 피칠이 되었다. 목으로는 검붉은 선지피가 흥건히 흘러서 꺼먼 고의적삼을 물들였다. 전신이 피었다. 사람이었다. 두 눈은 독살이 잔뜩 오르고 이는 악물었다. 그것은 김 좌수 앞에 다가섰다. 악문 이빨과 목으로 푸우 뿜는 피는 김 좌수에게로 튀어왔다. 모든

것은 너무도 선명하게 김 좌수에게 보였다.

『앗! 삼돌이놈!』

김 좌수는 한 마디 소리를 쳤다. 그는 알 수 없는 굳센 힘에 지배되어 머리맡 환도를 집어들었다.

『이놈!』

번쩍 하는 빛은 벽력같은 소리와 같이 그 피사람을 향하여 내려쳤다. 일어나 앉은 채 전신의 힘을 다하여 칼을 내리운 김 좌수는 그저 그대로 앉았다.

『영감! 영감이 소리를 칠때?』

저편 방에서 자런 마누라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김 좌수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다. 사잇문이 열리면서 환한 기름등이 마누라 손에 들려서 들어왔다.

마누라는 등을 한 손에 들고 선잠 켜 눈을 비비면서 영감을 보았다. 영감은 입술을 깨물고 부릅뜬 눈으로 주먹을 내려다 보고 있다. 힘있게 버틴 팔 아래

역세이게 부르친 커단 주먹에는 환도가 무가 꼭 잡혔다. 환도가 내리친 곳에는 그가 사랑하던 아들 「만득」의 몸이 모가지로부터 가슴으로 어수하게 두 조각이 났다. 흐르는 피는 요바닥을 흠뻑 적셨다. 흐릿한 방안에는 비린내가 흘렀다.

『에엑!』

하자 편한 불빛에 노렸다가 플리던 영감의 눈은 다시 등그레 지더니 피를 콕 토하면서 앞으로 쓰러졌다. 그것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던 마누라도

『으윽!』

하고 쓰러졌다. 그 바람에 기름등은 방바닥에 떨어져서 꺼졌다.

잠 있다가 벌이 총총한 푸른 하늘 아래 어둠 속에 고래등 같이 뜬 김 좌수의 집으로 여자의 처량한 곡소리가 흘러나왔다. 초가을 깊은 밤, 고요하고 행한 집으로 울려나오는 곡소리는 어둠속에 높이 떠서 온 동리에 울렸다.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민병규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대령 이명구

편집실전화: 69-3511, 406-5353



육군 제 3군 부사령관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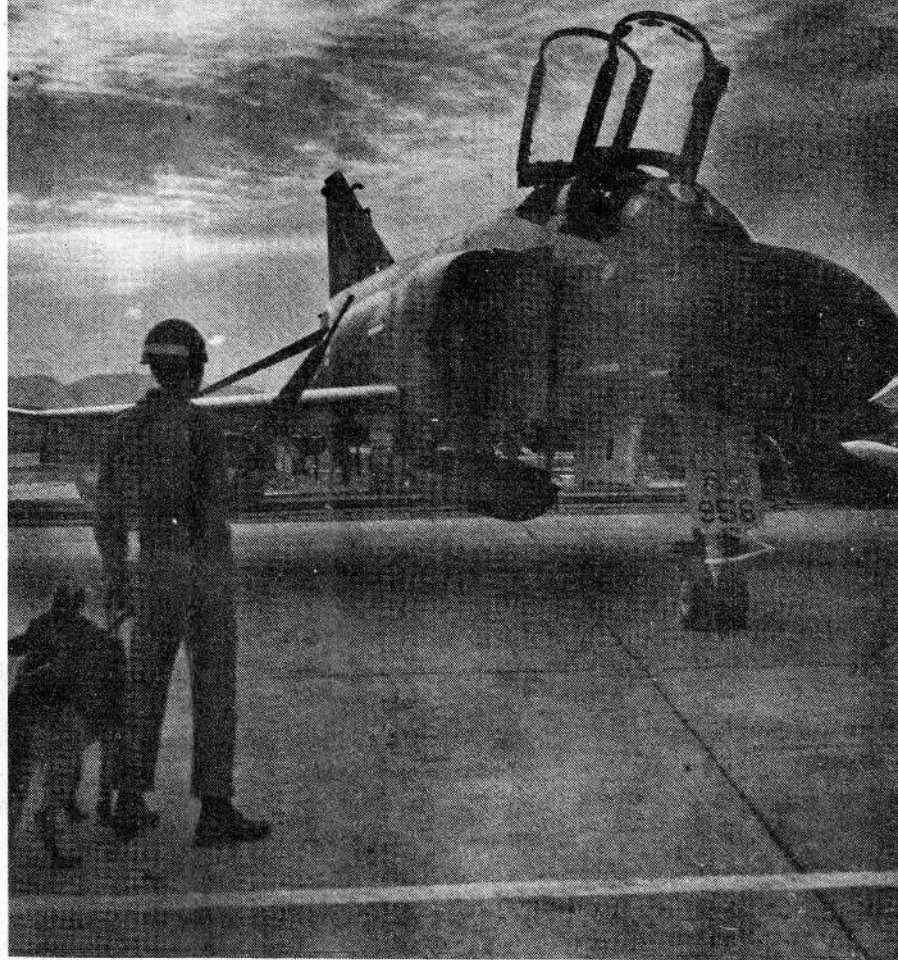
1월 29일 육군 제 3군 부사령관 강 원채 소장은 전역 인사차 주 영북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전 미 국방차관보 공본 예방

전 미 국방차관보 Franklin B. Lincoln, Jr. 씨는 1월 29일 방한 인사차 주 영북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필승의 공군되자